

아마추어 도둑

The Amateur Cracksman

E.W. 호닝 (E. W. Hornung) (1866-1921)

1899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W. 호닝 (E. W. Hornung), "The Amateur Cracksman" (Methuen & Co. 1899)

저자

E.W. 호닝 (E. W. Hornung) (1866-1921)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06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GB10 로컬) · 검수 Claude Opus 4.8 (검수·교정)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19세기말 영국 신사 도둑 이야기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음

E. W. 호닝

A. C. D.에게, 이러한 방식의 아침을 바치며.

목차

3월의 이데스 분장극 신사들과 직업 선수들 첫 번째 수 고의적인 살인 법의 아홉 가지 원칙 재경기 황제의 선물

3월의 이데스

마지막 수단으로 올버니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12시 반이 넘는 시각이었다. 재앙이 휩쓸고 간 현장은 내가 떠날 때와 거의 다름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바카라 칩들이 흩어져 있었고, 빈 잔들과 재가 가득 찬 재떨이들도 그대로였다. 담배 연기를 내보내려고 열어둔 창문으로는 대신 안개가 밀려들고 있었다. 래플스는 그저 입고 있던 디너 재킷을 벗고 수없이 많은 블레이저 중 하나로 갈아입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내가 자다 깨워 끌고 나온 사람이라도 되는 양 눈썹을 치켜세우며 나를 바라보았다.

"뭐 잊은 거라도 있나?" 내가 그의 매트 위에 올라선 것을 보자 그가 물었다.

"아니," 나는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그를 밀치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뻔뻔한 태도로 그의 방을 향해 앞장서 걸어갔다.

"복수하러 돌아온 건 아니겠지? 미안하지만 나 혼자서는 네 복수를 도와줄 수가 없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건 나도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네—"

우리는 그의 벽난로 앞에 마주 앉았다. 나는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말을 끊었다.

"래플스," 내가 말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 시간에 불쑥 찾아온 걸 보고 깜짝 놀랐겠지. 사실 우린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니까. 오늘 밤 전까지 자네 방에 와본 적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학창 시절에 내가 자네 뒤통다꺼리를 하던 사이였고, 자네도 나를 기억한다고 했었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네. 그래도 딱 2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나?"

벽차오르는 감정 탓에 처음에는 한 마디 내뱉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그의 얼굴이 나를 안심시켜 주었고, 내가 읽어낸 그의 표정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물론이지, 여보게." 그가 말했다. "자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있게나. 설리번 한 대 피우면서 좀 앉게." 그러고는 내게 자신의 은제 담배 케이스를 건네주었다.

"아니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힘주어 말했다. "아니오, 담배는 피우지 않겠습니다. 앉지도 않겠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죠. 내가 할 말을 다 듣고 나면, 당신은 그 어느 것도 내게 권하지 못할 테니까요."

"정말인가?" 그는 나를 꿰뚫어 볼 듯한 푸른 눈동자로 응시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아마 저를 당장 쫓아내시겠지요!" 나는 쓰라린 심정으로 외쳤다.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빙빙 돌려 말하는 건 시간 낭비겠군요. 제가 방금 이백 파운드 넘게 날렸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기억납니다."

"하지만 수표책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책상에 앉아 여러분 각자에게 수표를 한 장씩 써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종이 쪼가리들은 하나같이 쓸모도 없어, 래플스. 난 벌써 은행 계좌가 바닥났다고!"

"설마 잠시뿐인 건 아니겠지?"

"아니, 이제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듣기로는 형편이 아주 좋아지셨다던데요. 어디서 돈이라도 좀 챙기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그랬고말고요. 3년 전 일입니다. 그 일이 제 저주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요, 제가 바보였습시다. 저만큼 어리석은 인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쫓아내지 않는 거죠?" 그는 대신 아주 침울한 얼굴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가족분들은 아무것도 못 합니까?"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외쳤다. "나한테는 가족이 없거든! 외동아들로 자라서 있는 재산은 전부 내가 물려받았지.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영원히 모르실 테니까."

나는 의자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으며 얼굴을 가렸다. 래플스는 방 안의 다른 가구들과 조화를 이루는 고급스러운 카펫 위를 계속해서 서성거렸다. 부드럽고 일정한 그의 발소리에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자네 예전에 글 좀 쓴다고 하지 않았나?" 그가 한참 뒤에야 입을 뗐다. "떠나기 전에 잡지 편집도 맡았었지? 아무튼 내 시를 써달라고 자네를 들볶았던 기억이 나네. 요즘 같은 세상엔 온갖 종류의 문학이 다 돈이 되지. 아무나 해도 먹고살 만한 세상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바보나 내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말했다.

"그럼 어디 따로 사는 집이라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가 말을 이었다.

"네, 마운트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그럼, 가구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비참한 심정에 실소를 터뜨렸다. "몇 달 동안이나 물건 하나하나마다 담보로 잡혀 있었던 말이야!"

그 순간 래플스가 걸음을 멈췄다. 치켜 올라간 눈썹과 엄한 눈빛이 나를 향했다. 최악의 상황을 알게 된 그였기에, 이제는 차라리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래플스는 어깨를 한 번 으쓱하더니 다시 걸기 시작했고,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흔들림 없는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며 나는 나의 운명과 사형 선고를 읽을 수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나는 그를 찾아온 나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저주했다. 학창 시절, 그가 크리켓 팀의 주장이었고 내가 그의 하급생이었을 때 그는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가 친절을 보여주리라 감히 기대했다. 나는 파멸했고, 그는 여름 내내 크리켓을 즐기고 남은 일 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했기에, 나는 그가 자비를 베풀어 주리라, 동정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다! 걸으려는 수줍어하고 겸손한 척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그를 의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 경멸하듯 일그러진 콧방울과 굳게 다문 턱,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 차가운 푸른 눈동자에는 자비도 동정도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모자를 집어 들었다.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려 했으나, 래플스가 나와 문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어디 가는 길인가?" 그가 물었다.

"그건 내 일이야." 내가 대답했다. "당신에겐 더 이상 폐 끼치지 않게."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한 적 없네."

"그렇다면 왜 나를 찾아온 건가?"

"정말 그렇군요!" 나도 맞장구를 쳤다. "이제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건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안 돼."

"짐작도 못 하겠어?" 내가 외쳤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서 있었다.

"배짱은 있나?"

그가 물었다. 마법 같은 침묵을 깨뜨린 그의 말투는 어찌나 냉소적이던지, 내 피가 거꾸로 솟구칠 지경이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나는 뒤로 물러나며 코트 주머니에서 권총을 뺄 꺼내 들었다. "자, 이제 길을 비켜줄 건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쏘버릴까?"

총구가 내 관자놀이에 닿았고, 내 엄지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렸다. 흥분으로 미칠 것 같았다. 망가졌고, 치욕을 당했으며, 이제는 이 허망한 삶을 끝내기로 굳게 결심한 상태였다. 지금까지도 문득 놀라운 점이 있다면, 왜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느냐는 사실이다. 타인을 자신의 파멸에 끌어들인다는 비열한 만족감이 내 밑바닥에 깔린 이기심을 자극하며 비참한 유혹을 던졌다. 만약 동행한 이의 얼굴에 공포나 경악이 서렸더라면, 나는 그 표정을 마지막 불경한 위안 삼아 악마처럼 행복한 기분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

하지만 내 손을 멈추게 한 것은 뜻밖에도 그가 지은 표정이었다. 그 얼굴에는 공포도, 경악도 없었다. 오직 경이로움과 감탄, 그리고 기분 좋은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 표정을 마주한 나는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권총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았다.

"이 악마 같은 자식!" 내가 말했다. "당신, 일부러 나한테 시킨 거지!"

"그건 아니야."

상대는 움찔하며 대답했다.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네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뻔했어. 내 평생 그렇게 매력을 느낀 적도 없었지. 버니, 네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절대로 그냥 보내줄 순 없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을 벌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두 번 다시 내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게 두지는 않을 테니까. 우선 이 난장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궁리부터 해야 해. 네가 그런 부류의 녀석인 줄은 정말 몰랐거든! 자, 이제 그 총 이리 내놔."

래플스는 한 손을 내 어깨에 다정하게 얹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오버코트 주머니 속으로 슬그머니 손을 집어넣었다. 나는 그가 내 무기를 가져가도록 아무런 불평 없이 내버려 두었다. 단순히 래플스가 마음만 먹으면 상대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단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사내였다. 하지만 내가 순순히 따랐던 이유는 단순히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올버니까지 나를 몰아붙였던 그 절망적인 희망이,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커다란 안도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국 래플스가 나를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 A. J. 래플스가 나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다! 마치 온 세상이 갑자기 내 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행동을 저지하기는커녕, 방금 전의 광기만큼이나 건잡을 수 없는 열정으로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맙소사, 신이시여!" 내가 외쳤다. "제발 모든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권리가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리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옛 시절을 생각해서, 그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제 머리에 총을 쏘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습니다. 당신 마음이 바뀐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가 말을 하는 와중에도 표정이 변하고 있다고 느꼈다. 다정한 말투로 나를 불러준 옛 학교 별명까지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색이 달라지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내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주었다.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리다니, 정말 못 말리는 친구군! 나도 단점은 있지만, 버니, 말을 이랬다저랬다 바꾸는 건 내 취미가 아니야. 자, 이리 앉게.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서 진정해. 이건 내 권유야. 위스키? 자네에겐 독약이나 다름없으니 안 돼. 대신 자네가 들어올 때 끓이고 있던 커피가 있으니 이걸 마시게.

자,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바카라를 다시 하겠다는 건가?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걸세! 운이 따라주기만을 바라는 건가? 만약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려고?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야. 아니, 이보게 친구, 자네는 이미 충분히 쏟아부었어. 나를 믿고 맡길 건가, 아니면 말 건가?

좋아, 정 그렇다면 더는 손대지 말게. 대신 나도 자네에게 청구서를 내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끼어 있네. 그리고 더 불행한 건 말이야, 버니, 나 역시 지금 자네만큼이나 돈이 궁하다는 사실이라네!”

이번에는 내가 래플스를 뺀히 쳐다볼 차례였다. "당신이?" 나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돈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믿고 여기 앉아 있겠어?"

"내가 설마 자네를 못 믿겠나?" 래플스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자네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이 올버니에 방을 좀 가지고 있고, 클럽도 한두 군데 다니며, 크리켓도 조금 친다고 해서 반드시 은행 잔고가 넉넉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내 말 좀 들어보게, 친구. 지금 내 형편은 자네가 겪었던 것만큼이나 말이 아니야. 오로지 내 머리 하나 믿고 버티고 있다네. 정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일세. 오늘 저녁에 돈을 좀 벌어야 하는 건 자네만큼이나 나에게도 절실한 문제야. 버니, 우린 같은 배를 탔네. 그러니 힘을 합치는 게 좋겠어."

“함께라면야!” 나는 덩석 그 제안을 물었다. “래플스, 네가 정말 나를 고발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난 세상에 못 할 일이 없어.” 내가 말했다. “무엇이든 말만 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여기 올 때도 막다른 길에 몰린 심정이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스캔들만 터지지 않는다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어.”

그의 방을 채우고 있는 호화로운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대 그 모습에 다시금 눈에 선하다. 나태하면서도 탄탄한 체격, 창백하고 날카로

우며 깔끔하게 면도된 이목구비,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강인하면서도 도덕 관념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입술이 떠오른다. 그리고 별처럼 차갑고도 영롱하게 빛나는 그 경이로운 눈빛이 다시금 내 뇌리를 파고드는 것이 느껴진다. 그 눈빛은 내 마음속 깊은 비밀까지 날날이 파헤치며 나를 꿰뚫어 본다.

“정말 진심인지 모르겠군!” 그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지금 기분으로는 진심이었지만, 사람 기분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나? 그래도 그런 말투를 쓰는 걸 보니 아직 희망은 있군. 그리고 보니 자네 학창 시절에 꽤나 용감한 녀석이었지. 예전에 나를 꽤 도와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기억나나, 버니?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 보게. 어쩌면 내가 자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게 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다시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발걸음은 훨씬 느리고 신중했으며, 그 시간도 훨씬 길었다. 그는 내 의자 곁에서 두 번이나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멈춰 섰다. 그러나 매번 말을 삼키고는 다시 침묵 속에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한 번은 얼마 전 닫아두었던 창문을 열더니, 올버니 안뜰을 가득 채운 안개 속으로 몸을 내밀고 잠시 서 있었다. 그사이 벽난로 선반 위의 시계가 한 시를 알렸고, 30분이 지나 다시 한번 종을 울렸다. 우리 사이에는 단 한 마디의 대화도 없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30분 동안 묘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어느덧 나는 내 고민을 이 멋진 친구의 넓은

어깨에 슬며시 얹어 놓은 상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시선은 방 안을 배회하며 판생각에 잠겼다.

방은 올버니 특유의 고풍스럽고도 침울한 품격이 느껴지는, 적당히 넓고 네모반듯한 방이었다. 접이식 문과 대리석 벽난로 선반이 놓여 있었다. 가구들은 적당한 무심함과 세련된 취향이 조화를 이루어 아주 매력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눈길을 끈 것은, 크리켓 선수의 방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물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보통의 선수들처럼 손때 묻은 배트들이 걸려 있어야 할 자리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참나무 책장이 벽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책장 선반마다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크리켓 관련 서적을 기대했던 곳에는, 먼지 쌓인 액자에 담긴 '사랑과 죽음'이나 '축복받은 처녀' 같은 작품의 복제화들이 제각기 다른 크기로 걸려 있었다. 이 정도라면 그는 일류 운동선수가 아니라 이름 없는 시인이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본래부터 미적 감각이 뛰어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학창 시절 그의 서재에서 내가 직접 먼지를 털어주었던 그림들도 몇 점 있었다. 그 그림들을 보고 있자니 그의 수많은 면모 중 또 다른 모습이 떠올랐고, 자연스레 그가 방금 언급했던 그 작은 사건으로 생각이 이어졌다.

사립학교의 분위기가 크리켓 대표팀(일레븐), 특히 크리켓 팀 주장의 성격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A. J. 래플

스가 재학하던 시절, 우리 학교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는 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가 보여준 영향력 또한 아주 선한 방향이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그가 밤마다 화려한 체크무늬 옷을 입고 가짜 수염까지 붙인 채 마을을 활보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저 떠도는 소문이라며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다. 기숙사의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마다, 나는 그가 빠져나간 뒤 몰래 로프를 끌어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면 다시 로프를 내리기 위해 몇 시간씩 잠을 설치며 깨어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지나치게 대담하게 행동했다. 명성이 절정에 달했던 그 시절, 자칫하면 수치스러운 퇴학을 당할 뻔한 위기였다. 다행히 그의 엄청난 대담함과 비범한 담력,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나의 기지 덕분에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다.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람의 자비에 매달릴 때, 그 사건을 완전히 잊은 척할 수는 없었다. 래플스가 다시 내 의자 곁에 멈춰 서서 내려다보았을 때, 나는 생각했다. 그가 보여주는 관용이 과연 나를 불쌍히 여겨서인지, 아니면 래플스 본인 역시 그날 밤의 일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말이다.

“우리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던 그날 밤 말이야,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가 입을 뗐다. “그런데 왜 그렇게 깜짝 놀라?”

"나도 마침 그 생각을 하던 참이었네."

그는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때 너는 참 괜찮은 녀석이었어, 버니. 입도 무겁고 겁도 없었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떠벌리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지 궁금한걸?"

"모르겠네." 그의 말투에 조금 당황한 내가 대답했다. "내 앞가림조차 엉망으로 해놓은 터라, 남들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조차 나를 믿지 못하는 형편이라네. 하지만 살면서 친구를 배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 점 하나만큼은 말해두고 싶군.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아마 오늘 밤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정확해." 래플스가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치 자신만이 아는 어떤 생각에 맞장구라도 치는 듯한 모습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네 모습이 바로 그거야.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실일 거라고 장담하지. 버니,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저 발전할 뿐이지. 네가 밧줄을 내려주면 내가 손을 맞잡아가며 올라가던 시절 이후로, 너나 나나 정말로 변한 건 없다고 봐. 넌 친구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녀석이었지. 안 그런가?"

"이 세상에 못 할 일은 없지!" 나는 기쁜 나머지 소리 높여 외쳤다.

"범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건가?" 래플스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나는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투가 변했기에, 나를 놀리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느 때처럼 진지해 보였다. 나 역시 딱히 말을 아낄 기분이 아니었다.

"아니, 그런 일이라 해도 마다하지 않아." 내가 단언했다. "어떤 범죄든 말만 해 봐. 내가 해낼 테니까."

그는 잠시 나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다음 순간에는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특유의 냉소적인 웃음을 톱 내뺀고는 그 화제를 슬쩍 넘겨버렸다.

“자네는 참 괜찮은 친구야, 버니! 정말이지 종잡을 수 없는 녀석이라니까. 어떤 때는 자살할 것처럼 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범죄든 척척 해내니 말이야! 자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자네를 붙잡아 줄 제동 장치야, 친구. 평판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건실한 법 시민을 찾아온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 어쨌든 오늘 밤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손에 넣어야 해.”

“오늘 밤인가, 래플스?”

"빠를수록 좋아. 내일 아침 열 시가 지나면 매 시간마다 위험이 커질 거야. 만약 수표 중 하나라도 자네 은행으로 돌아가 버리면, 자네와 그 수표 모두 신용을 잃게 될 테니까. 아니, 오늘 밤 안에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내일 아침 일찍 계좌부터 다시 살려 놓아야 해. 그리고 내 생각엔, 그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을지 대략 알 것 같군."

"새벽 두 시라고?"

"네."

“하지만 어떻게, 대체 어디서…… 이런 시간에 말이야?”

"여기 본드 스트리트에 있는 내 친구한테서 마련할 거야."

"아주 가까운 사이인가 보군!"

"친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 친구 집은 내 집처럼 드나들고, 열쇠까지 나 혼자 전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야심한 밤중에 그를 깨우겠다고?"

"그가 침대에 누워 있다면 말이지."

"꼭 내가 같이 가야만 해?"

"물론이지."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래플스, 난 이 계획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꼭 해둬야겠어.”

"다른 방법이 더 낫겠어?" 내 동료가 비웃듯 물었다. 그러더니 곧바로 미안하다는 듯 말을 덧붙였다. "아니, 미안해! 방금 건 너무 심했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해. 정말 끔찍한 시련이지. 하지만 자네가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자고. 출발하기 전에 술 한 잔만 마셔. 딱 한 잔만 말이야. 여기 위스키가 있고, 여기 탄산수 병도 있으니, 자네가 한 잔 따르는 동안 나는 코트를 챙겨 입을게."

그래, 내 방식대로 꽤 자유롭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의 계획이 아무리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다 한들, 내게는 여전히 아주 불쾌했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술잔이 비기 전까지만 해도 그 계획이 주는 공포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사이 래플스가 내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블레이저 위에 코트를 덧입고, 곱슬머리 위에는 부드러운 펠트 모자를 아무렇게나 눌러쓰고 있었다. 내가 디캔터를 건네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돌아오면 말이야,” 그가 말했다. “일이 먼저고, 노는 건 그다음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 내가 잔을 비우는 사이, 그는 셰익스피어 달력에서 한 장을 뜯어내며 덧붙였다. “3월 15일. ‘3월의 이데스, 3월의 이데스를 기억하라.’ 어때, 버니? 내 친구,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화로에 석탄 몇 조각을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마치 아주 꼼꼼한 가장처럼 가스등을 줄였다. 벽난로 선반 위의 시계가 두 시를 알리는 종을 울릴 때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섰다.

II

피카딜리는 희뿌연 안개가 도랑처럼 깔린 채, 흐릿한 가로등 불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길가에는 끈적한 진흙이 얇게 덮여 있었다. 텅 빈 보도 위에는 우리 말고 지나가는 행인이 아무도 없었다. 순찰 중이던 순경이 우리를 아주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내 동행을 알아보고는 이내 헬멧에 손을 갖다 대며 경례했다.

"보라고, 난 경찰들도 다 아는 몸이라니까." 우리가 길을 재촉하는 사이 래플스가 웃으며 말했다. "불쌍한 친구들, 이런 밤에는 눈을 부릅 뜨고 경계해야 할 테니 말이야! 버니, 안개가 우리에게겐 지루한 일일지 몰라도 범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지. 특히나 범죄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른 이 시기에는 더더욱 말이야. 어쨌든 도착했군. 그런데 저 불쌍한 친구가 결국 침대에 누워 잠들었을 줄이야, 정말이지 기가 막히는군!"

우리는 본드 스트리트로 접어들어, 오른쪽 길가 몇 야드 앞쯤에서 걸음을 멈췄다. 래플스는 길 건너편의 창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안개 때문에 형체조차 희미한 그 창문들은 내부에서 새어 나오는 빛조차 없어 잘 보이지 않았다. 상점 문에 난 구멍으로 슬쩍 살펴보니, 그 창문들은 보석상 건물 위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상점 안에는 밝은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상점 옆에 붙은 개인용 출입문이 있는 건물 상층부 전체는, 마치 밤하늘처럼 아무런 빛도 없이 검고 막막하기만 했다.

"오늘은 이만 그만두는 게 좋겠어." 내가 권했다. "내일 아침이면 충분할 거야!"

"전혀 아니야." 래플스가 말했다. "그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불시에 덮치자고. 어서 가자."

그는 내 오른팔을 낚아채더니 길 건너편으로 나를 재촉했다. 그러고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순식간에 문을 닫았다.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신속하게 말이다. 우리는 어둠 속에 함께 섰다. 밖에서는

일정한 간격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길을 건너올 때 안개 너머로 들리던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내 동행의 손가락이 내 팔을 더욱 짊 움켜쥐었다.

"그놈일지도 몰라." 그가 속삭였다. "지독한 밤의 요물 같은 놈이지. 조용히 해, 버니! 우리가 그놈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주자고. 아!"

규칙적인 발소리가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래플스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나를 짊 움켜쥐었던 그의 기묘한 손아귀에도 서서히 힘이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군." 그가 여전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놈이 어디에 있든 아주 제대로 골탕을 먹여주자고! 우선 신발부터 벗고 나를 따라와."

내가 왜 그랬는지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은 A. J. 래플스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래플스의 능력 중 절반은 명령하는 지휘관의 면모를 앞장서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 속에 감추는, 상대를 누그러뜨리는 재주에 있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을 따르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의구심이 들지언정, 일단 몸은 그를 뒤따르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그가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따라 벗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계단을 올라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한밤중에 돈을 빌리러 낮선 이를 찾아가는 방식치고는 참으로 기이한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래플스와 그 남자의 사이가 워낙 각

별해 보였기에, 나는 그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지내는 사이임이 분명하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계단을 더듬으며 올라갔다. 그 덕분에 꼭대기에 다다르기 전, 나는 메모를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었다. 계단에는 카펫이 깔려 있지 않았다. 오른손을 뻗어 벽을 짚어보았으나 축축한 벽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왼손가락은 난간에 내려앉은 먼지를 쓸어내리며 나아갔다.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부터 기분 나쁜 전율이 나를 엄습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그 느낌은 더욱 짙어졌다. 대체 우리는 어떤 은둔자를 그 소굴에서 놀래키려는 것인가.

우리는 계단참에 도착했다. 난간을 따라 왼쪽으로 꺾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꺾었다. 계단 네 개를 더 오르자 더 넓고 긴 계단참이 나타났다.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냥불이 확 타올랐다. 성냥을 끄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 불꽃이 너무 눈부셨다. 눈이 빛에 익숙해졌을 때, 래플스가 한 손으로는 성냥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불빛을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주변은 널빤지가 드러난 바닥과 벽지가 벗겨진 벽, 그리고 텅 빈 방들의 열린 문들뿐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를 데려온 거야?" 내가 외쳤다. "집에 아무도 없잖아!"

“쫌! 기다려!”

그가 속삭이며 비어 있는 방 중 하나로 앞장서 들어갔다. 문턱을 넘는 순간 성냥불이 꺼졌지만,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곧바로 새

성냥을 그었다. 그는 내게 등을 돌린 채 서서, 내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더듬거리며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그가 두 번째 성냥을 던져 버렸을 때, 그 자리에는 성냥불 대신 다른 빛이 감돌았고 은은한 기름 냄새가 풍겼다. 내가 그의 어깨 너머를 살피려 한 걸음 다가선 찰나, 그는 몸을 돌려 작은 랜턴을 내 얼굴에 비추었다.

"이게 대체 뭐야?"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대체 무슨 엉터리 수작을 부리려는 거지?"

"다 끝난 일이야." 그가 특유의 나직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나한테 말인가?"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네, 버니."

"그럼, 집 안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본드 스트리트에 있는 그 친구 말이야, 우리에게 그 돈을 넘겨줄 수 있다는 건 그냥 떠도는 헛소문에 불과했다는 거지?"

"전적으로 그렇진 않아. 댄비가 내 친구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댄비인가?"

"바로 아래층 보석상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말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나는 나뭇잎처럼 파르르 떨며 속삭였다.

"그럼, 그 보석상에게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야?"

"글쎄, 꼭 그렇다곤 할 수 없지."

"그래서, 어찌자는 거지?"

"그의 가게에서 나온, 그에 상응하는 물건이지."

더는 물을 필요도 없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둔한지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는 이미 수십 번이나 힌트를 주었건만, 나는 단 하나도 알아채지 못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채 나를 비웃으며 서 있었다.

"도둑이라니!" 나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당신이...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내 머리를 써서 먹고산다고 말했잖나."

"도대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은 거야? 왜 나를 믿지 못한 건데? 왜 꼭 거짓말을 해야만 했냐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몰아붙였다.

“말해주고 싶었어.” 그가 말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말하려던 참이었지. 내가 범죄에 대해 슬쩍 떠보듯 물었던 거 기억나나? 자네는 정작 본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잊었겠지만 말이야. 그때는 자네가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그저 시험 삼아 물어본 거였지. 하지만 이제 보니 자네는 정말로 그럴 생각이 없었군. 자네를 탓하진 않겠네. 내 잘못이지. 그러니 이 일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게, 친구. 나머지는 나한테 맡기고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나를 배신해서 내 정체를 밝히는 일만큼은 절대 안 되네!”

아, 그 영악함이라니! 정말이지 악마 같은 영악함이었다! 만약 그가 협박이나 강요, 혹은 비아냥거림을 썼더라면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나를 그 곤란한 상황 속에 내버려 둔 채, 그냥 떠나라고 자유를 주었다. 그는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비밀을 지키라는 압박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믿어준 것이다. 그는 나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꿰뚫고 있었고, 거장의 숨씨로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게.” 내가 말했다. “이건 내가 자네 머릿속에 집어넣은 생각인가, 아니면 자네가 원래부터 하려던 생각이었나?”

“절대 그럴 리 없네.” 래플스가 말했다. “며칠 동안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오늘 밤 승리하고 나니 그냥 버려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 사실,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결정됐군. 내가 자네 파트너가 되어 주지.”

"진심이야?"

"그래, 오늘 밤만이야."

“이런, 착한 버니 같으니라고.”

그는 잠시 랜턴을 내 얼굴 쪽으로 비추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이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치 평생을 함께 범죄를 저질러 온 동료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 가게는 잘 알아." 그가 속삭였다. "거기에 내가 맡겨둔 물건이 몇 개 있거든. 이 위층 구조도 훤히 알아. 한 달 전부터 임대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구경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열쇠를 빌려 써본 적이 있거든. 그때 열쇠 모양을 본떠서 복제품을 하나 만들어 뒀지. 내가 모르는 건 딱 하나, 이 두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거야. 지금은 연결 통로가 전혀 없거든. 여기서 통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하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잠시만 기다려 봐.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는 바닥에 랜턴을 내려놓고는 뒷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러고는 거의 소리도 내지 않고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창문을 다시 조심스럽게 닫은 뒤,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어.” 그가 말했다. “뒷창문 위에 또 다른 뒷창문이 있는 구조였지.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밖에서 불을 밝힐 수도 없고 말이야. 일단 나를 따라 지하

실로 내려가자고. 그리고 명심해. 건물 안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소리를 죽이는 데는 지나침이 없어야 해. 자, 저기—저 소리 좀 들어봐!”

바깥쪽 돌바닥 위로 들려오던 그 규칙적인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래플스는 랜턴의 불빛을 낮추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숨을 죽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경찰이거나," 그가 중얼거렸다. "아니면 저 보석상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경비원이겠지. 우리가 감시해야 할 대상은 그 경비원이야. 그런 일을 잡아내라고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우리가 온 신경을 곤두세웠음에도 계단에서는 자꾸만 빠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복도에 도착한 우리는 신발을 손에 들었다. 이어 좁은 돌계단을 내려갔고, 계단 끝에 다다르자 래플스가 불을 비추었다. 그는 다시 신발을 신으며, 위층에서 났던 소리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나에게도 신발을 신으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지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와 있었다. 사방이 문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었다. 문 세 개는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텅 빈 지하실이 보였다. 하지만 네 번째 문은 열쇠가 돌아가 있고 빗장까지 걸려 있었다. 곧 그 문이 열리며 우리는 안개로 가득 찬 깊고 네모난 구덩이 같은 길로 나섰다.

공터 건너편에는 그와 마주 보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래플스가 랜턴을 문 가까이 가져다 대며 자신의 몸으로 빛을 가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무언가 짧고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다음 순간, 문이 활짝 열렸다. 래플스는 문간에 서서 지렛대를 흔들며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첫 번째 문이야.” 그가 속삭였다. “앞으로 문이 몇 개나 더 있을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만, 적어도 두 개는 더 있다는 걸 알아. 게다가 문을 부술 때 소란을 피울 필요도 없을 거야. 여기 아래층은 들킬 위험이 적으니까.”

우리는 방금 내려온 것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좁은 돌계단 끝에 다다랐다. 이곳은 저택과 사무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마당이자 우물 같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계단 끝에는 탁 트인 통로가 없었다. 대신, 유난히도 묵직해 보이는 마호가니 문 하나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내 생각이 맞았군." 래플스가 중얼거리며 내게 랜턴을 건넸다. 그는 잠시 동안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더니, 마스터키 한 뭉치를 주머니에 넣었다. "저걸 뚫으려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리겠어!"

"직접 따지 못하겠나?"

“아니, 이 자물쇠들은 내가 잘 알아. 억지로 열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잘라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릴 거야.”

내 시계로 잰 시간은 47분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래플스가 보낸 시간이었다. 내 평생 그렇게 느긋하고 여유롭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나는 그저 한 손에는 암등을, 다른 한 손에는 작은 등유병을 든 채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래플스는 예쁜 자수가 놓인 케이스 하나를 꺼냈다. 분명 면도날을 넣어두는 용도였겠지만, 그 안에는 등유를 포함해 그의 비밀스러운 직업에 필요한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케이스에서 지름 1인치 정도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드릴 비트를 골라내더니, 작지만 아주 튼튼한 강철제 드릴 핸들에 끼웠다.

그러고는 겉옷과 블레이저를 벗어 계단 맨 윗단에 가지런히 펴 놓았다.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뒤, 열쇠 구멍 근처를 향해 드릴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드릴 비트에 기름을 칠해 소음을 최소화했다. 그는 새로운 구멍을 뚫기 전에는 늘 그랬고, 때로는 구멍을 뚫는 도중에도 습관처럼 기름을 칠하곤 했다. 자물쇠 주변을 따라 구멍을 뚫는 데만 서른두 번의 반복 작업이 필요했다.

래플스가 첫 번째 원형 구멍 속으로 검지를 밀어 넣는 것을 보았다. 이어 구멍이 점점 길쭉한 타원형으로 넓어지더니, 그는 엄지손가락까지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대체 뭐니까?"

"반대편에는 철문이 하나 있군!"

"도대체 저걸 어떻게 통과한단 말인가?" 나는 망연자실하여 물었다.

"자물쇠를 따게. 그런데 자물쇠가 두 개일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위아래로 달려 있을 텐데,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니까 구멍을 두 개나 새로 뚫어야 할 거야. 지금 상태로는 문이 겨우 2인치도 안 열릴 테니까."

자백하건대, 나는 자물쇠를 따는 일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미 자물쇠 하나에 막혀 헤매고 있었으니 말이다. 만약 내가 잠시라도 생각할 겨를이 있었다면, 내가 느낀 실망감과 초조함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깨달았을 것이다. 사실 나는 이 불온한 계획에 나도 모르게 열을 올리고 있었다. 당시의 나로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 모든 과정이 주는 낭만과 위험함은 나를 완전히 매료시켜 넋을 잃게 만들었다. 도덕심과 공포심은 동시에 마비되어 버렸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고 약병을 든 채, 평소 정직한 취미 생활에는 단 한 번도 쏟아본 적 없는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A. J. 래플스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형클어진 검은 머리 사이로, 그가 카운티 경기에서 연달아 오버를 던질 때 보여주던 그 특유의 경계심 가득하면서도 차분하고 단호한 미소를 띤 채 말이다.

마침내 구멍들이 일직선으로 이어졌다. 자물쇠는 통째로 비틀려 뿔뿔히 나갔다. 그러자 그 틈 사이로, 그리고 저 너머 철문의 창살 사이로, 어깨까지 닿을 듯한 근사하고 탄탄한 팔 하나가 쑥 밀려 들어왔다.

"자," 래플스가 속삭였다. "자물쇠가 하나뿐이라면 분명 가운데에 있을 거야. 찾았다! 바로 이거야! 내가 이것만 따면 드디어 끝이야."

그는 팔을 빼낸 뒤 열쇠 꾸러미에서 마스터키 하나를 골라냈다. 그리고는 다시 어깨 너머로 팔을 뻗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의 순간이었다. 내 몸속에서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고, 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짹짹거리는 소리마저 선명했다. 이따금 마스터키가 부딪히며 쳇그랑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마침내, 단 한 번의 분명한 클릭 소리가 들려왔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마호가니 문과 철제 문이 우리 뒤에서 입을 벌리듯 열렸다. 래플스는 옆에 놓인 랜턴의 일정한 불빛을 받으며, 사무실 책상 위에 걸터앉아 얼굴을 닦고 있었다.

우리는 가게 뒤편의 텅 비고 넓은 로비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은 철제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래플스는 전혀 낙담한 기색이 아니었다. 그는 로비에 있는 옷걸이에 코트와 모자를 걸어두고는, 랜턴을 비추며 그 철제 커튼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살피더니 말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뚫고 지나갈 수 있어.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문이 문제야. 그놈이 우리를 좀 괴롭힐지도 모르겠군."

"문이 또 있잖아!" 나는 신음하듯 내뱉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생각이야?"

"관절형 지렛대를 끼워 넣고 들어 올려. 이 철제 커튼의 약점은 아래 쪽에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 바로 그 지점에서 네 역할이 필요해, 버니. 이 부

분만큼은 너 없이는 안 돼. 거리가 조용해지면 내가 위층에서 신호를 두드려 줘야겠어. 내가 같이 가서 불을 비춰줄게.”

이 외로운 밤샘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싫었을지는 여러분도 짐작하시리라. 하지만 이 막중한 책임감이 주는 묘한 자극이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게임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새로이 몰려드는 흥분 탓에, 이미 죽어버린 신경처럼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양심이나 안전에 대한 걱정 따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무심하게 넘길 수 있었다.

나는 가게 위층에 있는 앞방에 아무런 불평 없이 자리를 잡았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시설물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그대로 남겨진 물건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내려져 있는 베네치안 블라인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블라인드 틈새로 거리 쪽을 몰래 살피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다. 누군가 다가오면 발로 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상황이 다시 조용해지면 한 번 두드리면 그만이었다.

처음에 들린 금속성 굉음을 제외하면,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는 나 같은 사람조차 듣기 힘들 정도로 믿기지 않을 만큼 미미했다. 게다가 내가 발가락으로 바닥을 두 번 두드릴 때마다 소음은 완전히 멎었다. 창가에서 한 시간 남짓 머무는 동안, 경찰관이 내 눈앞을 대여섯 번 지나갔고, 보석상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자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 지나갔다.

한 번은 정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순간도 있었다. 딱 한 번이었다. 경비원이 걸음을 멈추더니 불이 켜진 가게 안을 들여다보려

고 구멍을 통해 살피던 때였다. 나는 그의 휘파람 소리를 기다렸다. 교수형이든 감옥이든, 결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내 신호는 철저히 지켜졌고, 남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다시 길을 떠났다.

마침내 나에게도 신호가 왔다. 나는 성냥을 켜며 왔던 길을 되짚어 내려갔다. 넓은 계단을 지나 좁은 계단까지 내려간 뒤, 안뜰을 가로질러 로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래플스가 손을 내민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 이 친구야!” 그가 말했다. “위기의 순간에도 역시 믿음직한 녀석이야. 약속한 보상은 꼭 챙겨주지. 한 푼어치라도 챙겼다면 천 파운드어치는 챙긴 셈이지. 전부 내 주머니 안에 있어. 그리고 이 보관함에서 이것들도 좀 찾아냈지. 아주 괜찮은 포트 와인과 시가야. 불쌍한 덴비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주려고 챙겨둔 모양인데, 일단 와인부터 한 모금 마셔. 시가는 곧 불을 붙여줄 테니까. 아, 화장실도 찾았어. 출발하기 전에 몸 좀 씻고 매무새를 다듬어야겠어. 내 물결이 네 장화만큼이나 새까맣게 변했거든.”

철제 셔터는 내려가 있었지만, 그는 내가 유리문을 통해 건너편 상점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까지 셔터를 굳이 들어 올렸다. 그래야만 그의 숨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다. 상점 안에는 두 개의 전등이 밤새 켜져 있었고, 그 차가운 백색 광선 아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정돈된 통로를 따라 시선을 옮겨보니 왼쪽에는 비어 있는 유리 진열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손대지 않은 은제품

들이 담긴 유리 장식장이 있었다. 그리고 내 정면에는 거리 위 무대 위의 달처럼 빛나는, 구멍 난 유리문의 검고 흐릿한 눈동자가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래플스는 진열대를 비우지 않았다. 진열대 안의 물건들은 Chubb 금고에 그대로 들어 있었는데, 그는 금고를 보자마자 손을 떼기로 결정한 모양이었다. 은제품 역시 내 담배 케이스를 고르는 용도 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쇼윈도에만 집중했다. 쇼윈도는 세 칸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칸은 밤마다 별도의 잠금장치가 달린 탈착식 판으로 봉해지는 구조였다. 래플스는 예정보다 몇 시간 일찍 그 판들을 떼어냈고, 전등 빛은 마치 빈 시체의 갈비뼈처럼 앙상하게 드러난 주름진 셔터를 비추고 있었다. 문에 달린 작은 창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구역에서만 값나가는 물건들이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그 외의 다른 곳은 모두 밤새 그대로였다.

철제 셔터 뒤로 엉망이 된 문들, 누군가 손을 댄 와인 한 병과 시가 상자, 화장실에 놓인 검은 수건, 여기저기 흩어진 타다 남은 성냥, 그리고 먼지 쌓인 난간에 남은 우리의 지문 같은 것들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방문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나?"

동이 터 오는 거리를 거닐며 래플스가 물었다. 마치 무도회에서 막 돌아오는 신사들처럼 여유로운 걸음걸이었다.

"아니, 버니. 한 달 전쯤 그 집 위층이 비어 있는 걸 보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않았어. 그 뒤로는 지형을 익히려고 가게에서 이것저것 좀 샀지. 그러고 보니 그 물건들 값을 아직 안 치렀군. 세상에, 내일은 꼭 계산해야겠어. 이보다 더 완벽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나? 한 번 방문했을 때는 그곳의 가능성을 보았지만, 두 번째 갔을 때는 친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밤,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네가 나타난 거야! 어쨌든 이제 올버니에 다 왔으니 불씨가 좀 남아 있으면 좋겠군. 버니, 자네 기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키츠의 부엉이처럼 퐁퐁 얼어붙을 지경이라네."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오는 길에 키츠의 시를 떠올릴 수 있다니! 평범한 사람처럼 따스한 벽난로가 있는 집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니! 내안의 독이 무너지듯 감정이 터져 나왔다. 우리가 겪은 모험의 적나라한 진실이 얼음물처럼 차갑게 나를 덮쳤다. 래플스는 도둑이었다. 나는 그가 저지른 절도를 도왔으니, 나 역시 도둑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의 곁에 서서 벽난로의 온기를 나누고, 그가 주머니를 비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마치 우리가 대단한 일이나 사악한 짓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는 듯이 말이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속이 메스꺼웠고 머릿속은 어지럽게 휘돌아쳤다. 나는 이 악당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그를 얼마나 우러러보았는가! 이제 그 애정과 경외심은 혐오와 역겨움으로 바뀌어야만 했다. 나는 그 감정의 변화를 기다렸다. 마음속에서 그 변화가 일렁이기를 간

절히 바랐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 보았으나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가 주머니를 비우는 모습이 보였다. 탁자 위에는 그가 털어낸 보물들이 눈부시게 흩어져 있었다. 수십 개의 반지와 수십 알의 다이아몬드, 팔찌와 펜던트, 에그레트, 목걸이, 진주, 루비, 자수정, 사파이어까지. 그중에서도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빠지지 않았다. 모든 물건에 박힌 다이아몬드들이 빛의 총칼처럼 번뜩이며 내 눈을 멀게 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아니,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보석이 아니었다. 그의 안주머니에서 나온 나의 권총이었다. 그 순간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내가 무슨 말이라도 내뱉었는지, 나도 모르게 손을 뻗치고 말았다.

지금도 래플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맑은 두 눈 위로 눈썹을 높이 치켜올린 채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권총을 돌려주기 전, 특유의 차분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탄환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었다.

“믿기지 않겠지만, 버니.” 그가 말했다. “전에는 장전된 총을 들고 다닌 적이 없었어. 그래도 총을 차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거든.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아주 난처해지겠지. 실수로라도 발사해 버리면 그건 정말 계획에 없던 일이니까. 물론 범행을 막 마친 살인범이 상황이 건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기 전에 엄청난 전율을 느낄 거라는 생각은 자주 해봤지만 말이야. 그렇게 괴로운 표정 짓지 마, 친

구. 난 그런 전율을 느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느낄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런 일은 전에도 해본 적이 있는 건가요?" 내가 쓴 목소리로 물었다.

"전이라니? 이보게, 버니.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섭섭하군! 이게 마치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보였나? 당연히 전에도 해본 적이 있지."

"자주요?"

“글쎄요, 아니요! 적어도 매력이 반감될 정도로 자주 하지는 않았습
니다. 사실 지독하게 돈이 궁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하지 않았죠. 팀블
비 다이아몬드 사건 소식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가짜 다이아몬드였죠. 작년에 헨리에서 있었던
도머 가문의 하우스보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제가 해낸 일이
었죠. 비록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요. 아직 정말로 한탕 크게 터뜨린 적
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로 이 일을 그만둘 생각
입니다.”

그렇다, 나는 두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모든 일
을 저지른 범인이 바로 그였다니! 믿기지 않았고, 기가 막혔으며, 도저
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 문득 눈길이 테이블 위로 향
하면, 수백 군데에서 반짝이며 빛나는 보석들이 보였다. 그러면 의구
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쩌다 시작하게 된 건가요?" 궁금증이 경이로움을 넘어섰다. 그의 행적에 대한 호기심은 어느덧 그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매혹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아, 그건 긴 이야기예요.” 래플스가 말했다. “식민지에 있을 때 일 이죠. 거기서 크리켓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긴 이야기지만, 저도 오늘 밤 당신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죠. 처음부터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번 피 맛을 보고 나니, 돌이킬 수 없게 되더군요. 흠칠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흥분과 낭만, 위험과 넉넉한 생활이 한꺼번에 굴러 들어오는데, 왜 따분하고 맞지도 않는 곳에 정착해 살아야 하죠? 물론 아주 잘못된 짓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도덕론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애초에 부의 분배라는 것 자체가 아주 불공평하잖아요. 게다가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길버트의 시 구절을 자꾸 되뇌는 게 지긋지긋하긴 하지만, 정말 빠져린 진리거든요. 다만 당신도 나만큼 이 삶을 좋아하게 될지 궁금할 뿐입니다!”

"좋냐고?" 내가 외쳤다. "난 싫어! 나한테는 이런 삶은 맞지 않아. 한 번이면 충분해!"

"다음에 또 도와줄 수는 없는 거야?"

"묻지 마, 래플스. 제발 부탁이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지만 당신은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말했잖아! 내 죄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으면서! 물론 그때 당신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 오늘 밤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야 한다는 걸 하늘도 아실 거야! 내가 배은망덕하고, 비이성적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여기서 그만 뒤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버니, 당신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야. 정말로,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오늘 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냈는지 생각해 봐.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차질도 없었잖아! 별로 끔찍한 일도 아니야, 알겠어? 우리가 함께 일하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는 내 양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특유의 능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발을 돌려 몸을 돌린 뒤, 벽난로 선반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러자 다음 순간, 아까보다 훨씬 더 씩씩한 손길이 내 등을 톡 쳤다.

“좋아, 이 사람아! 자네 말이 전적으로 옳네.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다시는 묻지 않으리다. 정 가고 싶다면 가도 좋네. 대신 현금은 정오쯤에 다시 받으러 오게나. 거래가 성사된 건 아니지만, 자네가 곤경에 처한 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네. 특히 오늘 밤 자네가 내 곁을 지켜준 걸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야.”

나는 피가 끓어오르는 채로 다시 뺨 몸을 돌렸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아니야." 나의 지나친 열의를 보며 그는 아주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외쳤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기꺼이 도와줄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미 한 번 발을 들였는데, 다시 발을 들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난 이미 끝장난 인생이야. 되돌아갈 수도 없고, 설령 돌아갈 수 있다 해도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 달려갈게!”

그렇게 해서 래플스와 나는 3월의 이데스(Ides of March)에 범죄의 길로 손을 잡게 되었다.

변장극

당시 런던은 한 인물의 이름으로 떠들썩했다. 그 이름은 이미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통용될 정도였다. 루벤 로젠탈은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수백만 파운드를 벌어들인 뒤, 자신만의 방식대로 그 막대한 부를 누리며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폰니(halfpenny)짜리 저녁 신문들을 즐겨 읽는 이들이라면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신문들은 그가 과거에 얼마나 지독한 가난뱅이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엄청난 돈을 펍펍 쓰는지에 관한 끝없는 일화들을 실어 나르며 즐거워했다. 또한 그 백만장자가 세인트 존스 우드에 차린 기이하고도 호화로운 저택에 관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도 빠짐없이 다루었다.

그곳에서 그는 말 그대로 노예나 다름없는 카피르(Kaffir)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로젠탈은 셔츠 안쪽과 손가락에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주렁주렁 매단 채, 악명 높은 권투 선수와 호위병처럼 함께 외출하곤 했다. 하지만 그 권투 선수가 로젠탈이 꾸려놓은 기묘한 무리 중에서 가장 질 나쁜 인물인 것은 아니었다. 세간의 소문은 이러했다. 그러나 이 소문은 단순한 뜬소문이 아니었다. 적어도 한 번은 경찰이 개입한 사건이 있었고, 뒤이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며 앞서 언급한 신문들에 정당한 흥분과 거대한 헤드라인으로 보도될 만큼 사실로 확인된 상태였다.

루벤 로젠탈에 대해 우리가 아는 정보는 여기까지였다. 그러다 몰락의 길을 걷던 올드 보헤미안 클럽이, 클럽의 정신을 이토록 잘 대변하는 부유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성대한 만찬을 열기로 결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나는 그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클럽 회원 한 명이 래플스를 데려갔다. 래플스는 그날 밤 내게 만찬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들려주었다.

“내 평생 본 구경거리 중에 단연 최고였어.” 그가 말했다. “그 사람 자체는 말이야, 뭐, 기괴한 인물일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정말이지 숨이 막힐 정도였다니까. 우선 외모부터가 압도적이야. 키가 6피트를 훌쩍 넘는 거구에 가슴은 통나무처럼 두껍고, 코는 매부리코에, 머리카락과 수염은 세상에서 제일 붉은 빛을 띠고 있더라고. 술은 소방 호스로 물을 뿜어대듯 마셔대는데, 딱 연설 한 번 할 정도로만 취하더군. 그 연설은 10파운드를 준다 해도 놓치지 않았을 거야. 버니, 자네도 거기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네, 친구.”

나조차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래플스는 좀처럼 흥분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토록 동요하는 모습은 생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혹시 로젠탈이 했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일까? 그가 단지 만찬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밤중에 내 방까지 찾아온 것만 보더라도, 내가 가졌던 의구심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물론 그 의심은 내가 알고 있는 A. J. 래플스의 모습과는 확실히 거리가 멀었지만 말이다.

"그가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기계적으로 물었다. 이번 방문에 숨겨진 더 미묘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궁금해졌다.

"말이라고?" 래플스가 외쳤다. "그자가 무슨 말을 안 했겠나!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떠벌리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사교계가 자기 돈을 보고 받아줬다가 질투와 심술 때문에 내쫓았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말일세. 아주 거침없이 이름까지 거론하며 떠들어댔지. 자기가 이 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물론 올드 보헤미안 회원들에게는 외람된 말이지만 말이야! 그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셔츠 앞섶에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달고는 새끼손가락에 또 다른 다이아몬드를 끼워 보였다니까. 우리 나라의 그 거만한 귀족들 중 누가 그런 쌍을 보여줄 수 있겠나? 사실 그 보석들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네. 묘한 보랏빛 광채가 도는 게, 분명 엄청난 거금일 게 분명했지. 로젠탈 노인은 그 두 보석을 합쳐서 5만 파운드에도 안 팔겠다고 맹세했네. 그러면서 셔츠 앞섶에 2만 5천 파운드어치를 달고, 새끼손가락에 또 2만 5천 파운드어치를 끼고 다니는 놈이 대체 어디 있느냐

고 묻더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만약 있다 해도 그걸 차고 다닐 배짱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자는 달랐네. 그자는 배짱이 있었고, 왜 그랬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려 했지. 그런데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자가 갑자기 커다란 리볼버를 뺨 꺼내 들었대네!"

"설마 식탁에서요?"

"식탁에서 말입니다! 연설 도중에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그가 하려던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예 맞은편 벽에 총알로 자기 이름을 새기겠다고 우기더군요. 자신이 왜 그 많은 다이아몬드를 몸에 두르고 돌아다녀도 겁나지 않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면서요! 그가 돈을 주고 고용한 불량배인 권투 선수 퍼비스가 나서서, 주인인 그를 겨우 말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순간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식탁 밑으로 들어가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웨이터들은 하나같이 달아났습니다."

"정말 기괴한 광경이로군!"

"기괴하긴 해도, 차라리 그가 아주 작정하고 화끈하게 다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자기가 가진 보랏빛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잘 지켜내는지 우리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눈치였거든. 그런데 그거 알아, 버니? 나 역시 그걸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니까."

래플스는 나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능청스럽고 느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그 숨은 의도가 마침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럼, 당신이 직접 그 다이아몬드에 손을 대볼 생각입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끔찍할 정도로 뻥한 사실이라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그래, 난 그 물건들을 꼭 손에 넣고 말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한동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 그 사람과 그의 권투 선수,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번쯤은 도전해 보는 게 도리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권총을 휘두르며 온 세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어. 그저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된 거지. 버니, 난 그 도전을 들을 운명이었고, 적어도 나만큼은 반드시 응해야만 해. 다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글쎄요," 내가 말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제가 당신 곁을 지켜야지요."

내 말투는 다소 미온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지만 말이다. 본드 스트리트에서의 그 소동이 일어난 지 겨우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당분간은 암전히 지내도 충분했다. 그동안 우리는 아주 잘 지내왔다. 래플스의 조언을 받아 글을 몇 자 적어보기도 했고, 그에게 자극을 받아 우리가 저지른 보석 도둑 사건에 관한 기사까지 써보았다. 나는 현재 이런 식의 모험에 꽤 만족하고 있었다. 형편이 좋을 때는 그 형편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굳이 위험을 자초하며 새로운 사건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 한편으로는 한 달 전 했던 약속을 어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래플스가 정작 파고든 것은 나의 이런 노골적인 내키지 않음이 아니었다.

“필요해서냐고, 버니? 굶어 죽기 직전이 되어야만 글을 쓰는 작가가 어디 있겠나? 오로지 입에 풀칠하려고만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있겠어? 우리도 톰이나 딕처럼 생계 때문에 범죄로 내몰려야만 하는 거냐고. 자네, 나를 참 아프게 하는군. 웃지 말게, 분명 웃고 있으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말은 천박한 구호에 불과하지만, 솔직히 말해 내 마음을 끄는 건 사실이라네. 이번 일만큼은 내 동기가 아주 순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어. 이렇게 기이한 보석들을 처분할 기회가 또 언제 오겠나. 만약 오늘 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난 평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걸세.”

그의 눈은 반짝였지만, 동시에 번뜩이기도 했다.

"할 일이 만만치 않겠군요." 내가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런 일에 흥미나 느꼈겠나?” 래플스가 외쳤다. “이보게 친구, 할 수만 있다면 난 성 바오로 대성당이라도 털고 싶다네. 하지만 점원이 눈을 돌리지 않는 사이에 계산대 돈을 가로채는 건, 할머니 바구니에 담긴 사과를 훔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야. 지난달에 했던 그 작은 건도 사실 좀 비열한 일이었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덕분에 어느 정도 명분은 살렸다고 생각하네. 이제는 사람들이 자네를 경계한다고 떠벌리는 곳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재미있을 거야. 예를 들어 영란은행은 최고의 먹잇감이지. 하지만 거길 털려면 우리 중 대여섯 명은 붙어야

하고, 그것도 몇 년은 준비해야 할 걸세. 그전에 우선 루벤 로젠탈 정도면 자네와 나에게 충분히 도전할 만한 상대야. 그가 무장했다는 것도 알고, 빌리 퍼비스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도 알고 있지.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걸세. 인정하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 사람아, 버니! 자네,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은 잡을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멀리 뺀어 나가야 하는 법이라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하늘이 왜 있겠나?"

"아직은 우리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기세가 워낙 거침없었던 데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이 점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점은 나를 믿게." 그가 대답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줄 테니까. 결국 겪게 될 어려움이란 건 대개 걸으로 드러난 것들이 전부일 거야. 그 친구들 둘 다 술을 악마처럼 마셔대니, 상황이 훨씬 단순해지겠지. 하지만 일단 두고 봐야 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자고. 일이 성사될 방법은 아마 수십 가지나 될 테니,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골라야 할 거야. 어떤 식으로 하든 최소 일주일엔 그 집을 지켜봐야 할 거고,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릴 다른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 일단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더 자세히 말해주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 일에 뛰어들 생각이라면 말이야."

"당연히 그렇고말고요." 내가 분개하며 대답했다. "그런데 왜 제가 일주일이나 시간을 내야 합니까? 차라리 같이 그 집을 감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눈은 두 개면 충분해. 네 개라고 더 좋을 건 없지만, 자리를 덜 차지 하니까 말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둘이 짝을 지어 움직이지는 마.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고, 버니. 때가 되면 네가 할 일도 산더미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할게. 너도 분명히 재미를 만끽하게 될 거야. 운만 따른다면, 너 혼자 차지할 보랏빛 다이아몬드도 생길 테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대화는 나를 그리 설레게 하지 못했다. 래플스가 떠난 뒤 밀려온 우울함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내가 받을 들인 이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다. 그저 순전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필요하게 어리석은 짓이었다. 래플스가 즐기던 역설들이나, 겉으로는 가벼운 궤변처럼 들려도 속으로는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던 그 말들도 차분히 되짚어보니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순간만큼은 그의 독특한 개성 덕분에 그 모든 말이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니 그리 끌리지 않았다. 자유와 목숨까지 걸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순수한 장난기 어린 기질은 감탄스러웠으나, 차분히 되돌아보니 그 기질이 나에게까지 전염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단 한 순간이라도 해본 적은 없다. 오히려 나는 래플스가 정해놓은 지체되는 시간들이 초조하기만 했다. 어쩌면 내가 남몰래 품었던 불만 중 적지 않은 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끼워주지 않겠다는 그의 고집스러운 결단에서 비롯된 것인 지도 모른다.

이런 태도가 그 사람의 본성이자 나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아마 런던에서 가장 친밀한 도둑 사이였겠지만, 우리의 친밀함에는 묘하게도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있었다. 래플스는 특유의 매력적인 솔직함을 보여주면서도, 때때로 변덕스럽게 입을 닫아버리곤 했다. 그 태도는 아주 명확해서 사람을 무척 짜증나게 할 정도였다. 그는 타고난 범죄자답게 본능적으로 비밀을 지키는 기질이 있었다. 그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의 문제조차 신비주의로 일관하며 숨기곤 했다. 일례로, 본드 스트리트에서 훔친 보석들을 그가 어떻게, 어디에 처분했는지는 끝내 알 길이 없었다. 그 보석을 판 돈 덕분에 우리 둘은 런던 사교계의 수많은 젊은이처럼 겉보기에 번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그는 그런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 늘 신비로운 태도를 유지했다. 내 생각에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첫 범죄로 이끌었는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그는 나를 믿어도 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일종의 속임수를 써서 나를 끌어들이었다.

더는 원망할 기력조차 없었지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태도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서운함은 매일같이 마음을 갉아먹었다. 특히 로젠탈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보낸 일주일 동안은 그 고통이 극에 달했다. 클럽에서 래플스를 만나도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그의 방을 찾아가면 그는 외출 중이거나 외출한 척하며 나를 피했다.

어느 날 그는 일이 잘 풀리고는 있지만 속도는 더디다고 내게 말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게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더 캐물으려 하면 그는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짜증이 치밀어 올라 나만의 결정을 내렸다. 그가 밤샘 경계 근무의 결과를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겠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감시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나는 그 백만장자의 저택 정문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가 머물고 있는 저 저택은 세인트 존스 우드 지역에서 가장 큰 집일 것이다. 저택은 두 갈래의 넓은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길 모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반경 4마일 이내에 이보다 더 한적한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잔디밭과 관목이 깔린 정원을 품은 그 거대한 저택 역시 아주 고요했다. 집 안의 불빛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백만장자와 그의 친구들은 분명 저녁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고 있는 듯했다.

정원 담장은 고작 몇 피트 높이에 불과했다. 담장 한쪽에는 유리 통로로 이어지는 옆문이 있었고, 나머지 한쪽 면에는 결이 살아있는 광택 칠을 한 5단 창살 대문이 두 개 설치되어 있었다. 반원형 진입로 양 끝에 하나씩 있는 이 대문들은 모두 활짝 열려 있었다.

주변이 워낙 적막했기에 나는 용기를 내어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가 구석구석 살펴보려 했다. 막 발을 떼려던 참이었다. 뒤쪽 보도에서 무언가 빠르게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초라한 행색의

부랑자가 험악한 표정을 지은 채 더러운 주먹을 짹 쥐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바보 같으니!" 그가 외쳤다. "정말이지 구제 불능인 멍청이로군!"

"래플스!"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가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동네 사람들이 다 떠들어 대라고. 아주 목청껏 내 정체를 까발려 버리란 말 이야!"

그는 말을 마치더니 내게 등을 돌렸다. 마치 내가 구걸하는 이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으쓱이며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비틀비틀 길을 내려갔다. 나는 한동안 어안이 병병한 채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서 있었다. 그러다 이내 그를 뒤따라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무릎은 힘없이 꺾였으며, 등은 구부정했다. 고개는 자꾸만 떨구어졌다. 여든 살은 족히 되어 보이는 노인의 걸음걸이었다.

잠시 후, 그는 가로등 두 개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갔을 때, 그는 짧은 파이프에 독한 담배를 채워 넣고 있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그의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버니, 내가 좀 흥분했더라도 이해해 줘. 하지만 자네 행동은 정말 어리석었어. 나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밤에는 문 앞에서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날에는 관목 사이에 숨어 있기

도 하지. 집 앞에 멍하니 서서 구경이나 하던 자네처럼 멍청하게 굴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이건 일종의 연극이야. 그런데 자네는 평상복 차림으로 불쑥 나타나 버렸잖아. 밤낮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니까! 이번 건은 내가 맡아온 일 중 가장 까다로운 놈이야!”

"글쎄요," 내가 말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는 낚아서 끝이 해진 중절모의 챙 아래로 나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네 말이 맞아."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깊이 관여했어. 무언가에 몰두하면 나도 모르게 그제 습관처럼 굳어버리곤 하거든. 하지만 버니, 너와 관련된 일이라면 이제 여기서 끝내자. 난 이제 집으로 갈 거야. 너도 나를 따라오되, 제발 부탁이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줘. 그리고 내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다시는 나에게 말을 걸지 마. 자, 이제 출발하자고."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길을 떠났다.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팔꿈치를 꼳꼳이 세운 채, 해진 코트 자락을 양옆으로 너털너털하게 휘날리며 걷는 모습은 영락없는 초라한 부랑자였다.

나는 그를 따라 핀치리 로드까지 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틀라스 옴니버스 버스에 올라탔고, 나도 2층 버스의 몇 줄 뒤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가 피워대는 지독한 담배 연기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지지 않는 못했다. 고작 담배 한 종류만 피우는 사람이, 자신의 캐릭터를 그토록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다니! 그것은 탐욕스러운 예술가다운 마지막 디테일이었고, 그 모습은 내게 남아 있던 마지막 수치심마저 마법처럼 녹여버렸다. 나는 다시금 그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매번 예상치 못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사람을 홀리는, 그런 동료의 매력 말이다.

피카딜리로 가까워지자 나는 그가 대체 무엇을 할지 궁금해졌다. 설마 저 모습 그대로 올버니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는 올버니로 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옴니버스를 타고 슬론 스트리트로 향했고, 나는 전처럼 그의 뒤에 앉아 따라갔다. 슬론 스트리트에서 우리는 다시 갈아탔고, 곧이어 킹스 로드의 길게 뻗은 대로에 들어섰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의문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래플스가 내렸다. 나도 뒤따랐다. 그는 길을 건너더니 어두한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나도 서둘러 그를 뒤쫓았다. 마침 그가 오른쪽의 더 어두운 돌바닥 골목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의 코트 자락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마치 다시 청년이라도 된 듯 몸을 곧게 세우고 성큼성큼 걸었다. 게다가 묘하게도, 아까보다 훨씬 품위 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나뿐이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지독하게 어두웠다. 골목 끝에서 그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 안쪽은 밖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그러자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알았어, 버니! 이번엔 아무런 속임수도 없어. 여긴 작업실들이라고, 친구. 나도 정식 세입자 중 한 명일 뿐이야."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천장에 채광창이 나 있고 이젤과 화장대, 단상까지 갖춰진 높은 방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실제 작업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들만 제외하면 화가의 방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래플스가 가스등을 켜자마자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옷걸이에 걸린 그의 평상복 옆에서 실크 모자에 비친 가스등 불빛이었다.

"예술품을 찾으러 오셨나?" 래플스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물었다. 그리고는 걸치고 있던 누더기를 하나씩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유감스럽지만 찾으시는 건 없을 거요. 대신 내가 언제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 둔 캔버스 하나는 있지. 사람들에게는 내 이상적인 모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는 중이라고 말해 뒀거든.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은 난로에 불을 지펴 놔. 그리고 슬쩍 들러서 신문 한 부를 두고 가고, 설리번 담배 냄새도 풍겨 놓지. 아, 독한 살담배를 피운 뒤에 피우는 설리번은 정말 최고라니까! 그동안 나는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아주 모범적인 세입자로 지내고 있어. 이 작은 임시 거처는 아주 유용하다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를 정도니까. 지금처럼 밤늦은 시간에는 중절모를 쓴 사람이 들어왔다 해도, 실

크해트를 쓴 사람이 나간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이 시간에 건물 안에는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

"변장하는 취미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군."

그가 얼굴과 손에 묻은 때를 씻어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가 말했다.

"아니야, 버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한 달 전이라도 진작 이곳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딱히 그럴 이유도 없었거든. 게다가 내가 어디 있는지 네가 정말로 모르는 편이 우리 둘 모두에게 유리할 상황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보다시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잠잘 곳은 마련해 뒀어. 물론 킹스 로드에서는 내 이름을 래플스라고 부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 상황이 더 나빠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숨어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이해해 줘."

"그러는 동안 당신은 그곳을 탈의실로 쓰는 건가요?"

"나만의 개인 별장 같은 곳이지." 래플스가 말했다. "변장 말이나? 어떤 경우에는 변장만으로도 승패의 절반은 결정된다네. 게다가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본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은 언제나 든든한 법이지. 장물아비들을 상대할 때도 변장은 필수라네. 나는 항상 쇼어디치 하층민의 말투와 옷차림을 빌려 거래를 하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협박을 당하느라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을 거야. 자, 이 찬장에는 온갖 잡다한 옷가지들이 가득하다네. 청소부 아주머니에게는 모델 작업을 할 때 쓰는 옷들이라고 둘러대 놓았지."

그나저나 자네에게 맞는 옷이 하나라도 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군. 내일 밤에는 자네도 입을 옷이 필요할 테니까.”

“내일 밤이라고!” 내가 외쳤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야?”

“비결은 말이야.” 래플스가 말했다. “올버니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자네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어. 내일 오후에 나를 찾아와 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내 작전 계획을 전부 털어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네를 실전에 투입할 생각이었지. 긴장하기 쉬운 선수들을 먼저 투입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거든. 미리 대기하며 마음을 졸이다 보면 다들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비밀을 지킨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 부디 이해해 주게. 지난번 여행 때 자네가 얼마나 훌륭하게 해냈는지 떠올랐거든. 미리 마음을 약하게 먹을 틈조차 주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일 밤에도 그때처럼 침착하고 영리하게 움직여 주는 것. 하지만 맵소사, 이번 건은 그 때와는 차원이 다르긴 하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네."

“네 말이 맞았어. 내가 그랬지. 하지만 이번 일이 전반적으로 더 힘들 거라는 뜻은 아니야. 들어가는 건 아마 아무 문제 없이 수월할 거야. 문제는 다시 빠져나올 때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집안일수록 그게 제일 골치 아프거든!” 래플스가 마치 정의로운 분노라도 느낀 듯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이야, 버니. 월요일 밤 내내 옆집 정원 관목 숲에 숨어서 담장 너머를 지켜봤단 말이야.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밤새도록 누군가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카피르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불쌍한 사람들은 아예 잠도 안 자는 것 같으니까. 아니, 내 말은 로젠탈 본인과 그 창백한 얼굴의 짐승 같은 퍼비스를 말하는 거야. 그들은 자정이 되어 들어온 순간부터 내가 빠져나온 대낮까지 내내 깨어 있었어. 그때도 그들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을 만큼은 멀쩡한 상태였지만 말이야. 아, 참. 정원에서 그들이 나랑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거의 주먹다짐까지 할 뻔했어. 그때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로젠탈을 엉뚱한 곳으로 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I. D. B.가 뭔지 알지?”

"불법 다이아몬드 구매자?"

“맞아. 아무래도 로젠탈이 바로 그런 자였던 모양이야. 술에 취해서 퍼비스에게 입을 눌렀겠지. 어쨌든 퍼비스가 그 일로 로젠탈을 조롱하며 케이프타운의 방파제에 처넣겠다고 협박하는 걸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 우리 친구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건 그렇고 내일 밤 계획 말인데, 딱히 치밀한 건 없어. 저 친구들이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틈을 타서 슬쩍 들어간 다음, 놈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숨어 있는 게 전부야. 가능하다면 위스키에 손을 좀 써야겠어.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훨씬 수월해지겠지만, 사실

그리 정정당당한 수법은 아니지. 그래도 로젠탈의 리볼버를 잊어서는 안 돼. 그놈이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게 만들 순 없으니까.

하지만 주변에 카피르들이 깔려 있으니, 위스키에 손을 쓰는 쪽이 십중팔구 승산이 있고,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는 건 백에 하나도 안 될 거야. 그 미개한 자들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테니까. 게다가 숙녀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여자들까지 있다고!"

“여성들이라니, 그것도 아주 요란스러운 분들이라면 소란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야. 아, 걱정되는군, 정말 걱정돼! 그 소음 때문에 일을 망칠까 봐 두렵단 말이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몸을 숨길 수만 있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야. 만약 로젠탈이 술에 취해 잠들기라도 한다면, 우리 손에는 보라색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쥐어지겠지. 하지만 그가 술을 깨고 버티고 있다면, 다이아몬드 대신 총알을 맞게 될지도 몰라.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지, 버니. 총성이 울려 퍼질 때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쏘는 일은 없을 테지만, 결국 모든 건 신의 손에 달린 법이니까.”

피카딜리에서 악수를 나누며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내가 바라던 것만큼 늦은 시간은 아니었다. 그날 밤 래플스는 나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크리켓이나, 혹은 그 '다른 게임'들을 하기 전에는 밤을 길게 보내는 것이 자신의 철칙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명심해, 버니. 오늘 밤은 딱 한 잔만 마시는 거야. 목숨을 아낀다면 기껏해야 두 잔까지만이야. 내 목숨도 걸고 하는 말이니까!”

나는 내가 얼마나 비굴할 정도로 순종했는지, 그 때문에 얼마나 길고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마침내 푸르스름한 회색빛 런던의 새벽하늘을 배경으로 맞은편 집들의 지붕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그 기분도 말이다. 나는 과연 이런 새벽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내 고집대로 저질렀던 그 짧은 소동이 못내 후회되어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우리는 루벤 로젠탈의 정원과 맞닿은 그 집 정원에 자리를 잡았다. 옆집에 사는 방탕한 자가 이웃들을 모두 쫓아버린 덕분에, 정작 그 집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무례한 이웃이 스스로를 우리 손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쪽 방향으로 기습당할 염려가 거의 없었다. 우리는 담장 너머로 앞집을 살폈는데, 담장 높이가 딱 넘어다보기 적당했다. 양쪽 정원에 심어진 관목들도 우리를 든든히 가려주었다.

그렇게 진지를 구축한 채 우리는 한 시간 동안 서 있었다. 불이 켜진 저택의 베이 윈도우 두 곳을 지켜보며, 블라인드 너머로 어렴풋한 그림자가 끊임없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했다. 안에서는 코르크 마개가 뿜히는 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거친 목소리들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운이 다한 모양이었다. 보라색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식사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었

다. 나는 저녁 모임이 열린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래플스의 생각은 달랐고, 결국 그의 판단이 맞았다.

진입로에서 바퀴가 굽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차 한 대와 두 마리의 말이 계단 앞에 멈춰 섰다. 곧이어 식당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안에서 들리던 커다란 목소리들은 잠시 잦아들더니 이내 현관 쪽에서 터져 나왔다.

우리의 위치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겠네. 우리는 담을 넘어 집 옆에 서 있었지만, 식당 창문에서는 불과 몇 피트 떨어져 있었지. 우리 오른쪽으로는 건물 모서리가 뒷마당 잔디밭을 대각선으로 가르고 있었고, 왼쪽으로는 또 다른 모서리 덕분에 툭 튀어나온 계단과 대기 중인 마차가 겨우 보였네. 우리는 로젠탈이 나오는 것을 보았지. 무엇보다 먼저 그의 다이아몬드가 번뜩이는 게 먼저 보였어. 그다음에는 권투 선수의 손이 나왔고, 그다음에는 목욕용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른 머리 모양을 한 여인이 나타났네. 뒤이어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면서 일행이 모두 모였지.

래플스는 몸을 책 숙이더니, 몹시 흥분한 기색으로 나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부인들도 같이 가는군." 그가 속삭였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그게 훨씬 더 낫군."

"가데니아!" 백만장자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게 무엇보다도 제일이지."

말발굽 소리와 바퀴 소리가 대문을 통과해 경쾌한 속도로 멀어지자, 래플스가 몸을 곧게 일으키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흥분으로 몸을 떨며 속삭였다.

"이제 다들 정리하고 나갈 거야. 그래, 저기 그림자가 비치는 걸 보니 틀림없어. 응접실 창문이 잔디밭 쪽으로 나 있으니까. 버니, 지금이야. 심리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그 가면은 어디 있지?"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것을 꺼내 놓았다. 래플스는 분명 눈치챘을 텐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반면 내 가면을 고쳐 써주고 자신의 가면을 쓰는 래플스의 손은 아주 차분하고도 단단했다.

"세상에, 이보게!" 그가 즐거운 듯 속삭였다. "자네,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가는 악당처럼 보이는군! 이 가면만 써도 흑시라도 흑인을 마주 치면 단번에 기를 죽여놓겠어. 그래도 면도를 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길 정말 잘했군.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자네가 그쪽 말투만 잊지 않는다면 화이트채플 출신으로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테니까. 만약 말투가 자신 없다면 차라리 노새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게. 대화는 내가 맡을 테니까 말이야. 물론 운이 좋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자, 이제 준비됐나?"

"그렇고말고."

"입막음할 준비는 됐나?"

"응."

"권총은?"

"응."

"그럼 따라오게."

순식간에 우리는 담을 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저택 뒤편 잔디밭에 내려앉았다. 달빛조차 없었다. 마치 우리를 돕기 위해 밤하늘의 별들마저 제 자리를 숨긴 듯했다. 나는 리더의 뒤를 바짝 쫓아 얇은 베란다로 이어진 프랑스식 창문 앞까지 살금살금 기어갔다. 그가 창문을 밀자,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또 운이 좋았군.”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순전히 운이야! 자, 이제 불 좀 붙여볼까.”

그리고 마침내 빛이 비쳤다!

수많은 전등이 찰나의 순간 동안 붉게 달아오르더니, 눈이 멀 지경인 우리의 시야 속으로 무자비한 백색 광선을 쏟아부었다. 간신히 시력을 되찾았을 때, 네 자루의 리볼버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총구들 사이로, 거구의 루벤 로젠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싹거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떨고 있었다.

“안녕, 친구들.” 그가 딸꾹질을 하며 말했다. “드디어 다들 만나는 군. 왼쪽 놈, 발 하나라도 잘못 움직였다간 죽을 줄 알아. 그래, 바로 너 말이야, 이 기름기 번지르르한 놈!” 그는 래플스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난 네놈을 알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일주일 내내 널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다! 아주 영리한 척을 했더군, 안 그래? 하루는 구걸을 하고, 다음 날은 아주 감쪽같이 취한 척하고, 그다음 날에는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꼭 나타나지 않는 킴벌리의 옛 친구인 척하고 말이야. 하지만 이 멍청한 놈아, 너는 매일 낮에 똑같은 경로로 움직였고, 매일 밤에도 그 빌어먹을 건물 주변을 똑같은 경로로 맴돌았어.”

"알겠습니다, 형사님." 래플스가 느릿느릿 말을 늘어뜨렸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딱 걸린 거 인정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내셨는지는 굳이 캐묻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제발 총은 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이지, 맹세코 우린 무기도 없습니다!"

"아, 당신 아주 눈치가 빠르군." 로젠탈이 방아쇠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넌 너보다 한 수 위인 놈을 만난 거다."

"그래, 맞아, 우리도 다 안다고!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을 써야지. 그래, 바로 그거야!"

내 시선은 둥글고 검은 총구들로부터, 우리의 뒷이 되어버린 저주스러운 다이아몬드들로부터, 그리고 배불뚝이 권투 선수의 창백한 돼지 같은 얼굴로부터 간신히 떨어져 나왔다. 이어 로젠탈의 불타는 듯한 뺨과 갈고리코에서도 눈을 돌렸다. 나는 그 너머를 바라보았다. 문가에는 떨리는 실크와 벨벳, 검은 얼굴들, 하얀 눈동자들, 그리고 양털 같

은 머리통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고, 나는 다시 백만장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코만이 유일하게 핏기가 남아 있었다.

"무슨 소리야?" 그가 거친 욕설과 함께 낮게 속삭였다. "당장 붙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맹세코, 벌집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브레이크워터는 얼마인가?" 래플스가 무심한 듯 느릿하게 물었다.

"응?"

로젠탈의 리볼버가 점점 더 큰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그 브레이크워터는 얼마인가? 그 오래된 I.D.B. 말이야."

"대체 그걸 어디서 구했나?" 로젠탈이 물었다. 그는 두꺼운 목을 울리며 웃음을 터뜨리려 했다.

"그렇게 물을 만도 하지." 래플스가 말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선 다들 그 얘기뿐인걸."

"대체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지?"

"글쎄요." 래플스가 말했다. "왼쪽에 계신 신사분께 여쭙보시죠. 아마 그분이 아실지도 모르니까요."

원편에 앉은 신사는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죄책감만큼 명확하게 드러나는 감정도 없었다. 잠시 동안 그의 작은 눈은 기름진 얼굴 위로 툭 튀어나온 건포도처럼 부릅떠졌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그는 직업적 본능에 따라 품속의 권총을 챙겨 넣고는 주먹을 휘두르며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빛에서 벗어나! 빛에서 벗어나란 말이야!" 로젠탈이 광기에 사로잡힌 듯 비명을 질렀다.

이미 늦었다. 덩치 큰 권투 선수가 앞을 가로막자마자, 래플스는 단숨에 창문을 넘어 뛰어넘었다. 반면,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던 나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정신을 잃은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정원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응접실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밖에서는 로젠탈과 퍼비스가 카피르들에게 욕을 퍼붓고 서로 티격태격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저 담벼락 너머라고, 내가 말했잖아!"

"분명히 이거였다니까요. 경찰을 부를 방법은 없는 겁니까?"

"경찰 따위 알 게 뭐야! 그놈의 경찰은 이제 지긋지긋해."

"그럼 어서 돌아가서 그 다른 악당 놈도 확실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오, 네놈 목숨이나 잘 챙겨두라고. 그게 네 신상에 좋을 거다. 알라, 이 검은 돼지 같은 놈, 만약 네놈이 몰래 숨어 다니는 걸 내 눈에 띄기라도 하면……."

협박하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 나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기어서 거실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입에는 리볼버를 물고 있었는데, 총의 강철 고리가 내 이빨에 매달린 채 달랑거렸다.

순간 복도마저 비어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나는 네 발로 기어가는 카피르 한 명을 발견하고는 살금살금 다가갔다. 가엾은 사람이라, 차마 비겁한 일격을 가할 수는 없었다. 대신 나는 권총으로 그를 끔찍하게 위협했다. 겁에 질린 그가 검은 머리칼 사이로 하얀 치아를 딱딱 부딪치며 떠는 것을 뒤로한 채, 나는 계단을 세 칸씩 뛰어 올라갔다. 왜 그렇게 마치 다른 길은 없는 것처럼 단호하게 위층으로 향했는지는 나도 설명할 길이 없다. 다만 정원과 1층에는 사람들이 가득 해 보였고, 자칫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을 뿐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텅 빈 침실이었다. 전신 거울 속에 비친, 끔찍한 악당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악당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가면을 쓰고, 무기를 든 채 누더기를 걸친 내 모습은 그야말로 총알이나 교수형 집행인을 기다리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나는 차라리 그 둘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울 뒤 옷장 속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나는 몸을 떨며 나의 운명과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래플스를 저주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래플스만을 말이다.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옷장 문이 벌컥 열렸다. 그들은 소리도 없이 방 안으로 몰래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치욕스러운 포로가 되어 아래층으로 끌려 내려갔다.

홀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숙녀들은 그 악명 높은 범죄자를 보자마자 일제히 비명을 질러댔다. 사실 내 가면이 찢겨 나가 이제 왼쪽 귀밖에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로젠탈은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질러 비명에 맞대응했다. 그러자 목욕 스펀지 같은 머리를 한 여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현장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바벨탑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나는 경찰이 언제쯤 도착할지 궁금해하며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았다. 퍼비스와 숙녀들은 지체 없이 경찰을 불러 나를 넘겨주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젠탈은 결사반대했다. 그는 눈앞에서 사라지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쏴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경찰에게 진저리가 난 상태였다. 경찰이 나타나 판을 망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그는, 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다. 말을 마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문으로 내동댕이쳤다. 그리고는 내 귀에서 불과 1인치 떨어진 나무 문에 총알을 박아 넣었다.

"이 술주정뱅이 멍청아! 그러다 사람 죽이겠어!" 퍼비스가 다시 한번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내가 알 게 뭐야? 그놈이 무기를 들고 있었잖아, 안 그래? 정당방위로 쏜 거라고. 이번 일로 다른 놈들도 정신을 좀 차리겠지. 비켜줄 거야, 아니면 너도 한 방 맞고 싶어?”

"술 취했군." 퍼비스가 여전히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다. "들어 오자마자 독주를 한 잔 가득 들이켜는 걸 봤네. 아주 바보처럼 취해버렸어. 정신 좀 차리게, 친구. 나중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놈한테 직접 쏘지는 않겠네. 그냥 그 불쌍한 놈 주변에만 뱅뱅 쏘아대겠다고. 자네 말이 맞네, 노인장. 그놈은 다치지 않을 거야. 아주 큰 착각을 하셨구먼. 그냥 주변에만 뱅뱅 쏘는 거지. 자, 봐—이렇게 말이야!”

그의 주근깨 가득한 손이 퍼비스의 어깨 너머로 획 올라왔다. 그의 반지에서는 보랏빛 번개가, 권총에서는 붉은 섬광이 뿜어져 나왔다. 여인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이윽고 울림이 잦아들었다. 내 머리카락 사이로 나무 파편 몇 조각이 박혔다.

다음 순간, 권투 선수가 그의 손에서 무기를 뺏어 들었다. 덕분에 나는 그 악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국 깊은 바다로 가라앉을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우리 사이에는 경찰관도 한 명 끼어 있었다. 그는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는데, 말수는 적지만 일 처리는 아주 신속한 경위였다. 권투 선수가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후원자가 무력한 악의를 담아 경찰과 그 대리인을 욕설로 퍼붓는 사이, 경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참으로 대단한 감시였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온 집안 식구가 잠든 사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

제야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경위는 나를 끌고 나가면서야 마지못해 그를 알은체할 뿐이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 그가 경멸 섞인 말투로 쏘아붙이며 퍼비스가 내민 소버린 금화를 거절했다. “메릴본에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선생.”

"지금 갈까요?"

“뜻대로 하십시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저쪽 신사분이 선생님을 더 필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친구가 큰 말썽을 부릴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아,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따라나섰다.

우리는 한 100야드쯤 침묵 속에서 걸어갔다. 자정쯤 되었을 것이다. 길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속삭였다.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거야?"

“순전히 운이었어.” 래플스가 말했다. “뒷마당 담벼락의 벽돌 하나 하나를 다 떼고 있었던 게 첫 번째 행운이었고, 첼시에 있는 옷가지들 사이에 이 옷들을 섞어 놓은 게 두 번째 행운이었지. 이 헬멧은 옥스퍼드 시절에 모아둔 수집품 중 하나야. 자, 이걸 이 담 너머로 던져 버리고, 진짜 경찰을 마주치기 전에 코트와 벨트도 벗어서 손에 들고 가는

게 좋겠어. 이걸 걸으려는 가면 무도회 때 입으려고 샀던 건데, 거기엔 또 기막힌 사연이 있지. 언젠가 다시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늘 생각했거든. 오늘 밤 가장 큰 문제는 나를 태워다 준 한섬 마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어. 마부에게 10실링을 쥐여주며 스코틀랜드 야드의 친애하는 매켄지 경위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보냈지. 아마 30분 뒤면 형사부 전체가 로젠탈네 집으로 몰려갈 거야. 물론, 우리 귀하신 손님께서 경찰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도 계산에 넣었지. 그것 또한 엄청난 행운이었어. 만약 그분이 그냥 도망갔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면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최대한 시간을 끌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래, 버니.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연극처럼 커져 버렸고, 덕분에 체면도 많이 구겼지만 말이야. 하지만 세상에, 이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정말 천만다행이야!”

신사와 선수들

래플스는 범죄자로서 예외적인 인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크리켓 선수로서는 단연 독보적이었다고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는 위협적인 타자였고, 눈부신 수비력을 갖춘 야수였으며, 아마도 그 시대 최고의 스핀 볼러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는 크리켓이라는 경기 자체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했다. 크리켓 가방을 챙기지 않고는 로즈 경기장에 가는 법이 없었으며, 자신이 직접 뛰지 않는 경기의 결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단순히 지독한 이기주의자였던 것도 아니다. 그는 크리켓에 대한 열정은 이미 다 식어버렸으며, 오직 아주 저열한 속셈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라고 공언하곤 했다.

“크리켓 말이야,” 래플스가 입을 열었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즐거움을 찾기 전까지는 꽤 괜찮은 스포츠지. 하지만 버니, 자네도 알다시피 스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쳐. 자꾸만 저절로 비교하게 되니 이제는 따분할 지경이라니까. 남의 은수저를 훔치고 싶은 판에, 그저 남의 위켓을 잡는 게 무슨 재미겠나? 그래도 가끔 공을 던지다 보면 잔머리 굴리는 감각이 녹슬지 않아서 좋긴 해. 약점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건 정신 수양에도 딱 맞는 연습이니까. 그래, 어쩌면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버니, 내 성향에 딱 맞는 이 영광스러운 보호막만 아니었다면, 난 내일이라도 당장 크리켓을 때려치웠을 거야.”

“어째서죠?” 내가 물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당신을 대중 앞에 너무 자주 노출시키는 것 같은데요.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은 일 말입니다.”

“이보게, 버니. 자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실수를 하는 거야.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의심을 피하려면, 반드시 그와 대조되는 겉모습이 있어야 하네. 아주 대외적인 직업일수록 더 좋지. 원리는 아주 간단해. 고인이 된 피스 씨를 보게나. 그분은 마을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동물을 길들이는 사람으로 명성을 쌓아 의심을 원천 봉쇄했지. 내 확신컨대, 잭 더 리퍼 역시 아주 저명한 공인이었을 걸세. 아마 그가 저지른 만행만큼이나 그의 연설 내용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실렸을 거야. 사회의 눈에 띄는 역할을 맡아두기만 하면, 그 이면에 똑같이 눈에 띄는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다는 의심은 절대 받지 않게 된다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저널리즘을 익히라고, 기사를 쓸 수 있는 데는 다 써보라고 권하

는 거야. 내가 내 크리켓 배트를 땀감으로 쓰지 않는 유일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네.”

그렇지만 일단 경기에 나서면, 그보다 더 날카로운 기량을 뽐내거나 팀의 승리를 위해 간절히 뛰는 선수는 없었다. 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그가 연습을 위해 네트(nets)로 향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주머니 가득 금화 소버린을 채워 넣은 채 말이다. 그는 배일(bails) 대신 그 금화들을 위켓 스템프 위에 올려두었다. 현금 보상을 노리고 악귀처럼 공을 던지던 프로 선수들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스템프를 맞힐 때마다 투수에게 1파운드씩 던져주었고, 그 자리에 다른 금화를 올려두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위켓을 완전히 박살 내는 공 한 번에 3파운드나 챙기기도 했다. 래플스의 연습 비용은 8~9소버린 정도 들었지만, 덕분에 그는 내내 일류 수준의 투구를 상대로 연습할 수 있었고, 다음 날 경기에서는 57점을 기록했다.

그의 모든 경기에 동행하는 것은 내게 큰 즐거움이었다. 그가 공을 던지거나, 치거나, 혹은 수비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고,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을 때는 파빌리온에 앉아 그와 담소를 나누곤 했다. 7월의 두 번째 월요일, 프로 선수들(동전 던지기에서 진 쪽이다)을 상대로 아마추어 팀인 신사 팀이 첫 이닝을 치르고 있을 때,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으로 목격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 있었으나,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다. 래플스가 점수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소 경기에 그리 열성적이지 않던 그치고는 유난히 심술이 난 상태였다. 나에게서는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뿐이었지만, 경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거나 운이 나빴다며 위로하려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례하게 굴기까지 했다. 그는 밀짚 모자를 코끝까지 눌러쓴 채, 누군가 다가올 때마다 입술을 불쾌하게 뒤틀며 입에 담배를 물고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아주 세련된 인상의 한 청년이 다가와 우리 사이를 비집고 앉았을 때 나는 무척 놀랐다. 그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아주 정중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 몰랐고, 래플스 역시 그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서로 안면만 겨우 있는 사이인 듯하면서도 청년이 래플스에게 상당히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이 보여 나는 의아할 따름이었다. 의구심이 정점에 달한 것은, 상대 청년의 아버지가 래플스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래플스는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즉시 흔쾌히 승낙했다.

"그분은 지금 여성 전용 구역에 계시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겠나?"

"기꺼이 그러지." 래플스가 말했다. "버니, 내 자리도 꼭 맡아 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젊은 크로울리군." 뒤쪽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해로 학교 크리켓팀 주전이었지."

"그 사람 기억납니다. 팀에서 최악이었던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아주 열정적인 크리켓 선수였죠.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오로지 팀의 상징인 컬러를 따내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시키긴 했지만요. 아주 기백이 넘치는 부류였죠. 아, 정말 멋졌습니다, 선생님! 아주 근사했던 말입니다!”

경기는 지루하기만 했다. 나는 그저 옛 친구 래플스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러 왔을 뿐이다. 곧 나는 그가 다시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고, 마침내 오른쪽 윙타리 너머에서 나를 향해 손짓하는 그를 발견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나직이 속삭였다. "자네에게 에머스테스 경을 소개해 주고 싶군. 다음 달에 그곳에서 크리켓 주간 행사가 열리네. 마침 크로울리라는 친구가 성인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 둘 다 내려가서 경기에 뛰어야 하네."

“둘 다요!” 내가 맞장구쳤다. “하지만 전 크리켓 선수도 아니라고요!”

“입 다물어.” 래플스가 말했다. “그건 나한테 맡겨 뒀.” 계단 끝에 다르자, 그는 마치 무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엄숙하게 덧붙였다. “난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해 왔어. 자네가 이 판을 망치지 않을 거라고 믿겠네.”

그의 눈에서 번뜩이는 빛을 보았다. 다른 곳에서라면 익숙했을 그 눈빛이었지만, 이토록 건강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불길한 예감과 짐작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숙녀용

차양 아래 모자더미가 꽃밭처럼 펼쳐진 그 사이를 헤치며 나아갔다. 저 멀리 보이는 징가리(Zingari) 클럽의 블레이저를 따라가며 말이다.

에머스테스 경은 짧은 콧수염에 이중턱을 가진, 풍채 좋은 신사였다. 그는 나를 매우 정중하게 맞이해주었으나, 그 건조한 예우 너머에는 나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속내가 고스란히 비쳤다. 그는 나를 그 귀하신 래플스의 어쩔 수 없는 덤 정도로 취급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래플스에게 깊은 분노를 느꼈다.

“내가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하나 했네.” 에머스테스 경이 말했다. “영국의 신사 한 분께 다음 달 우리를 위해 시골식 크리켓 경기를 한 판 뛰러 내려와 달라고 부탁했거든.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도, 자네가 계획 중인 이 작은 낚시 여행만 아니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대답해 주셨다네. 아, 그러니까, 미스터——, 미스터——…….” 에머스테스 경은 한참을 더듬거린 끝에 겨우 내 이름을 기억해 냈다.

물론 나는 그 낚시 여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서둘러 그 여행을 얼마든지 미룰 수 있으며, 마땅히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래플스는 속눈썹 사이로 만족스러운 듯 눈을 빛냈다. 에머스테스 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실력이 아주 뛰어나시겠군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듣기로는 당신도 크리켓 선수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도 학교 다닐 때는 크리켓 선수였지." 래플스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진짜 크리켓 선수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사이 말을 더듬으며 대꾸했다.

"열한 명 중에 말인가?" 에머스테스 경이 물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못 든 것뿐이야." 래플스가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허허, 우리 모두가 젠틀맨 팀에서 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에머스테스 경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내 아들 크로울리도 해로 스쿨의 11인 명단에 겨우 이름을 올렸을 뿐인데, 그 아이도 경기에 나간다니. 급하면 나도 직접 뗄 수 있을 정도니, 자네가 만약 실력이 형편없다고 해도 자네 혼자만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닐 거야. 그러니 자네도 내려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게나. 원한다면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식사 후에 마음껏 개울에서 낚시를 즐겨도 좋네.”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단호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위한 서막으로 그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래플스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뵈히 바라보는 바람에, 나는 기세가 꺾인 채 맥없이 머뭇거리고 말았다.

"그럼 그렇게 결정된 걸로 하지." 에머스테스 경이 약간은 엄숙한 기색을 띠며 말했다. "내 아들이 성인이 되는 주라, 축제 분위기가 될 걸세. 우리는 프리 포레스터스 팀, 도싯셔 젠틀맨 팀과 경기를 치를 거고, 아마 지역 팀도 한두 군데 끼어들겠지. 자세한 건 래플스 씨가 설명

해 줄 테니, 크로울리는 편지로 소식을 전해주게나. 아, 또 위켓이야! 세상에, 전부 아웃이라니! 그럼 두 사람만 믿겠네." 에머스테스 경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승강장 쪽으로 슬그머니 걸어갔다.

래플스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나는 그의 블레이저 소매를 붙잡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거칠게 속삭였다. "난 선발 명단 근처에도 못 가봤어. 크리켓 같은 건 전혀 못 한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자네는 아니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경기에 뭘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와야 하네. 6시 반 이후에 나를 기다려 주게. 그때 왜 와야 하는지 말해주지."

하지만 이유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크리켓 경기장에서 대중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그 상황이 훨씬 덜 혐오스러웠다. 이제 내게는 범죄보다 이런 상황이 더 구역질 나게 느껴질 정도였다. 래플스가 파빌리온 안으로 사라진 사이, 나는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며 경기장을 서성였다.

그 불쾌함은 젊은 크로울리와 그의 아버지가 마주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더욱 커졌다.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여 무언가 말을 건넸는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이 멍해졌다.

단순히 내 기분이 예민해서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저들의 진짜 고민은 저 위대한 래플스를 그의 보잘것없는 친구 없이 어떻게 불러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때 벨이 울렸고, 나는 래플스의 투구를 보기 위해 파빌리온 꼭대기로 올라갔다. 높은 곳에서는 그 어떤 미묘한 기술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만약 투수가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면, 바로 이날의 A. J. 래플스가 그러했다. 실제로 모든 크리켓 팬이 그날을 기억할 것이다. 굳이 크리켓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의 투구는 감탄을 자아냈다. 공이 떨어지는 지점과 회전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능력, 속도가 변해도 흐트러짐 없는 우아하고 여유로운 동작, 그리고 레그 스템프를 파고드는 강력한 공과 머리 위로 떨어지는 헤드볼까지. 한마디로 그의 다재다능한 공격에는 무한한 기교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지적인 즐거움이었으며, 내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그날 오후, 프로 크리켓의 정예 선수들을 상대로 펼친 래플스의 지칠 줄 모르는 혈투 속에서 '두 가지 일 사이의 유사성'을 목격했다. 래플스가 적은 실점으로 많은 위켓을 잡아냈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공을 맞더라도 개의치 않을 만큼 품격 있는 투수였고, 시간은 촉박한 데다 경기장 상태도 좋았다. 내가 감탄하며 기억하는 것은 그의 기지와 교묘함, 인내와 정밀함, 그리고 두뇌와 손기술이 어우러진 조화였다. 그 조화 덕분에 매 오버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되었다. 그 모든 모습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래플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오늘 오후엔 투구를 좀 하고 싶더라고." 나중에 한섬 마차 안에서 그가 내게 말했다.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었다면 대단한 성적을 냈을 거야. 비록 구장이 좋지 않았지만, 저런 녀석들을 상대로 41실점에 3위켓, 떨어진 네 위켓 중 셋을 내가 잡아냈으니, 느린 투수인 걸 감안하면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지. 하지만 기분이 아주 언짢았어! 내가 마치 프로 선수라도 되는 양 내 크리켓 성적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만큼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도 없다니까."

"그럼 대체 왜 가겠다는 거야?"

"그놈들을 응징해야 해. 그리고 버니, 이번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형편이 아주 곤궁해질 테니까 말이야!"

"아!" 내가 말했다. "그게 이유일 줄 알았네."

"당연하지, 정말 그렇다니까! 이번 일주일은 아주 지독하게 바빠질 모양이야. 무도회에 만찬, 호화로운 하우스 파티, 온갖 잔치까지 줄줄이 이어질 테니까. 게다가 집 안 가득 다이아몬드까지 널려 있을 게 분명해.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천지라고! 보통 때라면 손님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 따위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버니, 너도 알다시피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하지만 이번엔 달라. 우린 웨이터나 악단처럼 이 파티에 고용된 셈이니까. 그러니 하늘에 맹세코, 우리 몫은 확실히 챙겨야지! 일단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저녁이나 먹으면서 자세히 얘기하자고."

“꽤나 저속한 절도처럼 보이는군.”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나의 유일한 항의에 래플스는 즉각 동의했다.

“천박한 방식이긴 하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어찌됐나. 우리가 또 지독하게 돈이 궁해졌는데, 더는 물러설 곳도 없네. 게다가 저 사람들은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할뿐더러, 돈도 꽤 있거든. 그렇다고 일이 순탄하게만 풀릴 거라 착각하지는 말게. 물건을 손에 넣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피해야 할 의심을 사지 않는 건 그 무엇보다 어려울 테니까. 어찌면 현장 구조만 파악하고 빈손으로 돌아올지도 모르지. 누가 알겠나? 어쨌든 이번 일은 자네와 나에게 몇 주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거리를 던져줄 걸세.”

하지만 그 몇 주간의 이야기를 더 길게 늘어놓아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모든 '사고'는 전적으로 래플스의 몫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일일이 공유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과묵함은 더 이상 나를 짜증 나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이런 작은 모험을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일종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번과 같은 모험을 겪고 난 뒤, 특히 그 사건의 결말을 본 이후로는 래플스에 대한 나의 신뢰가 매우 확고해졌다. 설령 그가 나를 믿지 못하는 기색을 보이더라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가 나를 불신했던 것은 인간으로서의 판단이라기보다, 범죄자 특유의 본능에 가까웠다고 나는 여전히 믿고 있다.

8월 10일 월요일, 우리는 도싯주의 밀체스터 수도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8월 초부터 우리는 이미 그 근처를 돌아다니며 손에 낚싯대까

지 들고 있었다. 만약 이번 주 낚시가 소득 없이 끝나더라도, 미리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해지고 품격 있는 낚시꾼이라는 평판을 얻어 두려는 속셈이었다. 그래야 나중에 더 치밀하고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래플스에게는 내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비밀로 하려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래플스가 갑자기 크리켓 공을 꺼내더니 한 시간 내내 나에게 공을 던져주며 캐치 연습을 시켰다. 그 후로도 그는 근처 잔디밭에서 나에게 계속 공을 던져주며 투구 연습을 도왔다. 내가 평생 크리켓 선수 근처에도 못 갈 실력이긴 했지만, 적어도 그 주가 끝날 무렵만큼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크리켓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사건은 월요일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밀체스터에서 몇 마일 떨어진 황량한 간이역에서 길을 나섰다. 그러다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는 바람에 길가에 있는 여관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 응접실에서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혈색 좋은 사내 하나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래플스가 문턱에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선 건 분명 저 사내를 보고 놀란 탓이었다. 그 후 래플스는 빗속을 뚫고서라도 다시 역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하지만 그는 내게 쿼퀴한 맥주 냄새 때문에 정신이 아찔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나는 그저 생각에 잠긴 듯 내리뜬 그의 눈빛과 잔뜩 찌푸린 미간을 보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해 볼 뿐이었다.

밀체스터 수도원은 울창한 숲이 우거진 풍요로운 깊숙이 자리 잡은
회색빛 사각형 건물이었다. 세 줄로 늘어선 기묘한 모양의 창문들이 반
짝이고 있었는데,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맞춰 도착한 우리를 맞이하듯
창문마다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우
리는 공사 중인 수많은 개선문을 지나쳤고, 래플스가 자신의 명성에 걸
맞은 투구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푸르른 크리켓 경기장
의 텐트와 깃대들도 지나쳤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가 가장 고조된 곳은 건물 안이었다. 그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하우스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한 방에 모인 인물들의
위엄과 권세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그 어떤 모임보다도 대단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압도당하고 말았다. 우리의 방문 목적과 나의 처
지가 맞물리면서, 평소 내가 자부심을 느끼던 사교적 수완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마침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안내가 나왔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긴장 섞인 안도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는 알지 못
했다. 앞으로 겪어야 할 시련이 얼마나 가혹할지 말이다.

내가 맞이한 숙녀는 내 운명에 닥칠 수도 있었을 법한, 훨씬 더 위협
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사실 나는 이 점에 대해 내 행운을 축복하기까
지 했다. 멜휴시 양은 그저 교구 목사의 딸일 뿐이었고, 그저 인원수를
꼭수로 맞추기 위해 초대를 받은 자리였다. 그녀는 수프가 나오기도 전
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 뒤로 이어진 대화 역시 특유
의 매력적인 솔직함이 돋보였다. 아니, 솔직함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전
달하고 싶어 안달이 난 광기에 가까웠다. 나는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
이며, 이 상황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었다.

참석한 사람들 중 얼굴을 아는 이가 거의 없다고 고백하자,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동행인은 내 왼쪽부터 시작해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돌며 한 명 한 명 누구인지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이 설명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고, 나는 정말 흥미롭게 경청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이야기들은 별로 흥미롭지 않았다. 내 무심한 태도를 돌려놓으려는 듯, 멜휴시 양은 갑자기 자극적인 속삭임으로 내게 비밀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자, 곧이어 더 낮고도 전율 돋는 목소리로 또 다른 질문이 뒤따라왔다.

"도둑이 무서우세요?"

도둑이라니! 마침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그 말을 되물었다.

“드디어 당신이 흥미로워할 만한 걸 찾아냈어요!” 멜휴시 양이 천진난만한 승리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래요, 바로 빈집털이범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좀 낮춰주세요. 이건 아주 중대한 비밀이라서요. 사실, 당신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대체 무슨 이야기가 남았다는 건가요?” 나는 기대감 섞인 조바심을 내비치며 속삭였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게 말이죠, 이 근처에 빈집털이범이 있어요."

"그들이 강도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는 거죠?"

"목격됐대요. 그 구역에서 말이죠.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도둑놈 두 놈이 나타났답니다!"

“둘이라니!”

나는 래플스를 바라보았다. 저녁 내내 나는 그를 보며 몇 번이나 그랬던가. 저 높은 기운과 강철 같은 담력, 재치 넘치는 유머, 그리고 완벽한 여유와 침착함을 부러워하며 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가 가엾게 느껴졌다. 나 자신이 공포와 경악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도,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드는 그를 가여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잘생기고 매력적인, 대답하기 짝이 없는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혹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워냈다.

"그걸 본 사람이 누구죠?"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형사예요. 며칠 전에 런던에서부터 추적당해 이곳까지 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애비 저택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 여기 오는 길에 아버지께 똑같이 여쭙봤어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현재 그 사람들에게 대해 발부된 영장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으로선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아, 그럼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아요, 일부러 이곳까지 내려온 형사가 감시하고 있어요. 게다가 애머스테스 경이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오늘 오후에 워백 교차로에서 그들이 목격됐대요!"

래플스와 내가 비를 쫓딱 맞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우리가 여관에 서 왜 그렇게 허겁지겁 뛰쳐나왔는지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다. 한편으로는, 이제 동석한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더는 당황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정말이지 아주 흥미진진하군요, 멜휴시 양." 내가 말했다. "어쩌다가 이 일에 대해 이토록 자세히 알게 되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아빠 일이야." 비밀스럽게 대답이 돌아왔다. "에머스테스 경이 아빠한테 자문을 구했고, 아빠는 나한테 물어보셨거든. 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내가 대체 왜 너한테 말해버렸는지 모르겠다니까!"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멜휴시 양. 그런데…… 겁나지는 않으십니까?"

멜휴시 양이 킁킁거리며 웃었다.

"전혀 아니야! 그들이 교구 사제관까지 찾아올 리 없지. 거기엔 털어갈 것도 없으니까. 대신 테이블 위를 좀 봐. 저 다이아몬드들을 보라고. 멜로즈 부인의 목걸이만 해도 저 정도야!"

멜로즈 후작 부인은 내가 굳이 가리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녀는 에머스테스 경의 오른편에 앉아 나팔형 보청기를 휘두르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평소처럼 거침없는 모습이 역력했다. 세상에 이토록 방탕하면서도 인자한 귀부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녀의 풍만한 목줄기를 따라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장식된 목걸이가 반짝이며 일렁였다.

"적어도 5천 파운드는 나갈 거라고들 하더라고." 동행이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에 마거릿 부인이 나한테 직접 말해줬어. 아, 네 래플스씨 옆에 앉은 그 마거릿 부인 말이야. 그 할머니는 그 보석을 매일 밤 꼭 차고 다니신다니까. 그걸 손에 넣는다고 생각 좀 해봐, 얼마나 대단한 수확이겠어! 아니, 적어도 우리 교구 사택이 당장 위험에 처할 일은 없겠네."

숙녀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멜휴시 양은 내게 다시 한번 비밀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며 자리를 떠났겠지만, 동시에 그 일로 인해 내 눈에 비친 자신의 존재감이 훨씬 커졌다는 사실에 더 큰 만족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자칫 자만심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듣는 이를 전율케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보편적이고도 근원

적인 갈망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멜휴시 양의 특징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상대를 전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 나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두 시간 동안 내가 느낀 감정을 구태여 설명하지는 않겠다. 래플스와 대화를 나누려 애를 써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식당에 서는 래플스와 크로울리가 같은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내내 머리를 맞대고 속닥거렸다. 응접실로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래플스가 런던 사교계에서 알고 지내던 멜로즈 부인의 귀에 대고 끝도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마지막으로 당구장에 갔을 때는 그들이 한참 동안이나 긴 당구 경기를 즐겼다. 나는 그들 곁에 끼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저녁 식사 이후에 도착한 아주 진지한 성격의 스코틀랜드 신사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고역이었다. 그는 최근에 나온 즉석 사진기의 발전상에 대해서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댔다. 그는 경기에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에머스테스 경을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크리켓 사진 시리즈를 찍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가 아마추어 사진가인지 전문 사진가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다만 나는 그 지루한 남자의 대화에 억지로 집중하며 주의를 돌리려 애썼던 기억이 난다. 마침내 이 긴 시련이 끝났다. 잔이 비워지고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자, 나는 래플스를 따라 그의 방으로 향했다.

"이제 다 끝났어!" 그가 가스등의 불을 높이고 내가 문을 닫는 사이, 나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 시내에서부터 미행을 당했다고. 현장에 형사가 붙었어!"

"대체 당신은 어떻게 안 거지?"

래플스가 나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랄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물론이죠." 내가 덧붙였다. "오늘 오후 여관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형사라고?" 래플스가 물었다. "버니, 자네는 형사를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겠다는 건가?"

"그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 사람이라는 말인가?"

래플스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 한 시간 동안이나 당구장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군!"

"그 스코틀랜드 출신 사진사가 말이야——"

나는 경악하며 멈춰 섰다.

"그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이야." 래플스가 말했다. "사진사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스코틀랜드 야드의 매켄지 경위이기도 해. 지난 4월 그날 밤, 내가 직접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는 한 시간 내내 그가 누구인지도 못 알아봤잖아! 오, 버니, 버니! 넌 정말 범 죄에는 소질이 없구나!"

"하지만," 내가 물었다. "만약 그 사람이 매켄지였다면, 워백에서 자네가 급히 도망치듯 떠난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나?"

"그가 지켜보고 있는 저 남자 말이야."

"하지만 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래플스는 나를 가엸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열려 있는 담배 케이스를 내게 건넸다.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금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버니, 이거 하나 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이제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거든."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자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네, 친구. 하지만 매켄지 경위가 쫓고 있는 게 정말 우리 둘이 아니라면 말이야."

"그렇고말고요. 애초에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타고난 버니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바로 눈앞에서 자기가 쫓는 자가 당구를 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지켜볼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매켄지 그자는 침착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 당구 경기에서 이길 만큼 침착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로 어땠을지 지켜보는 건 흥미롭겠지만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비록 그가 우리를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녁 식사 후에 크로울리가 그 일에 대해 전부 말해줬거든요. 게다가 오늘 오후에는 제가 직접 그 일당 중 한 명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자네는 그 여관에서 내가 겁을 먹고 도망친 게 탐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왜 그때 바로 말 씀드리지 않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목소리 크고 얼굴 벌게진 무식한 놈은 런던에서 손꼽히는 영리한 도둑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그놈과 우리 공통의 장물아비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신 적도 있죠. 당시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동부 런던 놈처럼 행동했습니다만, 그런 무식한 놈에게 정체를 들킬 위험을 굳이 감수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들었네."

"결코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적어도 한 명 더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집 안에 공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로울리 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크로울리와 샴페인,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물론 네게 말해 준 그 아가씨처럼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이지. 하지만 크로울리는 아무리 비밀을 지키는 사이라도 매켄지에 대해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 그저 뒤에서 수사관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만 해줬을 뿐이야. 그게 전부였지. 그를 손님으로 들인 게 분명 그들의 커다란 비밀이야. 다른 손님들

이 불쾌해할까 봐 숨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감시하러 온 하인들에게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될 일이지. 내 판단은 이래, 버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는 점에는 너도 동의하겠지?”

“하지만 우리에게겐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요.” 나는 겁쟁이 같은 안도감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우리는 손을 쓸 수 없는 처지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버니. 물론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나 역시 확신할 수는 없어. 이런 삼각관계 속에는 온갖 가능성이 숨어 있거든. A가 B를 감시하게 만들면, A는 C를 살필 여력이 없어지게 마련이지. 그게 뻔한 이론이긴 해. 하지만 매켄지 경위는 아주 대단한 A잖아. 그자가 집에 있는 동안 내 몸에 장물을 지니고 있는 건 정말 곤란한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A와 B 사이를 파고들어 둘 다 한꺼번에 털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짜릿하겠어! 버니, 그 정도라면 충분히 걸 만한 도박이야. B와 그 부하들 같은 노련한 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즐겨 쓰던 수법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라면, 무엇을 걸어서라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안 그래, 버니? 정말 멋진 승부가 될 거야. 세상에, 마치 신사팀과 프로팀이 단식 경기를 벌이는 것처럼 말이야!”

그의 눈은 내가 오랫동안 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반짝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새로운 대담한 계획을 구상할 때만 나타나는, 일종의 비뚤어진 열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신발을 걸어차듯 벗어 던지더니, 소리

없이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루벤 로젠탈과 함께 했던 올드 보헤미안 만찬의 밤 이후로, 내 앞에서 이토록 흥분한 기색을 내비친 래플스는 처음이었다. 그 만찬이 결국 어떤 대실패로 이어졌는지가 떠올랐는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기억이 떠오른 것이 그리 싫지 않았다.

“이보게, A. J.,” 나는 그가 평소 쓰는 말투를 흉내 내며 말했다. “자네는 너무 어려운 길만 고집하는군. 그러다 결국 그놈의 스포츠 정신 때문에 발등을 찍히고 말 거야. 지난번 탈출 때를 교훈 삼아서, 우리 목숨이 아깝다면 좀 더 낮게 움직이게나. 집안 사정을 조사하는 건 얼마든지 좋지만, 제발 매켄지 경위의 입속으로 자네 머리를 들이밀지는 말란 말이야!”

내가 쏟아낸 비유의 향연에 그는 그만 말문이 막힌 듯 멈춰 섰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번뜩이는 눈매 아래로 싱긋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네 말이 맞아, 버니. 안 그러겠네. 정말 안 그러겠어. 하지만—멜 로즈 부인의 그 목걸이 봤나? 몇 년 동안이나 탐냈던 거라고! 그렇다고 내가 바보짓을 하려는 건 아니야. 맹세코 절대 안 그래. 그래도—세상에! 교수들이나 매켄지 경위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유희가 될 거야, 버니. 정말 대단한 유희가 될 거라고!”

“글쎄, 이번 주에는 경기에 뛰면 안 돼.”

"아니, 아니, 안 그럴게. 하지만 교수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벌이는 건지 궁금하단 말이지. 바로 그게 핵심이야. 정말로 그 집 안에 공범이 있는 걸까? 그들의 수법이 대체 뭔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괜찮아, 버니. 질투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 확신에 찬 말을 뒤로하고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정직한 인간의 면모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미룰 수 있게 된 사실을 반기면서도, 막상 실행할 생각을 하니 두려웠고, 그런 짓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한탄스러웠다. 하지만 이는 결국 내가 래플스만큼이나 사악하더라도, 그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나약한 인간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돌려 말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도 나에게는 꽤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면, 불쾌한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재주였다. 이 능력 덕분에 나는 지난 한 해와 마찬가지로, 런던에서의 경박한 삶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즐기며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그토록 두려워하던 밀체스터의 크리켓 주간에도 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기분 좋은 실망감에는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었다. 우선, 놀랍게도 애비 크리켓 경기장에는 나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 한둘이나 더 있었다. 사실 주 초반,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때에 나는 운 좋게 공을 잡아낸 덕분에 상당한 명성을 얻기도 했다. 그저 공이 날

아오는 소리만 들렸을 뿐인데, 공이 내 손에 덥석 박혀버린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에머스테스 경이 사람들 앞에서 직접 내 손을 맞잡으며 축하까지 해주었다. 이 행운은 나조차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부르는 법이다. 게다가 경기장에서 유일하게 뛰어난 실력을 갖춘 크리켓 선수가 끊임없이 격려해준 덕분에, 나는 바로 다음 타석에서 한두 번의 득점까지 올릴 수 있었다.

크로울리 자작의 성년 축하 무도회가 열리던 밤, 멜휴시 양은 나에게 아주 다정한 말들을 건넸다. 그녀는 바로 그날 밤 도둑들이 반드시 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내게 귀띔해주었다. 저택 전체에 밤새도록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음에도, 정원에 앉아 있는 내내 그녀는 잔뜩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한편, 그 조용한 스코틀랜드인은 낮 동안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더니, 밤이 되면 저택 하인들이 머무는 구역에 아주 잘 마련된 암실에서 그 사진들을 현상했다. 나는 그와 함께 머물던 손님들 중 던디 출신의 클레페인 씨가 스코틀랜드 야드의 매켄지 경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두 명뿐이었다고 확신한다.

그 주의 토요일에는 별 볼 일 없는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 중 두세 명은 그날 밤 런던으로 돌아가기 위해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일찍 자리를 뜨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경기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토요일 새벽녘, 밀체스터 수도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를 이야기하겠다. 내 방은 중앙 회랑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래플스와 다른 일행들이 머무는 층과는 아예 다른 층이었다. 사실 나는 대형 스위트룸 중 한 곳의 드레스룸에 배정받

은 셈이었다. 그래서 내 옆방에는 멜로즈 부인과 이번 모임을 주최한 주인 내외가 머물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이 되자 공식적인 연회는 모두 끝났다. 그 주 들어 처음으로 자정 이후부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며 몸을 일으켜 앉게 되었다. 둔탁한 충격음이 내 방문을 때렸다. 이어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발소리를 죽인 채 쿵쿵거리며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잡았다." 누군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스코틀랜드 출신의 형사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공포가 엄습하며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만, 거친 숨소리는 점점 더 가팔라졌다. 복도에서는 둔탁한 발소리가 점점 더 빠르박자로 바닥을 두드렸다. 나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여 침대에서 튀어나가듯 일어나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 빛 사이로 매켄지 경위가 보였다. 그는 정체 모를 강력한 상대와 소리 없는 몸싸움을 벌이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저 자를 붙잡아!" 내가 나타나자 그가 소리쳤다. "저 악당을 잡아!"

하지만 나는 바보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내 뒤로 다가와 몸이 부딪히고 나서야, 나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그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드디어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는 식사 시시중을 드는 하인 중 한 명이었다. 내가 그를 붙잡아 누르자마자, 형사는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를 놓치지 마!" 그가 외쳤다. "아래층에 놈들이 더 있다!"

그가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다른 문들도 일제히 열렸다. 에머스테스 경과 그의 아들이 잠옷 차림으로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내가 붙든 사내는 몸부림을 멈췄다. 하지만 크로울리가 가스등을 켜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에머스테스 경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방금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간 사람은 누구인가?"

"맥... 클레페인!" 내가 급히 외쳤다.

"아하!" 그가 하인을 향해 몸을 돌리며 외쳤다. "그러니까 네놈이 그 악당이었던 말이냐?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놈을 어디서 잡았나?"

전혀 몰랐다.

"레이디 멜로즈의 문이 열려 있군요." 크로울리가 말했다. "레이디 멜로즈! 레이디 멜로즈 님!"

"그 여자는 귀가 먹었다는 걸 잊었군." 에머스테스 경이 말했다. "아, 저 사람은 하녀겠군."

안쪽 문이 열리더니, 곧이어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문턱에는 하얀 옷차림의 형체가 나타나 손짓하며 몸을 흔들고 있었다.

"마рки즈 부인의 보석함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창문이 열려 있잖아. 사라졌어!"

“세상에, 창문이 열려 있고 보석함이 사라졌어!” 에머스테스 경이 외쳤다. “마르키즈 부인은 어떠신가? 무사하신가?”

"예, 주인님. 그녀는 자고 있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잠만 자다니."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녀뿐 이군!"

"매켄지, 아니 클레페인이 왜 그렇게 갑자기 자리를 떴을까요?" 크로울리가 내게 물었다.

"밑에 그들이 더 있다고 했네."

"도대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던 거야!" 그가 소리치며, 그 역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거의 모든 크리켓 선수들이 그를 뒤쫓아 나타났다. 선수들은 한꺼번에 현장에 들이닥치더니, 이내 범인을 잡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래플스도 그들 중 한 명이었고, 나 역시 기꺼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필 그 순간, 하인이 나를 거칠게 밀쳐내더니 그들이 왔던 방향으로 급히 달려가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

에머스테스 경은 즉시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하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겁에 질린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나와 주인님이 힘을 합쳐서야 겨우 그를 계단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잠옷 바지 속으로 셔츠를 밀어 넣은 채 나타난 다

른 하인 두 명에게 그를 넘겨주었다. 집주인은 밖으로 나가는 길에 내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었다.

"총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가 덧붙였다. "당신도 들었지 않소?"

"세 번 들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급히 달려 나갔다.

자갈이 발바닥을 찢러대던 감각과, 저 멀리 정원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갈 때 젖은 풀이 발을 감각 없게 만들던 느낌이 생생하다. 밤이 워낙 어두웠던 탓에, 우리는 크리켓 선수들의 잠옷이 번들거리는 것을 보고서야 그들 사이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다 에머스테스 경은 이슬 맺힌 바닥에 엎드려 있던 매켄지 경위를 거의 밟을 뻔하고 말았다.

"이게 누구야?" 그가 외쳤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클레페인이야." 그를 내려다보며 무릎을 꿇고 있던 남자가 말했다. "몸 어딘가에 총알이 박힌 모양이야."

"그가 살아 있습니까?"

"겨우요."

"세상에! 크로울리는 어디 갔지?"

“나 여기 있네!”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조용없어. 놈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단 말이야. 래플스도 이쪽이야. 그 친구도 포기했어.” 사람들이 헉헉거리며 달려왔다.

"뭐, 어쨌든 한 명은 건졌군." 에머스테스 경이 중얼거렸다. "이제 이 불쌍한 친구를 안으로 옮겨야 해. 누군가 어깨를 잡아. 자, 이제 허리를 잡아. 다 같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 하나 둘,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아이고, 가엾기도 하지! 이 사람 이름은 클레페인이 아니야.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온 형사라고. 바로 이 악당들을 잡으려고 내려온 거야!"

래플스가 가장 먼저 놀라움을 표했다. 하지만 부상당한 남자를 일으켜 세운 것 역시 그가 가장 먼저였다. 집으로 향하는 느릿한 행렬 속에서, 그들 중 누구도 래플스만큼 강인하면서도 세심한 손길을 내밀지는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정신을 잃은 그 남자를 서재 소파에 눕혔다. 상처 부위에는 얼음을 대고 목구멍에는 브랜디를 흘려 넣어주자, 남자가 눈을 뜨고 입술을 달싹이기 시작했다.

에머스테스 경은 그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숙였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놈 하나를 무사히 붙잡아 두었습니다. 위층에서 잡으신 그 무식한 놈 말입니다.”

에머스테스 경이 몸을 더 낮게 숙였다. “세상에! 창밖으로 보석함을 던져서 가져갔단 말인가? 게다가 놈들이 아주 깔끔하게 도망까지 쳤다

고! 허, 참나! 그 친구가 무사히 회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네. 아, 저 친구 또 가버리는군.”

한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당구장 안 소파에는 젊은이 열두 명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외투 차림에 잠옷을 받쳐 입은 채 위스키 소다를 들이켜고 있었고, 여전히 흥분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듯 떠들어댔다. 시간표가 사람들 사이로 이리저리 건네지고 있었다. 의사는 아직 서재에 머물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더니, 에머스테스 경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꽤 나쁘군. 오늘 크리켓 경기는 물 건너갔어."

한 시간쯤 지나자 우리 대부분은 이른 아침 기차를 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우리는 객차 한 칸을 빈틈없이 가득 채웠고, 숨이 막힐 정도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여서 떠들어댔다. 그 와중에 나는 나름대로 작은 영웅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붙잡힌 불한당 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으니 말이다. 내심 느끼는 뿌듯함은 은근하면서도 강렬했다. 래플스는 내 쪽을 힐끗거리며 눈꺼풀을 낮게 내리깐 채 나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패딩턴 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려주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우리는 소리 없이 구르는 바퀴와 딸랑거리는 종소리를 내며, 한 섬 마차를 타고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자, 버니,” 래플스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 교수 양반들이 이겼군, 응?”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정말이지 기쁠 따름입니다!"

"불쌍한 매켄지 경위, 가슴에 총알이 박힌 건가?"

"이번만큼은 당신과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었다는 뜻이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버니, 자네는 정말 구제 불능이야. 아주 구제 불능이라고! 만약 그 전리품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면, 자네도 자기 뒤통을 거절하지는 않았을 거 아냐? 그런데 자네는 두 번 연속으로 2등을 차지하고도 아주 즐거워하는 눈치군. 하지만 교수들의 수법은 참 흥미롭긴 하더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건 좀 잃었을지 몰라도 경험만큼은 그만큼 얻은 셈이니까. 보석함을 창밖으로 내리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었어. 그 밑에서 두 명의 도둑이 몇 시간 동안이나 그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 노부인의 방 바로 위층에 제 방이 있어서, 창밖으로 그 광경을 똑똑히 봤습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려고 잠자리에 들러 올라가던 길이었는데, 유독 그 목걸이가 걱정되어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죠. 사실 아래층 창문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제 침대 시트를 밧줄 삼아 내려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려던 참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불부터 끄는 신중함을

기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래에 있는 범인들을 발견했으면서도 그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주 작고 희미하게 빛나는 원형 물체가 아주 잠깐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몇 분 뒤에 다시 한번 잠깐 나타났죠. 그게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시계 눈금에도 야광 도료를 발라두었거든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면 그것을 일종의 랜턴처럼 쓰곤 하니까요. 하지만 저놈들은 그것을 랜턴으로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노부인의 창문 아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쪽에 공범을 심어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짰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을 써야 한다더니, 순식간에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아무것도 안 하셨단 말입니까!" 내가 외쳤다.

"아니요, 오히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곧장 멜로즈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랬단 말인가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 여인의 보석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온 집안이 다 들도록 그 여인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를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귀하신 부인께서는 귀가 너무 어두우신 데다, 식사 시간을 워낙 아끼시는 분이래 쉽게 깨어나질 않으시더군요."

"그래서요?"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 교수라는 자들이 보석 상자째로 그녀의 보석을 몽땅 가져가도록 내버려 뒀단 말입니까!"

"이것만 빼고 말이야." 래플스가 내 무릎 위로 주먹을 쑥 밀어 넣으며 말했다. "진작 보여주고 싶었지만, 정말이지 친구, 자네가 오늘 하루 종일 보여준 그 표정만으로도 우리 회사는 충분히 큰 이득을 봤다네!"

그는 주먹을 폈다가, 곧바로 다시 움켜쥐었다. 그 손안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멜로즈 부인의 목을 감싸고 있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첫걸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첫 범죄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 운명적인 3월 15일(Ids of March) 아침, 그가 어떤 크리켓 투어 중에 있었던 보고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슬쩍 말을 꺼낸 이후로, 나는 래플스로부터 그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마디도 끌어내지 못했었다. 내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래플스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 듯 담배 연기를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냉소와 그리움이 반씩 섞인 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이제는 사라져 버린 그 정직하고 건실했던 시절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래플스는 예술가가 그러하듯 순수한 열정을 쏟아부으며 새로운 대범한 범죄를 계획하거나, 혹은 지난 범죄의 영광을 만끽하곤 했다. 그토

록 솔직하게 자기중심적이고도 매혹적인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에게서, 일말의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 따위가 느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범죄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죽은 후 회라는 유령이 여전히 그를 찾아오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밀체스터에서 돌아오던 밤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우리 주변에는 크리켓 열기가 가득했고, 래플스의 크리켓 가방도 가끔 보관해 두던 벽난로 가림막 뒤에 놓여 있었다. 가죽 위에는 오리엔트 라벨의 잔해 일부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한동안 내 시선은 그 라벨에 머물러 있었고, 아마 그의 시선도 내 눈을 향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갑자기 그가 내게 물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느냐고.

"소용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어차피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당신이 어떤 식으로 일을 꾸미는지 알 것 같군요."

"지금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응?"

"당신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가는군요."

"이보게, 버니. 내 평생 해온 일 중 가장 충동적인 일이었다니까!"

그가 갑자기 기운차게 몸을 일으키자,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책장 쪽으로 굴러갔다. 그의 눈에는 분명 분노 섞인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군요." 내가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그렇게 모욕적인 말로 저를 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바보임에 틀림없군—"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순식간에 다시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버니, 자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악당이었군. 세상에, 정말이지 보통 악당이 아니야! 뭐, 나도 완전히 당한 셈이지. 저 쪽 동네 말로 하면, 자네한테 완패했다는 뜻이야. 사실 나도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어젯밤 그 소동을 겪고 나니 몇 가지 면에서 자네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어쨌든 이젠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 그래서 내 인생의 유일한 철칙을 깨고 이 기분을 만끽해 보려고 해. 딱 한 잔만 더 마셔야겠어!”

위스키가 잔에 부딪히며 찰랑거렸고, 탄산수병에서는 기포가 툭툭 터졌다. 얼음 조각이 잔 속으로 툭 떨어졌다. 잠옷 차림에 담배 한 대를 입에 문 래플스는, 내가 이제는 듣지 못할 것이라 포기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처음에는 피카딜리의 소음이 흘러 들어왔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를 끝내기도 훨씬 전에 마지막 마차 바퀴 소리도, 마지막 싸움꾼의 고함도 잦아들었다. 여름 밤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아니, 정말이지 대접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주거든. 말하자면 술값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경우에는 아주 종합적인 대가를 치러

야 했거든. 시작부터 구멍이 났으니, 사실 그 초대를 거절했어야 했어.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멜버른 컵 경기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우승할 게 확실한 놈을 찍었다가 낙방하고 말았지. 멜버른에서 바보짓을 하는 방법이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 버니, 그때의 난 지금처럼 노련한 베테랑이 아니었어. 내 분석 방식 자체가 이미 내 밑천을 드러낸 셈이었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돈이 궁한지 몰랐고, 나 역시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판 붙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곳 놈들은 유독 더 영악하더군.

그래서 일종의 친척을 떠올렸어. 우리 중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육촌이었는데, 그저 식민지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지. 만약 그가 부자라면 아주 잘된 일이고, 아니더라도 손해 볼 건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고, 운 좋게도 마침 며칠간 혼자 있을 시간이 생겼을 때 딱 맞춰 그를 찾아냈어. 아니, 찾아냈다고 생각했지. 크리스마스 빅 매치를 앞두고 손을 좀 다치는 바람에, 경기에 나갈 수 있었다 해도 공 하나 제대로 던지지 못했을 거야.”

"나를 수술해 준 외과의사가 마침 내가 내셔널 은행의 래플스와 친척 관계냐고 묻더군요. 그 우연한 일치에 정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은행의 고위 간부인 친척이 내 이름 석 자만 믿고 자금을 대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래플스라는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가 전혀 고위 관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의사는 그를 직접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이름과 같은 성을 가진 그가 관리하던 교외 지점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을 신문에서 읽었을 뿐이었죠. 무장 강도가 나타났는데, 이 래플스라는 사람이 총에 맞으면서도 아주 용감하게 강도를 물리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외에서는 그런 일이 워낙 흔한 일이라, 의사는 그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교외 지점이라니. 나의 자금줄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대단한 인물로 보였으나 실상은 그저 그런 인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지점장이라면 지점장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사에게 그 지점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내가 찾던 그 친척이 맞는지 곧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더 알아봐 드리지요.” 의사가 말했다. “그가 승진해 간 지점 이름도 알아내 보지요. 이미 한 단계 올라갔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으니까요.”

다음 날, 그는 멜버른에서 북쪽으로 50마일쯤 떨어진 예(Yea)라는 마을 이름을 가져왔다. 하지만 평소처럼 정보가 워낙 모호한 탓에, 그곳에 가면 정말 친척을 만날 수 있을지까지는 확답하지 못했다.

“그는 미혼이고, 이니셜은 W. F.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의사가 말했다. “며칠 전에 이전 직장을 떠났는데, 새 직장에는 새해가 되어야 출근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그전에 미리 가서 업무를 인수하고 짐도 풀 겸 들를 겁니다.

그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당신이라면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은 허비하게 될 거야. 만약 그 사람이 거기 없다면 시간은 더 걸리겠지.” 내가 말했다. 나는 이 시골 지역의 지배인에게 꽤 관심이 생겨 있었다. 휴가가 끝나기 전에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가벼운 술자리라도 한 번 갖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사가 말했다. “얇은 말을 구해 타고 가야겠군요. 그 손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안 될까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요. 어쨌든 말을 타야 하긴 마찬가지니까요. 그쪽도 말을 좀 타시는 편인가요?”

"네."

“그렇다면 저는 분명 목적지까지 말을 타고 갈 겁니다. 휘틀시를 지나 플렌티 산맥을 넘는 길인데, 정말 일품이거든요. 래플스 씨, 그 길을 가보시면 호주의 거친 야생이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게다가 이 도시의 용수가 어디서 오는지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입니다. 그 순수한 안 엔 강물 말이죠! 저도 당신과 함께 말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말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도 일거리가 없어서 살만 포동포동하게 오른 암말 한 마리가 있다네.” 그가 말했다. “백 마일 정도 그 말 등에 올라타서 달릴 수만 있다면 내게는 큰 자선이나 다름없겠어. 그러면 자네도 그 손을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을 테니 말이야.”

“너무 과찬이십니다!” 내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당신이 바로 A. J. 래플스군요.” 그가 말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찬사나, 식민지 사람들의 환대라 할 만한 훌륭한 사례가 또 있을까? 글쎄, 버니, 나는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 타버린 담배꽂초를 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새 담배에 불을 붙인 뒤 다시 말을 이어갔다.

“글쎄, 내 손으로 직접 W. F.에게 짧은 편지를 한 통 썼다네.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상처가 그리 심각한 건 아니었어. 그저 세 번째 손가락이 찢어져서 부목을 대고 있었을 뿐이지. 다음 날 아침, 의사는 나를 구급차로나 쓸 법한, 황소처럼 굵은 짐승에 태워 보내더군. 팀원 중 절반은 내가 떠나는 걸 보러 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남지 않았다고 나를 원망하며 툭툭거렸지. 내가 옆에서 지켜본다고 해서 그들이 이기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들은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몰랐지만, 사실 내가 앞으로 어떤 판을 벌이게 될지는 더더욱 몰랐을 걸세.”

그 여정은 그 자체로 꽤 흥미로웠다. 특히 휘틀시라는 마을을 지날 때는 더욱 그랬다. 산맥의 아래쪽 경사면에 자리 잡은 그곳은 정말이지 거친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늘에서도 온도계가 화씨 세 자릿수(100도 이상)를 가리키는 가운데, 뜨거운 양고기 요리와 차를 먹고는 죽을 뻔했던 기억이 난다. 처음 30마일 정도는 포장 상태가 좋은 도로였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가며 굳이 달릴 만큼 대단한 길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휘틀시를 지나자 길은 산맥을 가로지르는 좁은 오솔길로 변했다. 길은 너무 희미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고, 나는 그저 암말의 발길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길은 어느덧 골짜기로 내려가 개울을 따라 이어졌다. 그동안 마주한 풍경은 온통 현지의 색채로 가득했다. 유칼립투스 나무가 사방에 널려 있었고, 무지갯빛을 띤 앵무새들이 날아다녔다. 한곳에서는 유칼립투스 숲 전체에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해두었는데, 마치 나무들을 하얗게 칠해놓은 것 같았다. 수 마일 동안 잎사귀 하나, 생명체 하나 보이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러다 처음으로 마주친 생명체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주인 없는 말 한 마리가 숲 사이를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안장은 뒤틀려 있었고 등자에서는 뺑뺑거리는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의사의 암말을 몰아 그 말의 앞을 가로막았다. 뒤이어 말을 타고 질주해 오던 남자가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고맙소, 선생.” 빨간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거구의 사내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수염은 마치 W. G. 그레이스처럼 풍성했지만, 표정만큼은 악마 그 자체였다.

"사고였나요?" 내가 말을 멈춰 세우며 물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마치 더는 묻지 말라고 도전이라도 하듯 인상을 팍 쓰면서 말이다.

"안 좋은 징조군요." 내가 말했다. "만약 안장에 묻은 게 피라면 말입니다!"

"이봐, 버니. 나도 내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저 친구가 나를 쳐다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훑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노려봤더니, 결국 저 친구도 비틀린 안장에 묻은 게 피라는 사실을 인정하더군. 그리고 나니 아주 순해졌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주 자세히 말해주더라고. 그의 동료 한 명이 나뭇가지에 휩쓸려 코가 박살이 났는데, 그게 전부였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쓰러질 때까지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더군. 다른 동료 한 명은 아직 덩불 속에서 그와 함께 있는 상태고 말이야."

"이미 말했듯이, 버니,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노련한 베테랑이 아니었어. 어떤 면에서도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로 헤어졌지. 그가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묻기에 대답해 주었더니, 그는 내게 지름길을 알려주더군. 나무 사이로 보이는 봉우리를 향해 길을 벗어나 가

다가, 그 봉우리에서 내려다보이는 개울을 따라가면 예(Yea) 마을에
일곱 마일은 아낄 수 있고 한 시간은 더 일찍 도착할 거라고 말이야.

웃지 마, 버니! 그때의 나는 아직 어린애나 다름없었다는 뜻에서 한
말이니까. 당연히 그 지름길이라는 게 사실은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
지. 결국 그 불운한 암말과 내가 예 마을의 외길을 마주했을 때는 이미
날이 거의 저문 뒤였지."

"은행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색 정장을 입은 사내 하나가 베란
다에서 뛰어 내려오더군요."

"래플스 씨입니까?" 그가 물었다.

"래플스 씨,"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맞잡고 말했다.

"늦었군."

"누군가 나를 잘못된 길로 유도했어."

"그게 다야? 다행이네."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
아? 휘틀시와 이곳 사이 도로에 아주 새로운 무법자들이 나타났대. 제
2의 켈리 일당이라나 뭐라나! 만약 그놈들이 자네를 마주쳤다면 아주
호되게 당했을걸?"

"그들도 당신에게 그러하겠죠." 내가 맞받아쳤다. 나의 이 '너도 마
찬가지 아니냐'는 식의 응수는 그를 입 다물게 만들었고, 동시에 당혹

스럽게 만든 듯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의 빈말보다는, 차라리 내 말이 훨씬 더 일리가 있었다.

"아마 꽤 고생 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는 내 여행 가방의 끈을 풀고는 하인에게 내 말의 고삐를 건네주며 말을 이었다.

"저처럼 총각인 게 천만다행이지요."

나 역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결혼한 몸이었다면, 설령 아내를 데려온다 해도 그렇게 격식 없이 갑작스럽게 내밀지는 않았을 테니까. 나는 그저 예의상 적당히 대꾸하며 넘겼다. 그러자 그는 마치 내가 이곳에 몇 주씩 머물며 그에게 얹혀살 작정이라도 되는 양, 자리를 잡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며 말을 이었다. '허, 참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식민지 사람들의 환대란 정말 대단하군!' 나는 여전히 의아한 마음을 품은 채, 그를 따라 은행 안쪽의 개인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 식사는 15분 뒤면 준비됩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가 말했다. "식사 전에 먼저 목욕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 준비해 두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참, 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시다만, 오늘 아침에 온 편지가 하나 있어 가져왔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설마 안 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자, 여기 있네."

"그리고 그가 내 방까지 불을 밝혀 안내해 주는 동안, 나는 어제 내가 쓴 봉투의 수신인을 다시금 읽었다. 'W. F. 래플스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버니, 자네도 아마 축구 시합 도중에 숨이 턱 막혀 본 적이 있겠지?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알 거야. 내 도덕적 기세는 그 편지 한 통에 완전히 꺾어버렸네. 친구, 자네에게는 아직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야.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 그가 예의 있게 나를 혼자 두려고 자리를 비워줄 때까지, 나는 그저 내 손에 든 편지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네."

"W. F. 래플스라니! 우리가 서로를 W. F. 래플스로 착각했던 거야.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새 매니저 말이야! 우리가 서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던 것도 당연했지. 오히려 서로 착각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게 기적일 정도야. 상대방이 알았다면 얼마나 비웃었겠나! 하지만 나는, 나는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 맙소사,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다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단 한 순간도 걸리지 않았고 몸이 떨리지도 않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니까. 버니, 내가 냉정하다고 해도 좋아. 하지만 나도 네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줘. 너도 A. J. 래플스를

믿었던 것처럼 나 역시 이 W. F. 래플스라는 인물에 모든 걸 걸었던 말
이야. W. G. 수염을 기른 그 남자, 주인 없는 말과 피 묻은 안장, 그리
고 나를 엉뚱한 곳으로 몰아넣어 길을 잃게 만든 그 치밀한 속임수까지
전부 떠올랐어. 그런데 이제 와서 매니저는 행방불명이고, 이 근방에
무법자들이 나타났다는 보고까지 들려오다니. 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
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동정심을 느꼈다고 거짓말은 하지 않겠어. 그런
동정심은 대개 가식에 불과하니까. 게다가 내 동정심은 전부 나 자신을
위해 필요했으니까.”

"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겠
나? 내가 멜버른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
을 자네에게 충분히 강조했는지 모르겠군. 사실, 그것은 단순히 필요
해서라기보다 내 스스로의 결연한 의지였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걸
세."

돈이 있다면 좋겠지만, 대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이 낯선 이가 내 말을 믿어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사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밤새도록 온 나라를 뒤지고 다녀야
할 테니까. 내가 왜 그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지? 차라리 그가 스스로
실수를 깨닫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있을까?

버니, 맹세컨대 나는 아무런 계획도, 미리 준비한 거짓말도 없이 저
녁 식사를 하러 들어갔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하며 도덕
적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두를
필요도 없었어. 아직 편지를 읽지도 않았으니, 이니셜을 못 본 척할 수

도 있었거든. 그러는 사이에 뭔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를 일이었지. 조금 더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었어.

유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유혹은 아직 막연했고, 그 막연함 때문에 나는 오히려 몸을 떨었다.

“안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온 건가?”

마침내 내가 그의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자, 매니저가 물었다.

“그저 좀 귀찮은 일이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 정말이지, 그 순간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미 거짓말은 뱉어졌고, 내 입장은 정해졌어. 그 순간부터 물러설 길은 없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은 이미 내가 W. F. 래플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그날 밤, 그 은행에서 나는 반드시 W. F. 래플스가 되어야만 했어. 그리고 악마여, 그 거짓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내게 가르쳐 주길!”

그가 다시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다. 나는 내 잔을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그가 내게 담뱃갑을 건네줄 때, 가스등 불빛이 담뱃갑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고개를 저어 거절했다.

"악마가 장난을 좀 쳤지." 래플스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수프를 맛보기도 전에 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뒀어. 그냥 잠자리에 드는 대신 그 은행을 털기로 마음먹었거든. 의사의 암말이 버터준다면 아침 식사 전에는 멜버른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지. 그리고 그 영감님께는 길을 잘못

들어 몇 시간 동안 헤맸다고 둘러댔 작정이었어. 실제로 충분히 그럴 법한 상황이었으니까. 예(Yea) 마을에는 아예 도착조차 하지 않은 거지. 반대로 예 마을에서 일을 저질렀다면, 그 변장과 강도 사건은 신임 매니저를 살해한 범인 중 한 명의 소행으로 영원히 남았을 거야. 그놈들이 애초에 그 목적으로 매니저를 습격했으니까 말이야. 버니, 너도 이런 일에 경험이 쌓이고 있잖아. 묻겠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탈출 방법이 있었을까? 어젯밤 일도 그와 비슷했지만, 어제는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았어. 난 처음부터 다 내다봤거든. 수프를 다 먹기도 전에 결말까지 다 본 셈이지!"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미리 몇 가지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은행에 함께 거주하는 출납원은 연휴를 맞아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저희 경기를 보러 멜버른까지 내려갔더군요. 제 말을 받아준 남자도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그 집의 유일한 하인이었고, 별채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해 두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질문을 너무 많이 던지는 편이었습니다. 가장 완곡하고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조차 주인인 유뱅크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그 질문들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숨기는 데에도 서툴렀습니다."

"있잖아," 아주 직설적인 부류인 유뱅크라는 자가 말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자네가 도둑놈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왜 그래, 기가 죽은 건가?"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내가 대답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열이 올랐다. “정말이지, 사람에게 총알을 박아 넣어야 한다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가 태연하게 되물었다. “난 그만큼 즐거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게다가 네 건 통과하지도 않았잖아.”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기지를 발휘해 외쳤다.

“아멘!” 그가 대답했다.

“나는 잔을 비웠다. 사실 내가 부상을 입힌 그 은행 강도가 감옥에 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참을 만큼 참았기에, 유뱅크는 다시 그 화제로 말을 돌렸다. 그는 직원이 적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만큼은 달랐다. 그는 밤새도록 베개 밑에, 낮 동안에는 계산대 아래에 장전된 리볼버를 두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산대 아래에 두신다고요?” 나는 바보같이 그런 소리를 내뱉고 말았다.

“맞아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고려하면, “물론이죠, 깜빡 잊고 있었습시다!”라고 대답하는 건 정말 치

명적인 실수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코끝을 치켜 세우며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신문에는 당신이 그랬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가 외쳤다.

“계산대 아래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규정이라고요!”

"잠시 동안은 나도 막막했어, 버니. 하지만 겉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만만해 보였을 거야. 그리고 내 표정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

“규정 말입니다!” 마침내 내가 내뱉었다. 내 명령조의 말투는 더할 나위 없이 무례했다. “네, 그놈의 규정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판이라고요! 여보게, 자네는 은행 강도가 총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자네가 총에 손을 뻗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총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네. 그러다 아주 마지못해 물러나는 척하며 카운터에서 멀어지면서 기회를 잡은 거지.”

유뱅크는 눈을 크게 뜨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나를 쏘아보더니, 이내 탁자를 향해 주먹을 쿡 내리쳤다.

“세상에! 정말 대단했어! 하지만,” 그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듯이 덧붙였다. “신문에는 다른 내용이 실렸단 말이야, 알지?”

“당연하죠.” 내가 대꾸했다. “그들이 내가 말한 대로 말했으니까요. 내가 은행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까지 광고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구름이 걷히고 나니, 세상에, 정말이지 금빛 테두리가 둘러진 구름이 나타나더군. 은빛 따위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호주산 금빛 말이야! 그전까지 유뱅크 노인은 나를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거든. 아주 완고한 노인네였지. 나보다 훨씬 연배도 높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엔 너무 젊다거나 내가 해낸 일이 그저 운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나도 처음 봤다네. 그는 제일 좋은 브랜드를 꺼내 오더니, 내가 피우던 시가도 버리게 하고는 새 시가 상자를 열더군. 붉은 콧수염에 아주 유머러스한 얼굴을 한, 참으로 유쾌해 보이는 사람이었어(툼 에밋과 꽤 닮았지). 그 순간부터 나는 그의 유쾌한 성미를 공략해 보기로 마음먹었지. 하지만 버니, 그는 로젠탈 같은 부류가 아니었어. 아주 단단하고 빈틈없는 사람이라, 나 따위는 열 번이라도 술로 눌러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말일세."

'좋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맨정신으로 잠자리에 들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제재소처럼 요란하게 코를 골며 굶아떨어질 거다!' 그러고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가 따라준 술의 절반을 열린 창문 너머로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친구였네, 유뱅크. 결코 술에 절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게나. 나는 그저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불렀

을 뿐이야. 사실 그보다 더한 면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 그래도 저녁이 깊어갈수록 그는 점점 더 쾌활해지더군. 덕분에 그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은행 내부를 구경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 리볼버를 가지러 갔을 때였지. 나는 그를 20분 정도 더 붙잡아 두었네. 그래서 내 방에서 유뱅크와 악수를 나누기 전에는 이미 은행 건물의 구석구석을 전부 파악한 상태였지.”

“그 뒤로 한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맞춰보게. 옷을 벗어 던지고 침대에 몸을 뉘었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한 변장이라도 그 끊임없는 긴장감 때문에 진이 다 빠지는데, 하물며 즉흥적인 변장은 오죽하겠나! 감을 잡을 새도 없이 다음 대사에서 바로 밀천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해야 하거든. 마치 나쁜 조명 아래서 계속 타석에 서 있는 기분이라니까. 몇 시간이나 이어진 대화 속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넘겼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대화 끝 무렵에는 상대방이 위험할 정도로 친밀하게 굴기까지 했으니 말이야. 자네도 충분히 상상이 가겠지? 그렇게 진을 다 빼놓고 나서, 나는 침대에 대자로 뻗어 오늘 밤 벌일 거사를 위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있었던 거라네.”

운이 좋게도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그곳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유뱅크가 하모니움(harmonium)을 연주하듯 코를 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음악은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살금 살금 방을 나와 문을 닫을 때도 소리는 여전했고, 그의 방 앞에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일 때도 그 규칙적인 소음은 변함이 없었다.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훨씬 더 멋진 연주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 친구의

코골이 덕분에 나는 은행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시 일어나 그의 열린 창문 아래에서 귀를 기울였을 때도, 그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왜 은행에서 먼저 나왔냐고요? 근처 나무숲에 암말을 잡아다 안장을 엮고 묶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도망칠 수 있는 수단을 손쉽게 마련해 두려는 속셈이었죠. 돌이켜보면 그 예방 조치가 본능적으로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무의식 중에 제 행동 지침 중 하나를 따르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물론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지 않고 안장을 채겨야 했고, 말 우리에서 말을 잡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불쌍한 암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마구간으로 다시 돌아가 귀리 한 모자 가득 담아왔습니다. 모자째로 말과 함께 나무숲에 두고 왔죠.

거기에 고려해야 할 변수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개 한 마리였습니다. 버니, 개야말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녁 시간 동안 그 녀석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영리함을 발휘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뿐만 아니라, 뒷문으로 다시 나 타났을 때도 녀석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더군요."

자칭 신임 매니저라는 신분을 내세워,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불쌍한 유뱅크에게 은행 업무 전반에 관한 온갖 정보를 캐낼 수 있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무엇보다 소중한 마지막 20분 동안은 더욱 그랬다. 나는 밤에 열쇠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 묻는 것도 아주 당연한 절차처럼 행동했다. 당연히 그는 열쇠를 자기 방으로 가져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단순한 방식을 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었다. 그 수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외부인이 그 열쇠를 찾아내려 했다면,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당연히 나는 몇 초 만에 열쇠를 손에 넣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금고실 안으로 들어갔다. 깜빡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마침 달이 떠올라 은행 안으로 꽤 많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내 방에서 양초를 하나 챙겨왔다. 은행 영업실 카운터 뒤편의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금고실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나는 망설임 없이 양초에 불을 붙였다. 금고실에는 창문이 없었다. 더는 유뱅크 노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누군가 나타나 나를 방해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작업하는 동안 혹시 몰라 문을 잠가둘까도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철제 문 안쪽에는 열쇠 구멍이 없었다.

“금고 안에는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 하지만 난 딱 필요한 만큼, 그리고 편하게 들고 나갈 수 있을 만큼만 챙겼어. 다 합쳐도 200 파운드 남짓이었을 거야. 지폐는 손도 대지 않았지. 주머니마다 금화를 골고루 나누어 넣은 것도 내 타고난 신중함 때문이었어. 짐을 챙길 때도 마치 ‘밴버리 크로스의 노파’처럼 한곳에 몽땅 쭈서 넣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 지금 들어도 내가 너무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신중했거든. 그래서 막 떠나려던 찰나, 10분만 더

일찍 나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그때 바깥문에서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버니, 은행 금고의 바깥문이었어! 내 촛불을 들킨 게 분명해! 그 벽돌로 된 무덤 같은 금고 안에서,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촛농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말이야!”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위층에서 깊이 잠든 유뱅크를 믿고 직접 문을 열어야 했다. 그러고는 침입자를 때려눕히거나, 멜버른을 떠나기 전 새로 사두었던 권총으로 쏘버린 뒤, 저 멀리 나무 숲과 의사의 암말이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하는 수밖에 없었다.

순식간에 결심을 굳히고 금고실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와 나를 다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복도를 따라 맨발로 걸어오는 소리였다.

“내 좁은 계단은 돌로 되어 있어서 굴러떨어질 때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네. 금고 안에 열쇠를 두고 온 터라, 철문을 밀어 열기만 하면 됐지. 문을 열려던 찰나, 머리 위에서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 순간 뒤에 남겨둔 모든 문을 하나하나 다 잠가두길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네. 자네도 알다시피, 조심성이 있다고 해서 항상 무사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누가 저렇게 두드려 대는 거야?” 위층에서 유뱅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답을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내 귀에는 그저 기력을 다한 자가 내뿜는 무의미한 간청처럼 들렸다. 분명하게 들린 소리는 금고의 빗장을 풀기 전, 은행용 리볼버의 공이치기가 젖혀지는 소리였다. 뒤이어 비틀거리는 발소리와 거칠고 짧으며 얇은 숨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경악에 찬 유뱅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상에! 맙소사! 대체 무슨 일이야? 피가 아주 철철 흐르잖아!”

“지금은 안 돼.” 그는 고마움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부시레인저(Bushrangers)들이예요."

"바로 저 아래쪽 길에서?"

“이거랑 휘틀시가…… 나무에 묶여 있었어…… 총소리가 났고…… 나를 버려두고 갔어……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가냘픈 목소리가 잦아들더니, 맨발이 황급히 멀어졌다. 만약 그 불쌍한 녀석이 기절한 것이라면, 지금이 바로 기회였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나는 반쯤 닫힌 철문 아래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갇힌 것만큼이나 넋을 잃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유뱅크는 채 일 분도 지나지 않아 돌아왔으니까.

“이걸 좀 마세요.”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다른 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는 한결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야 좀 살아 있는 것 같군…….”

"입 다물어!"

“정말 큰 힘이 되는군. 그 긴 거리를 혼자서, 아무리 빨라도 한 시간에 겨우 1마일씩 가며 헤맸을 때가 어땠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정말이지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네. 내 이야기를 꼭 들어줘야 하네. 혹시라도 내가 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자, 한 모금 더 마셔요.”

“고맙네. 내가 부시레인저라고 말하긴 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나.”

"그럼 그것들이 대체 무엇이었던 말입니까?"

“은행 강도라니! 그놈들 중 총을 쏜 놈은 내가 코버그 은행에서 총알을 박아 넣고 쫓아냈던 바로 그 짐승 같은 놈이란 말이다!”

"그럴 줄 알았어!"

"당연히 그랬겠지, 버니. 나도 그 금고 안에서 그랬으니까. 하지만 노인 유뱅크는 그러지 않았어. 난 그 영감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줄 알았다고."

“제정신이 아니군.”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도대체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새로 온 매니저 말이야."

"새로 온 매니저는 위층 침대에서 잠들었네."

"그가 언제 도착했지?"

"오늘 저녁이야."

"자신을 래플스라고 부른단 말인가?"

"네."

“이런, 세상에나!” 진짜 남자가 나직이 속삭였다. “단순한 복수극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야 정체가 보이네요. 선생님, 위층에 있는 그놈은 가짜입니다. 아니, 아직 거기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군요! 분명 그 일당 중 하나일 겁니다. 은행을 털 작정이예요. 이미 털어버린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벌써 저질렀다면 모르겠지만.” 유뱅크가 그의 뒤에서 중얼거렸다. “아직 위층에 있는 거라면 말이야! 세상에, 정말 그렇다면 그 친구가 참 가엾을 지경이군!”

“목소리는 꽤 차분했지만,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불쾌한 말투였어. 정말이야, 버니. 그 리볼버를 가져오길 잘했다니까. 마치 내 총구와 그의 총구가 맞붙어야만 하는 상황처럼 보였거든.”

"우선 여기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군." 새 매니저가 말했다.

“그사이 그놈이 창문으로 빠져나가게요? 아뇨, 아뇨, 그는 여기 아래에 없어요.”

"슬쩍 훑쳐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버니, 내 악명 높은 경력 중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난 주저 없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답하겠어. 금고 안, 그 좁은 돌계단 아래에 서 있었지. 문은 한 자 정도 활짝 열려 있었는데, 문이 끼익 소리를 낼지 아닐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빛이 점점 가까워지는데도 말이야! 정말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문은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어. 문 자체가 워낙 견고하고 경첩도 잘 달려 있었거든. 아무리 세게 닫으려 해도 문이 너무 무거워서 쿵 소리가 날 리 없었지. 게다가 문이 워낙 빈틈없이 맞물려 있어서, 문을 열 때 얼굴로 공기가 훑 끼쳐 나오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 문틈 아래로 새어 나오는 가느다란 빛줄기를 제외하면 모든 빛이 사라졌다가, 이내 다시 환해지더군. 그때 그 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아니, 그는 저기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숨뭉치를 덧댄 듯 먹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빛줄기마저 툭 끊겼다. 나는 몇 초 뒤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마침 그들이 내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자, 그때는 0.1초도 지체할 여유가 없었어. 하지만 자랑스럽게 말하건대, 나는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세워 계단을 기어 올라갔지. 그리고

그 은행(그놈들이 문을 열어두고 가버렸더라고)에서 빠져나올 때도, 마치 내 시간이 아주 넉넉한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 의사의 암말이 재갈을 문 채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안의 귀리를 먹고 있던 모자를, 나는 잊지 않고 머리에 챙겨 썼지. 그것 하나만 빠뜨렸어도 그대로 들통이 났을 테니까. 도망칠 때도 전력 질주하지 않고, 길가에 자욱한 먼지 속을 조용히 달려 나갔어. 비록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지만 말이야. 다행히 그 은행이 내가 발도 들여놓지 않은 마을 반대편에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지.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두 매니저와 마부가 아우성치는 소리였어. 자, 이제 버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더니, 하품으로 끝을 맺는 미소를 지었다. 검은 창문들은 인디고색의 온갖 색조를 거치며 점차 빛이 바라고 있었다. 새벽빛이 밝아오자 창문 너머의 풍경은 창틀에 갇힌 채 창백하고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가스등의 불빛은 어느덧 꺼진 듯 희미해져 있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외쳤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렇다니까요." 래플스가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흥미진진한 추격전으로 끝났어야 했는데, 알다시피 일이 그렇게 안 풀렸어요. 아마 그들은 내가 이미 멀리 달아났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고는 내가 근처에 있는 도둑 떼의 일원이라고 단정 지었을 테고요. 게다가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그 패거리한테 당할 만큼 당한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난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나한테는 충분히 스릴 넘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나무숲에 들어섰

을 때 그 불쌍한 짐승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모를 겁니다! 멜버른에서 50마일은 죽히 떨어졌을 텐데, 달팽이 걸음처럼 느릿느릿 갔거든요. 그런데 흠친 귀리 때문인지 그 암말이 아주 기운이 넘쳐서, 코끝에 남쪽 기운이 느껴지자마자 아주 질주를 하더라고요. 맏소사, 그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는 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나뭇가지 아래를 지날 때는 얼굴을 말갈기에 파묻어야 했다니깐요! 내가 말했던 그 죽은 유칼립투스 나무 숲 기억나요? 달빛 아래서 정말 유령이 나올 것처럼 기괴했죠. 숲은 내가 떠날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어요. 너무나 적막해서 첫 번째 휴식처에 말을 세우고는, 2, 3분 동안 땅에 귀를 대고 가만히 누워 있었을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말의 울음소리와 내 심장 소리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요. 미안해요, 버니. 하지만 나중에 내 회고록을 쓴다면, 그 추억전 장면을 흥미롭게 구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죽은 유칼립투스 나무들을 배경으로 깔고,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지게 묘사해 봐요. 나는 안장 위에서 몸을 돌려, 하얀 옷을 입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유뱅크를 바라보고, 그 옷을 피로 물들여 버리는 거지. 3인칭 시점으로 써 내려가면, 독자들은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불평하듯 말했다. "그 암말이 멜버른까지 너를 계속 태워다 준 거야?"

"오는 길 내내 한 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태워다 줬지! 호텔에 있을 때 내가 아주 세심하게 살펴두었지. 그러고는 저녁에 의사에게 돌려주었어. 내가 그곳에서 꿈쩍달짝 못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는

어찌나 기뻐하던지! 다음 날 아침에는 내가 예(Yea)에서 얼마나 큰 화를 면했는지 보여주겠다며 신문까지 가져왔다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말입니까?"

"아!" 래플스가 가스등을 끄며 말했다. "그 부분은 나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 암말과 그 털색이 일치한 건 그저 우연이었지. 다행히 그냥 적갈색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말의 상태를 보니 분명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 의사의 태도도 확실히 평소와 달랐어. 내 생각엔 그가 무언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비록 엉뚱한 방향이었을지라도 말이야. 그가 올 줄은 몰랐거든. 내 행색 때문에 의심을 더 키웠을까 봐 걱정되는군."

나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예전에는 꽤 술이 많은 콧수염을 길렀었지."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순수함을 잃어버린 바로 다음 날, 콧수염도 같이 잃고 말았다네."

고의적 살인

우리가 함께 연루되었던 수많은 강도 사건 중, 길게 늘어놓아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사건들에 내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세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별다른 돌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사실 래플스가 계획을 워낙 교묘하게 짜놓은 덕분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항상 최소한으로 줄여놓을 수 있었다. 훔친 물건의 시장 가치가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할 수는 있어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극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일은 우리에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우리가 흠친 전리품조차 늘 비슷 비슷했다. 애를 쓰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결국 가장 값 비싼 보석들뿐이었으니까. 요컨대,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탈출극들은 글로 옮기려 하면 오히려 가장 지루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 밀치스터 크리켓 주간이 끝나고 8, 9주쯤 지났을 때 벌어진 아다 에메랄드 사건이 딱 그랬다. 그 사건은 너무나 단조로웠다. 하지만 그 사건의 후속편은, 우리가 저질렀던 그 어떤 절도 사건을 다 합친 것보다도 차라리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다.

아일랜드에서 돌아온 뒤 맞이한 저녁이었다. 나는 내 방에서 래플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전리품을 처분하러 나간 상태였다. 래플스는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단계를 처리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는데, 나는 그 일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겨두는 편이 훨씬 속 편하다고 생각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면서도 어딘가 궁상맞은 차림으로 변장한 채,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래를 주도하곤 했다. 게다가 그는 항상 런던 하층민 특유의 코크니 방언을 구사했는데, 그 분야에서는 가히 달인이라 할 만했다. 또한 그는 늘 같은 '장물아비'를 이용했다. 그 남자는 겉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악명 높은 사채업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상은 래플스 못지않게 대단한 악당이었다. 다만 최근에 나도 그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변장하지 않은 본래의 모습이였다. 이번 에메랄드를 손에 넣으려면 자금이 필요했기에, 나는 백 파운드를 빌려야 했다. 돈을 빌려준 이는 상냥한 말투에 비굴할 정도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웃음을 흘리는, 백발의 노인이었

다. 안경 너머로 눈동자를 굴리는 꼴이 세상에서 제일 교활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조건은 예상하건대 그리 좋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일은 처음 자금을 끌어온 곳과 마지막 전리품을 챙기는 곳이 모두 같은 곳이었으니, 우리 둘 모두에게는 참으로 흥미로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전리품을 확인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초조함도 함께 커져만 갔다. 나는 열린 창가에 앉아 시스터 앤처럼 창밖을 내다보며 그를 기다렸다. 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깔릴 때까지 줄곧 그렇게 지켜보았다.

머릿속에는 끔찍한 가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휘몰아쳤다. 마침내 집 밖에서 리프트 게이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공포스러운 상상력은 나를 더욱 강하게 옥죄었다. 익숙한 노크 소리가 문가에 울릴 때까지,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깜깜하잖아!" 내가 래플스를 안으로 끌어당기자 그가 말했다. "아니, 버니,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드디어 왔구나."

그가 들어오자마자 나는 안도감과 초조함이 뒤섞인 채 격하게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 그래서, 얼마 받았어?"

"오백 파운드라."

"현금으로?"

"주머니에 넣어뒀어."

“정말 다행이야!” 내가 외쳤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자넨 모를 거야. 불 좀 켜게. 지난 한 시간 동안 온통 자네 생각뿐이었어. 내가 바보였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방 안에 하얀 빛이 가득 찼을 때 래플스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미소가 왜 기묘한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방금 전까지 겪었던 공포와 지금 느끼는 안도감에 도취되어 바보같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게다가 이 상황을 축하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서둘러 술을 따르려다, 위스키를 엮지르고 탄산수까지 사방으로 튀게 만드는 멍청한 짓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나?”

래플스는 내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즐거움이 가득했다.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겼다면 뭐라고 말했을 건가? 진정하게, 친구! 아주 사소한 일이었고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버니, 꽤나 끈질기고 긴 추격전이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한발 앞서 나간 것 같군.”

그러다 문득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뿔뿔해야 할 것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으며, 장화에는 먼
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경찰이라고?" 나는 경악하며 속삭였다.

"아니, 전혀. 그저 늙은 베어드일 뿐이야."

"베어드라고? 하지만 에메랄드를 받아 간 건 베어드 아니었나?"

"그랬었지."

"그렇다면 그자가 대체 왜 자넬 뒤쫓게 된 거지?"

“이보게 친구, 기회만 준다면 다 말해주겠네. 정말이지 전혀 흥분할
만한 일도 아니야. 노인네 베어드가 드디어 눈치를 챘거든. 내가 그놈
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좀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야. 그래서
나를 내 은신처로 몰아넣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 중이라네.”

"그런 걸 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다니!"

"성공했다면 대단한 일이었겠지만, 아직 성공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어. 그놈 때문에 한동안 잠을 설쳤거든. 다 집에
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벌인 탓이야. 그 고집불통 영감탱이
가 조간신문에 실린 사건 전모를 죄다 꿰고 있었던 거야. 영감은 이 일
을 해낸 놈이 분명 신사 행세를 할 수 있는 자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
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영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

는 게 보이더군. 종이칼로도 베어낼 만큼 진한 그 코크니 억양으로 너 스레를 떨었는데도 말이야.

나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애를 썼지. 아주 잘나가는 친구가 따로 있다고 맹세까지 했어. 하지만 내 정체가 탄로 났다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지. 영감은 더는 흥정하지 않더군. 마치 그 값을 치르는 걸 즐기라든 하는 것처럼 내 요구대로 돈을 내놓았어. 하지만 내가 자리를 뜨자마자 영감이 나를 뒤쫓아오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 물론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안 될 게 뭐 있겠어?"

"이보게, 버니. 자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수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그들이 거리를 두거든. 그들이 거리를 두는 동안에는 자네에게도 기회가 있어. 하지만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내비치는 순간, 그때부터는 죽기 살기로 도망치거나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 자네도 절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게. 나는 그저 서둘러 블랙프라이어스 역으로 가서, 목청껏 하이 스트리트, 켄싱턴행 기차표를 예매했지. 슬론 스퀘어 역을 기차가 출발할 때쯤 얼른 올라타서, 가로등 점등부처럼 계단을 쏜살같이 뛰어 올라갔어. 그리고는 뒷골목을 돌아 작업실로 들어갔지.

그래, 만약을 대비해서 오후 내내 그곳에 숨어 있었어. 수상한 기척은 전혀 들리지 않더군. 그 빌어먹을 천창 대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

문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뿐이었지. 어쨌든 주변은 충분히 조용한 것 같았어. 지금까지는 그가 나를 따라올 거라는 건 내 생각일 뿐이었지, 실제로 따라왔다는 증거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제대로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세상에, 거의 곧장 베어드의 품으로 뛰어든 꼴이 되고 말았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를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 버렸어. 실제로도 그랬고 말이야. 그러고는 킹스 로드에서 한섬 택시를 잡아타고는 클럽업 정션까지 미친 듯이 달렸지. 표도 없이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달려가서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열차에 몸을 실었어. 트위케넘에서 내려서 리치먼드까지는 전력 질주로 돌아왔고, 디스트릭트 선을 타고 차링크로스를 거쳐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그고 옷도 갈아입은 다음, 클럽에서 내놓는 최고의 저녁 식사를 할 준비만 하면 돼. 자네가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네에게 먼저 왔어. 같이 가자고, 오래 붙잡아 두지는 않을게."

"정말로 그를 따돌렸다고 확신해?" 우리가 모자를 쓰며 내가 물었다.

"확실히 그렇긴 하네. 하지만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면 더 확실해지겠지." 래플스가 말했다. 그는 내 방 창가로 다가가 잠시 동안 거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괜찮나?" 내가 그에게 물었다.

“좋아.” 그가 말했다. 우리는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서로 팔짱을 낀 채 올리버니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둘은 꽤 침묵을 지켰다. 나는 래플스가 첼시에 있는 작업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할 뿐이었다. 어찌 됐든 그곳은 래플스가 누군가에게 끈질기게 미행당한 장소였으니까. 내게는 매우 시급한 문제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래플스는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우리가 본드 스트리트에서 아는 사이인 한 젊은 한량에게 가볍게 목례를 나눈 뒤에야, 래플스는 딱 한 마디를 덧붙였다. 그 청년은 마침 평판이 나빠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불쌍한 잭 러터 같으니!” 래플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보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지. 술과 빚 때문에 거의 미쳐가고 있더군, 가엾은 친구 같으니라고! 자네, 그 친구 눈을 봤나? 그나저나 오늘 밤 그를 만난 건 참 묘한 우연이야. 듣기로는 올드 베어드가 그 친구를 아주 탈탈 털어먹었다더군. 젠장, 나도 그 올드 베어드 녀석을 아주 탈탈 털어버리고 싶군!”

그의 말투는 갑자기 낮고 격렬한 분노를 띠었다. 뒤이어 이어진 긴 침묵은 그 분노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 침묵은 클럽에서 즐긴 훌륭한 저녁 식사 내내 이어졌고, 우리가 흡연실의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와 시가에 몸을 맡긴 뒤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래플스가 특유의 나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그의 침울한 기분이 끝났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겠지?” 그가 말했다. “일을 어설프게 처리한다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짓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글쎄," 나는 그에게 미소를 되돌려 주며 말했다. "그건 자네 스스로를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은 아니지 않나?"

“글쎄, 잘 모르겠어.” 래플스가 생각에 잠긴 듯 연기를 한 모금 내뿜으며 말했다. “사실 나는 내 걱정보다 그 불쌍한 잭 러터라는 친구 생각이 더 나거든.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도 어설프게 해. 그 친구도 딱 절반쯤 타락했을 뿐이야. 그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에게 휘둘리고 있지만, 우리는 건실한 시민이잖아. 그는 술에 손을 댔지만, 우리는 재정 상태만큼이나 정신도 맑지. 그의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친구가 찾아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처지라고. 게다가 그는 구걸하거나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그건 도둑질을 어설프게 하는 셈이지. 우리는 차라리 대놓고 훔치고 깔끔하게 끝내잖아. 분명 우리 방식이 더 정직한 길이야. 하지만 버니, 나는 확신이 안 서. 어쩌면 우리 역시 일을 어설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요?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낮게 외쳤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누군가 우리 대화를 엿듣지는 않을까 주변을 살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겠어?" 래플스가 말했다. "글쎄, 일단 살인 같은 거 말이야."

"헛소리!"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문제지, 버니. 빈말하는 게 아니야. 전에도 말했잖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아직 들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어도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줄 아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워낙 드무니까 말이야. 한번 상상해 봐! 이곳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야. 아마 살인 사건 그 자체에 대해 떠들고 있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속으로 되새기는 거야. 만약 저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해하면서 말이지! 오, 정말 짜릿할 거야. 그야말로 최고겠지! 게다가 설령 들킨다 해도, 너의 최후는 자비로우면서도 극적일 거야. 몇 주 동안은 세간의 화젯거리가 되어 주목을 받다가, 화려한 특종 기사들과 함께 막을 내릴 테니까. 비열한 안식소에서 7년이나 14년 동안이나 녹슬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런, 역시 래플스답군!" 나는 킁킁거리며 웃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분이 안 좋아 보였던 걸 이제야 좀 용서해 줄 수 있겠어."

"하지만 내 평생 이토록 진심이었던 적은 없었소."

"어서 말해 봐!"

"진심이야."

"자네가 다른 어떤 일은 저지를지 몰라도, 살인만큼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아주 잘 알고 있네."

"오늘 밤, 내가 살인을 하나 저지를 거라는 건 나도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뒤로 기댄 채, 나른하게 내려앉은 눈꺼풀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을 빔내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몸을 앞으로 쭉 내밀었다. 칼집에서 빠져나온 차가운 강철처럼, 그의 눈빛이 내 눈을 꿰뚫듯 달려들었다. 그 서슬 퍼런 시선은 둔한 내 정신을 단번에 파고들었고, 그가 전하려는 의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를 잘 아는 나는 그의 짝 쥔 두 손에서 살의를 읽었다. 굳게 다문 입술에서도 살의를 읽었다. 하지만 저 딱딱하고 푸른 눈동자 속에는 수백 번의 살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베어드라고요?" 나는 입술을 축이며 말을 더듬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첼시의 그 방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를 따돌렸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따돌리지 못했어요. 오늘 저녁 당신에게 올라갔을 때만 해도 제가 한 줄 알았죠. 하지만 당신 창밖을 내다봤을 때 말이에요—기억하시죠? 확실히 해두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요—그때 저 아래 건너편 인도에 그자가 서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일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잖아요!"

"버니, 자네 저녁 식사를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 자네가 내 저녁을 망치게 내버려 둘 생각도 없었네. 하지만 그자가 눈앞에 버젓이 나타났지 뭐야. 당연하게도 그자는 우리를 올버니까지 따라왔고 말이야. 참으로 고약한 수작이지. 그 비열한 심보를 보라고. 나에게는 협박을 하고, 경찰에게는 뇌물을 건네며,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몰아붙이다니. 하지만 나를 상대로 그런 게임을 하게 두지는 않겠네. 그자가 그런 짓을 계속할 만큼 오래 살게 두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갈취범 한 명은 줄어드는 셈이지. 웨이터! 스카치 위스키 두 잔에 소다를 섞어 주게. 버니, 난 11시에 떠나네.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럼 그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군?"

"맞아, 윌레스던 쪽에 혼자 살지. 그 친구가 워낙 구두쇠라 말이야. 그놈에 대해서는 내가 진작에 다 알아냈어."

나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곳은 젊은이들의 클럽이었다. 사방에서 젊은이들이 웃고, 담소를 나누고,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한 남자가 나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나는 마치 기계적으로 그에게 고개를 까딱해 보이고는, 신음 섞인 한숨을 내뿔으며 다시 래플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설마 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건 아니겠지!" 내가 다급히 재촉했다. "자네가 권총을 꺼내 드는 것만으로도 그는 바로 항복할 거야."

"그렇다고 그가 그 약속을 지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 효과를 시험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되겠지. 자, 여기 네 잔이다, 버니. 행운을 빌어줘."

"나도 같이 가겠어."

"당신은 필요 없어."

"하지만 꼭 가야만 해요!"

강철빛 푸른 눈에서 불쾌한 안광이 번뜩였다.

“방해하려고?” 래플스가 되물었다.

"난 아니야."

"약속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버니, 만약 네가 그걸 깨뜨리기라도 하면——”

"당신도 나를 쏠 수 있어!"

"당연히 그래야지." 래플스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러니 제 발로 위험을 자초하러 오는 셈이야, 친구. 하지만 정말 올 생각이라면—뭐, 빨리 올수록 좋아. 가는 길에 내 방에 잠시 들러야 하거든."

5분 뒤, 나는 올버니의 피카딜리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굳이 밖에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었다. 앵거스 베어드가 여전히 우리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희망이자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만약 고리대금업자인 그와 내가 갑작스럽게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그를 처리할 훨씬 즉각적이고도 냉혹하지 않은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위험을 경고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극만큼은 막아낼 작정이었다. 래플스와 내가 월레스턴을 향해 길을 떠날 때까지도, 그런 마주침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나는 여전히 진심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다. 할 수 있는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 했지만, 원한다면 약속을 어겨도 좋다는 생각,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위안해 주었다. 아, 슬프게도 나의 선한 의도는 집어삼킬 듯한 호기심에 물들어 있었다. 공포와 늘 함께 다니는 그 기묘한 매혹이 내 마음을 덮어버린 것이다.

그 집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가슴 저릿하게 기억한다. 우리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를 가로질러 걸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다리 위에서 밝게 빛나다 물결 위로 번지는 불빛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월레스턴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며 우리는 몇 분간 머물러야 했다. 열차는 11시 21분에 출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래플스는 그 열차가 켄살 라이스까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언짢아했다. 결국 우리는 월레스턴 정전에서 내려 길을 따라 걸어야 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꽤 탁 트인 외곽 지역까지 한참을 걸어 들어갔다. 그 집은 결국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시계가 자정

을 알리는 종을 울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숲과 들판 사이의 어두운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설마," 내가 말했다. "그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지는 않겠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군." 래플스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럼, 정말로 침입할 작정인가요?"

"그럼 또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내 마음은 이미 궁극의 범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좀도둑질 따위는 사소한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일도 아니었다. 나는 몇 가지 명백한 문제점을 떠올렸다. 그 남자는 전문적인 빈집털이범들과 그들의 수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분명 충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방아쇠를 당길 인물이었다.

"더 바랄 것도 없네." 래플스가 말했다. "그럼 정정당당하게 맞붙어 보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운명에 맡기는 거야. 내가 비겁한 수법을 정정당당한 승부보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하지만 그자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죽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끝장인니까."

"이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지!"

"그러니 거기 가만히 계시게, 이보게. 자네는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여기가 바로 그 집일세. 그럼 이만 작별하게."

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밤의 어둠 속에 홀로 솟아오른 높은 담벼락의 모서리만 보일 뿐이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된 성벽 위로는 별빛이 번뜩였다. 담장에는 가시 돋친 긴 초록색 대문이 달려 있었는데, 새로 닦은 도로 위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비추자 마치 공성퇴를 맞이하려는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길은 공사 중인 부지들뿐인 것 같았고, 오직 이 집 한 채만이 길 끝에 외로이 지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밤이 너무 어두워 그저 막연한 느낌일 뿐이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이미 낮에 그곳을 살펴본 터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장애물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코르크 마개들을 가시 돋친 울타리 위로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접어둔 코트까지 그 코르크들 위에 덮어 씌웠다. 래플스가 몸을 일으키자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대문 위로 작은 슬레이트 조각들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솟아올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울타리를 넘어오려고 몸을 비틀며 올라올 때 나는 앞으로 달려 나갔다. 래플스가 코트를 잡아당기자, 나는 코르크와 코트, 그리고 가시 돋친 울타리 위로 내 몸의 무게를 실어 눌렀다.

"결국 오기로 한 건가?"

"물론이지!"

“그러니 조심하게. 온통 벨 와이어와 스프링으로 가득한 곳이니까.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자,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보게. 내가 코르크 마개를 뽑을 테니.”

정원은 아주 작고 새로 조성된 상태였다. 잔디는 아직 낱알의 덩어리로 나뉘어 있었지만, 흙이 채 다져지지 않은 화단에는 다 자란 월계수 나무들이 잔뜩 심겨 있었다.

"그 자체로 훌륭한 종소리군." 래플스가 속삭였다. "이만큼 바스락거리는 건 이것뿐이야. 정말 영리한 녀석이라니까!"

우리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살금살금 움직이며, 월계수 나무들을 멀찍이 피해 갔다.

"그분은 이미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버니. 내 생각엔 그가 우릴 본 것 같아."

"왜지?"

"불빛을 봤어요."

"어디 말인가?"

"아래층에서요, 잠깐, 제가—"

그의 속삭임이 잦아들었다. 그가 다시 그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빛 막대기 같은 빗줄기가 현관문 아래로 스며들더니 이내 사라졌다. 문턱 아래로 금실 같은 빛이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영영 자취를 감추었다. 계단이 끼익, 끼익 소리를 내며 올리더니 이내 완전히 멎었다. 우리는 이슬에 발이 흠뻑 젖을 때까지 잔디밭 위에 서서 기다렸지만, 더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제 들어갈게." 마침내 래플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본 것 같지는 않아. 차라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이야."

우리는 조심스레 길을 걸었지만, 젖은 밧창에 자갈이 달라붙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유리문이 달린 작은 타일 베란다에 들어서자 자갈 밟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래플스가 처음으로 빛을 발견한 곳도 바로 이 유리창 너머였다. 래플스는 이제 유리창 한 면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늘 챙기던 소지품인 다이아몬드와 당밀 단지, 그리고 갈색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는 내가 내민 도움을 마치 본능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내 손길을 빌려 작업을 이어갔다. 결국 내 손가락이 당밀을 갈색 종이에 펴 바르고, 다이아몬드가 종이 위를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종이를 유리창에 밀착시키는 일을 도왔다. 마침내 유리창 한 면이 우리 손 안으로 부드럽게 떨어져 내려왔다.

래플스는 손을 집어넣어 열쇠를 돌렸다. 그러고는 팔을 길게 뻗어 문 아래쪽에 있는 빗장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 다행히 빗장은 하나뿐이었다. 문은 아주 활짝 열리지는 않았지만, 틈이 생기며 열렸다.

"이게 뭐지?" 래플스가 말했다. 문턱 바로 아래에서 무언가 발밑에 짓눌리는 소리가 났다.

"안경이네요." 나는 안경을 집어 들며 낮게 속삭였다. 깨진 렌즈와 휘어진 테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래플스가 헉 하는 비명을 내질렀다. 그는 비명을 참으려는 기색조차 없이 휘청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쉿, 제발 좀 조용히 해!" 나는 숨을 죽인 채 애원하듯 속삭였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대답하려는 그의 이가 달그락거렸다. 래플스 본인의 이마저도 말이다. 그가 성냥을 더듬거리며 찾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버니. 그는 우리 말을 듣지 못할 거야."

잠시 후 래플스가 속삭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있던 몸을 일으켰고, 성냥이 다 타들어 갈 무렵 가스등에 불을 붙였다.

앵거스 베어드는 자신의 방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피에 젖은 그의 백발은 떡진 채 엉겨 붙어 있었다. 그 곁에는 끝부분이 검게 번들거리는 부지깥이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 있는 책상은 무언가 뒤진 듯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서는 시계가 요란하게 째깍거렸으나, 그 외에 다른 소리는 백 초 동안이나 들리지 않았다.

래플스는 미동도 없이 서서 죽은 이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맹목적으로 달려온 끝에 마주한 심연을 멍하니 응시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벌어진 콧구멍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외에 다른 기색은 전혀 없었다. 굳게 다문 그의 입술은 마치 봉인된 듯했다.

"저 빛이야!" 내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문틈 사이로 보았던 바로 그 빛이라고!"

그는 깜짝 놀라며 나를 돌아보았다.

"정말이야! 깜빡 잊고 있었어. 처음 본 건 바로 여기였어!"

"그는 분명 아직 위층에 있을 거야!"

"그놈이 맞다면 금방 찾아낼 수 있어. 어서 가자!"

나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간곡히 설득했다. 이제 적은 죽었으니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까지 분명히 휘말리고 말 것이라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 도망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갑작스럽게 화를 내며 내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무모할 정도의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는 원한다면 제 몸 하나 건사하든가라며 내뱉고는 다시 내게 등을 돌렸다. 그 기세에 눌려 나도 정말 그의 말대로 행동할까 고민하며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대체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는지 잊은 것일까? 오늘 밤을 반드시 비극으로 끝내야만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칠 때쯤, 복도에서 그의 성냥불이 확 타올랐다. 곧이어 계단에서는 살인마의 발소리처럼 빠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험을 무릅쓰고도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의 인도주의적 본능이, 조금 더 느긋한 나의 양심에도 전염된 것이다.

살인마를 이대로 놓아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하고 빼걱거리는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가, 계단참에 서 있는 래플스를 뒤쫓았다.

하지만 눈앞에는 세 개의 문이 나타났다. 첫 번째 문을 열자 침구는 내려져 있었으나 흐트러진 흔적은 없는 침실이 나왔다. 두 번째 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방이었다. 세 번째 문은 잠겨 있었다.

래플스가 복도 가스등에 불을 켰다.

"놈이 안에 있어." 그가 리볼버를 장전하며 말했다. "학창 시절에 서재를 털던 거 기억나? 자, 간다!"

그가 발로 열쇠구멍을 강하게 걷어차자 잠금장치가 풀리며 문이 벌컥 열렸다. 갑자기 밀려든 외풍에 복도의 가스등 불빛이 돌풍을 만난 작은 배처럼 기우뚱했다. 불빛이 다시 안정되었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고정된 욕조와 매듭지어진 수건 두 장, 열려 있는 창문, 그리고 몸을 웅크린 어떤 형체였다. 래플스는 문턱에서 경악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잭 러터라고?"

공포가 밀려오자 말문이 막히고 목소리는 느릿하게 떨어 나왔다. 나 자신조차 공포에 질려 그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사이 욕실 창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형체가 서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너희였구나!” 그는 우리만큼이나 경악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너희들이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래플스? 네가 담을 넘는 걸 분명히 봤단 말이야. 그러더니 벨이 울리고, 여기저기서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 그리고 나서 네가 침입했잖아.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말이나 좀 해보게, 러터! 그래야 우리도 자네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것 아닌가!"

“다 했다고요? 제가 뭘 했다는 말입니까?” 불행한 가련한 사내는 충혈된 눈을 깜빡이며 빛이 드는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셔츠 앞자락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정 원하신다면 말씀드리죠. 전 강도를 죽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강도, 고리대금업자, 기생충 같은 놈, 협박범,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악당 중 가장 영악하고 잔인한 놈을 죽였습니다. 그놈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도 좋습니다. 아니, 다시 죽여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타락한 눈빛 속에 서슬 퍼런 반항심을 담은 채 우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결에 가슴이 들썩였고, 굳게 다문 턱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까?”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난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은 지옥 그 자체였어. 자네도 알고 있겠지. 정말이지 끔찍한 지옥이었다고! 아무튼, 오늘 밤 본드 스트리트에서 그놈을 만났어. 자네들 만났을 때 기억나? 그놈은 자네들 뒤로 스무 야드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어. 래플스, 자네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니까. 내가 자네에게 목례하는 걸 보더니, 나를 불러 세워 자네가 누구냐고 묻더군. 도대체 왜 그렇게 안달이 나서 알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으니까. 나는 그놈에게 단둘이 만날 시간을 내준다면 자네에 대해 전부 말해주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놈은 싫다고 하더군. 그래서 내가 옷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반드시 말해주겠다고 우겼어. 내가 그놈을 놓아주었을 때는 이미 자네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지. 나는 그 자리에서 그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때부터 주도권은 내 손에 있었지. 만날 장소도 내가 정했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자네에 대해 다 말해주겠다고 계속 다짐하며 결국 그놈이 나를 자기 집까지 데려가게 만들었어. 자, 여기 도착하자마자 나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떼를 쓰며 시간을 끌었지. 그러다 열 시쯤 되었을 때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 잠시 기다린 뒤에, 그놈이 혼자 사는지 물어봤어.”

“전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하인은 못 보셨습니까?”

“그 여자를 봤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미 가버린 줄 알았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틀렸다면, 분명 부르면 달려왔겠지요. 그래서 목청이 터져라 세 번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달려올 하인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밤 그를 보러 갔을 때, 그가 대문 너머로 직접 저를 상대하며 문은 열어주지 않았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 소리를 다 지르고 나서도 아무도 근처에 오지 않자, 그의 얼굴은 천장만큼이나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드디어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벽난로 받침대에서 부지깽이를 집어

들고는, 그가 나를 어떻게 등쳐먹었는지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다시는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가 나에게 제기한 그 모든 악랄한 요구 사항들을 정리해서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할 시간을 딱 3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놈의 카펫 위에서 머리가 깨져 죽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펜과 종이를 챙기려고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놈이 번개처럼 리볼버를 들고 순식간에 달려들더군요. 저도 앞뒤 가릴 것 없이 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놈은 두세 발을 쏘지만 빗나갔습니다. 원하신다면 총알 자국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년 놈을 제대로 가격했습니다. 세상에, 일이 끝날 때까지 저는 마치 야수 같았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제 미납 고지서를 찾으려고 그의 책상을 뒤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신이 나타난 겁니다.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밤 자수할 생각이었고, 여전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 보시다시피 당신들에게 큰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는 걸 겁니다!”

그는 끝장이었다. 우리는 그 외판 저택의 계단참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낮고 굼직하며 열띤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래층에는 죽은 이가 누워 있었고, 우리 앞에는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살인자가 서 있었다. 그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과연 누구에게 그 뻔뻔한 태도가 통할지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잠시 침묵하던 래플스가 입을 열었다. "전부 헛소리야. 네가 스스로 자수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날 막을 순 없을 거야! 막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여자가 날 봤으니, 잡히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야. 언제 잡힐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는 건 죽기보다 싫어. 생각해 봐,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잡으러 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려야 한다니! 아니, 아니, 절대 안 돼. 그냥 스스로 자수하고 빨리 끝내버리겠어."

그의 말투가 변했다. 말문이 막히고 갈팡질팡하며 허둥댔다. 마치 그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비로소 명확히 깨달은 듯한 모습이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래플스가 간곡히 설득했다. "우리도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비슷한 사정을 해결해 보려고 도둑처럼 몰래 침입하긴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창문 유리를 빼냈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빈집털이범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이면, 진짜 빈집털이범들이 모든 공을 가로채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받을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사히 넘어가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러터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제가 그를 죽였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였지, 살인은 아니었습니다. 자백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저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래플스는 그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이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지금 우리 셋이 여기서 붙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나 해? 6주 뒤면 뉴게이트 형무소에서 셋이 나란히 교수형에 매달릴 거라고! 지금 무슨 클럽에 앉아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어? 지금이 새벽 한 시라는 거, 불은 다 켜져 있고, 저 아래에는 시체가 누워 있다는 거, 정말 모르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너도 죽은 목숨이니까."

“차라리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러터가 흐느끼며 울부짖었다. “그놈의 리볼버를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내 머리에 총을 쏘서 죽어버릴 텐데. 리볼버가 지금 그놈 밑에 깔려 있어. 오, 세상에, 맙소사!”

그의 무릎이 달달 떨렸다. 충격이 가라앉으며 물려온 격렬한 반동이 정점에 달한 것이다. 우리는 그를 사이에 두고 양옆에서 부축해 아래층으로 데려가야 했다. 그렇게 정문을 지나 탁 트인 바깥 공기 속으로 그를 이끌고 나갔다.

밖은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고요했다. 우리 앞에 놓인, 정신을 놓아버린 가련한 자가 억누르며 흐느끼는 소리만 제외하고 말이다. 래플스가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그곳마저 어둠에 잠겼다. 안쪽에서 대문이 열렸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깨진 유

리 조각과 매끄럽게 닦인 가시 돋친 울타리가 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마주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는 탈출했다. 탈출 과정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살인범은 마치 교수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보였다. 범행의 흥분에 취한 그는 술에 취한 장정 여섯 명보다 더 다루기 힘든 존재였다. 우리는 몇 번이고 그를 운명에 맡겨버리자고, 더는 상관하지 말자고 위협했다. 하지만 믿기지 않을 만큼, 그리고 과분할 만큼 운이 우리 세 사람을 도왔다. 월레스턴에 도착할 때까지 길에서 마주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중에 우리를 본 사람들이 설마 우리를 의심했겠는가? 캔설 라이즈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저녁 신문을 통해 온 런던에 퍼졌을 때, 뺨뚫어진 흰색 넥타이를 맨 두 청년이 누가 봐도 만취한 상태인 또 다른 남자를 부축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그저 평범한 광경으로 보였을 뿐이다.

우리는 마이다 베일까지 걸어간 뒤, 거기서부터는 노출된 채로 차를 타고 내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간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올버니로 향했고, 그 후 48시간 동안 나는 래플스를 다시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를 찾아갔을 때도 그는 방에 없었으며, 남겨둔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신문은 온통 그 살인 사건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리고 범인은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배의 삼등석 승객이 되어, 광활한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친구와는 말이 안 통하더라고.” 래플스가 내게 말했다. “자백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나라를 뜨든가 둘 중 하나여야 했어. 그래서 일단 스튜디오에서 그 친구를 변장시킨 다음, 리버풀행 첫차를 탔지. 내가 그 친구 처지였다면 어떻게든 상황을 즐기며 버텨보려 애썼겠지만, 그 친구는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더라고. 뭐, 차라리 잘된 일이야! 서류 몇 장을 없애려고 그 친구의 거처에 갔더니, 세상에, 뭐라고 생각하나? 경찰이 이미 들이닥쳐 있었어. 벌써 체포 영장까지 나왔더군! 그 바보들이 창문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야.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거지. 나중에 영장이 집행된다 해도 내 탓은 아니라고!”

그 세월이 다 흘렀는데도, 그것이 내 탓이 될 거라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나.

법의 아홉 가지 원칙

"자," 래플스가 말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답장을 보내기 전, 나는 광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 맨 마지막 칸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현상금 이천 파운드——위 금액은 까다로운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런던, 시큐리티로 전보를 보내 지원할 것.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말했다. "세상에 나온 광고 중에 이만큼 기가 막힌 광고는 없을 거야!"

래플스가 미소 지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버니. 하지만 확실히 놀라운 일이라는 건 인정하지."

"그 수치를 보게!"

"확실히 크긴 크군요."

"게다가 그 임무와 위험 부담은 또 어떻고요!"

“맞아. 그 조합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아주 대담한 수준이지. 하지만 진짜 기발한 건 전신 주소로 전보를 보내서 신청하게 만든 점이야! 그런 생각을 해낸 녀석에겐 보통내기가 아닌 구석이 있어. 그 수법도 아주 영리하고 말이야. 전보 요금을 낼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조건 하나만으로 매일 광고에 응답하는 수백만 명의 입을 단숨에 막아버렸으니까. 내 답변을 보내는 데 5실링이나 들었어. 그래도 미리 요금을 더 얹어서 보냈지.”

"설마, 지원까지 했다는 말인가요?"

“오히려 그렇지.” 래플스가 말했다. “나라고 해서 돈 이천 파운드가 간절하지 않겠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자기 이름을 직접 쓰겠다고요?"

“글쎄, 아니야, 버니. 그러지 않았어. 사실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불법적인 냄새가 나는 걸 맡았거든. 내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너도

잘 알잖아. 일단 발신인은 ‘콘듀이트가 38번지, 히키 씨 앞, 글래스 폴’이라고 적었어. 히키는 내 재단사야. 전보를 보낸 뒤에 직접 찾아가서 답장이 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부탁해 뒀지. 답장이 오는 즉시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더라고. 만약 이게 그 답장이라 해도 난 전혀 놀랍지 않을 거야!”

그는 바깥문에서 두 번의 노크 소리가 방 안을 울리기도 전에 사라졌다. 그러더니 곧바로 전보를 한 장 들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소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그가 말했다. “그 ‘시큐리티’가 바로 애든브룩이라는 친구거든. 경찰 법원에서 일하는 변호사 말이야. 그런데 그자가 지금 당장 나를 보자고 난리야!”

"그럼,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그가 저를 모른 채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죠. 서튼-윌머 사건 때 아슬아슬하게 법의 경계를 넘나들다가 6주 징역을 살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다들 그가 왜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는 안 당했는지 의아해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덕분에 뒷골목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일류 변호사가 됐더군요. 조금이라도 구린 구석이 있는 악당이라면 죄다 베넷 애든브룩에게 사건을 가져다주니까요. 그런 광고를 낼 만큼 뻔뻔한 사람은 아마 그 사람뿐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의심을 사지 않고 일을 해낼 사람 역시 그 사람뿐이고요. 딱 그 사람 스타일이죠. 하지만 분명 그 밑바닥에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 겁니다. 이상

한 건, 저 역시 만약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애든브룩에게 가겠다고 오래 전부터 마음먹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에게 가려는 건가요?"

"지금 당장 가야지." 래플스가 모자를 털며 말했다. "자네도 어서 움직이게."

"아니,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당신을 끌고 나오려고 온 거야."

"그 친구를 보고 나서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자, 어서 가자, 버니. 가는 길에 네 가명도 정하자고. 내 이름은 글래스폴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베넷 애든브룩 씨는 스트랜드 웰링턴 가에 꽤 큰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리에 없었지만, 마침 건너편 법원 쪽으로 막 나간 참이었다. 5분 정도 지나자, 활기차고 안색이 좋은 결단력 있는 인상의 남자가 돌아왔다. 그는 매우 자신만만하고 다소 유쾌한 분위기를 풍겼는데, 래플스를 보자마자 검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글래스폴 씨 말씀이십니까?" 변호사가 외쳤다.

"내 이름은 말이지." 래플스가 뻔뻔할 정도로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로즈 경기장에서는 안 될걸요!" 상대방이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여보게, 자네가 그동안 위켓을 잡아낸 횟수를 생각하면 절대 실수할 리 없지 않은가!"

찰나의 순간, 래플스의 눈빛에 독기가 서렸다. 하지만 그는 곧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이내 냉소적인 헛웃음으로 변했다.

“결국 내 차례에 당신이 나를 아웃시킨 셈이군?” 그가 말했다.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어. 내 이름으로 생활하기엔 생각보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거든. 그게 전부야. 난 그저 그 현상금 천 파운드가 필요할 뿐이라네.”

"2,000파운드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가명을 쓰는 데 거리낌이 없는 그 사람은, 마침 제가 딱 찾던 유형의 인물이지요. 그러니 그 점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 하지만 이 일은 철저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아주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렇고말고요.”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의 위험은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둘보다는 셋이 낫겠지. 난 그 천 파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여기 내 친구는 나머지 금액을 원해. 우리 둘 다 지독하게 돈이 궁한 처지라, 이번 일은 같이 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하든가 둘 중 하나 뿐이야. 꼭 친구 이름까지 알아야겠어? 버니, 나라면 그에게 진짜 이름을 알려주겠네.”

에든브룩 씨는 내가 가져온 카드를 보고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러더니 손톱으로 카드를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다. 당혹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실, 지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털어놓았다. "당신에게서 받은 답장이 첫 번째예요. 긴 전보를 보낼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 광고를 뒤져가며 서두르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 같은 분들에게서 답장이 올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생각해보니 당신들이 내가 찾는 부류의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군요. 좋은 클럽에 다니는 신사분들 말입니다! 나는 그... 그러니까, 좀 더 모험심 강한 부류에게 호소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우리는 모험가라네." 래플스가 엄숙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검은 눈동자가 영민하게 빛났다.

"우리가 전문적인 악당이라는 뜻이라면, 그건 아니네." 래플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우리 각자에게 천 파운드씩만 준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버니?"

"뭐든지요." 내가 중얼거렸다.

변호사가 책상을 툭툭 두드렸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주죠. 들어줄지 말지는 당신 자유입니다. 불법적인 일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한 불법이죠. 그게 바로 위험 부담이고, 내 의뢰인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시도한 것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할 겁니다.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동의만 한다면, 돈은 이미 당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의뢰인은 에셔, 브롬 홀에 사는 서 버나드 데벤햄 경입니다.”

"그의 아들을 압니다." 내가 말했다.

래플스도 그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못 마땅하다는 듯 나를 향해 눈길을 흘렸다. 그때 베넷 애든브룩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이었다. “자네는 이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애송이 중 한 명을 알고 있는 셈이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지. 자네가 아들을 안다면, 적어도 소문으로라도 그 아버지는 알고 있을 테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가 아주 기이한 사람이라는 말은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겠군. 그는 오직 자기 눈에만 보이는 보물들을 창고 가득 쌓아두고 홀로 살고 있거든. 아무도 그 그림들을 직접 보고 판단한 적이 없지만, 남부 잉글랜드에서 가장 훌륭한 그림들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네. 그림과 바이올린, 그리고 가구 수집이 그의 취미인데,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별난 사람이지. 아들을 대하는 방식 또한 상당히 괴팍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야. 버나드 경은 수년 동안 아들의 빛을 대신 갚아주었네. 그런데 얼마 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빛을

값아주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생활비까지 완전히 끊어버렸지. 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겠네. 하지만 그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게 있네. 아니, 이미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내가 일 년이나 이 년 전쯤 데벤햄이 저지른 작은 사고에서 그를 변호했다는 사실 말이야. 그때 난 그를 무사히 풀려나게 했고, 버나드 경은 내게 사례금도 아주 두둑하게 현찰로 챙겨주었지. 그 후로 지난주 어느 날 전까지는, 그들 부자(父子)에 대해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고 본 적도 없었네.”

변호사는 우리 쪽으로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더니, 양손을 각각 무릎 위에 올린 채 몸을 앞으로 숙였다.

"지난주 화요일에 버나드 경으로부터 전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그를 찾아가라는 내용이었죠. 도착하니 그는 진입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림 전시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더니, 텅 빈 액자 하나를 가리키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입을 열게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액자에 담겨 있던 것이 영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진 그림 중 하나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벨라스케스의 진품이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인 듯합니다. 그 그림은 인판타 마리아 테레사의 초상화로, 작가의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로

마에 있는 교황의 초상화 다음가는 명작이라고도 하더군요. 내셔널 갤러리 사람들은 그 그림의 내력을 줄줄 꿰고 있었고, 저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 그림이 사실상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젊은 데벤햄이 그걸 고작 5천 파운드에 팔아치웠습니다!"

"허, 그 녀석이 정말 그랬단 말이지." 래플스가 말했다.

나는 누가 그것을 샀는지 물었다.

"크래그스라는 이름의 퀸즐랜드 의원이 있었지. 정식 직함을 붙이자면 존 몬태규 크래그스 의원이라네. 지난 화요일만 해도 그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어. 젊은 데벤햄이 그림을 훔쳤다는 사실조차 확실히 알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데벤햄은 월요일 저녁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챙겼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지. 데벤햄은 복수를 하겠다고 협박했고, 바로 이게 그 결과물이었던 거야. 실제로 화요일 밤에 내가 시내에서 그를 찾아냈을 때,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뻔뻔한 태도로 사실을 자백했네. 하지만 그는 구매자가 누구인지 끝내 말해주지 않았어. 그자를 알아내는 데 일주일 내내 매달려야 했지. 결국 알아내긴 했지만, 그 뒤로 아주 고생깨나 했대네! 퀸즐랜드 의원이 머물고 있는 메트로폴 호텔과 에서를 하루에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야 했거든. 협박도 해보고, 제안도 해보고, 빌기도 하고, 애원도 해봤지만, 그중 단 하나도 소용이 없었어!"

“하지만,” 래플스가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건이잖아요? 판매 자체가 불법이었으니, 그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림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동이 일고 추문이 퍼질 게 뻔하니, 제 의뢰인께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초상화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이 신문에 실리는 것만은 막고 싶어 하시죠. 아들을 호적에서 파낼지언정, 아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상화만큼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정당한 방법이든 비열한 방법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되찾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시다. 의뢰인께서는 이 일에 대해 제게 전권을 위임하셨고, 제 생각엔 아마 백지수표라도 내밀 기세입니다. 실제로 퀸즐랜더에게 수표를 건네 보기도 했지만, 크래그스가 그냥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노인네나 이 노인네나 둘 다 보통내기가 아니어서, 두 사람 사이에 끼인 저는 정말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를 신문에 낸 게 당신이란 말이지?" 래플스가 물었다. 면담 내내 유지해 온 그 건조한 말투 그대로였다.

"최후의 수단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저희더러 훔쳐 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참으로 장엄한 일갈이었다. 변호사는 머리끝부터 깃까지 얼굴이 새빨강게 달아올랐다.

"당신들이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네!" 그가 신음하듯 내뿔었다. "당신들 같은 분들을 이런 일에 떠올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말일세! 하지만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훔친 물건을 되찾는 것뿐이라고. 게다가 버나드 경은 그림을 손에 넣는 즉시 그에게 약속한 5천 파운드를 지불할 걸세. 자, 보게나. 크래그스 영감도 버나드 경 못지않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꺼리게 될 거야. 아니, 아니야. 이건 일종의 사업이자, 말하자면 모험 같은 거지. 결코 도둑질이 아니란 말일세."

"법을 언급한 건 당신이잖아." 래플스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게다가 위험까지 따르니까요." 내가 덧붙였다.

"그 대가는 저희가 치룹니다."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해." 래플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보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자네가 말한 그 클럽들 말이야. 거기서 쫓겨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걸세. 평범한 좀 도둑처럼 감옥에 처박히게 되겠지!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는 없어. 판돈을 두 배로 올린다면, 나만큼은 기꺼이 자네 편에 서겠네."

애든브룩은 머뭇거렸다.

"정말 해낼 수 있겠어?"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경험이라니요? 글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고작 4천 파운드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말인가요?"

래플스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가 말했다. "위험 따위야 알 게 뭐가!"

"의뢰인에게 그만큼을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애든브룩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군요."

"진심인가요?"

"정말이고말고!"

"성공하면 3천으로 합시다!"

"애든브룩 씨,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은 4,000파운드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경우엔 한 푼도 없는 걸로 하지요."

"두 배로 걸겠나, 아니면 여기서 끝내겠나?" 래플스가 외쳤다. "좋아, 아주 승부사다운 제안이야. 결정했어!"

애든브룩은 입술을 달싹이며 몸을 반쯤 일으켰다가, 다시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그리고는 래플스를 아주 길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뵈히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나에게서는 눈길을 주지 않은 채였다.

“자네의 볼링 실력은 내가 잘 알고 있지.”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진정한 휴식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로즈 경기장을 찾곤 하는데, 거기서 자네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거든. 그래, 아주 정직한 피치 위에서도 영국 최고의 위켓을 잡아내지 않던가. 지난번 ‘젠틀맨 대 플레이어즈’ 경기도 잊지 않고 있네. 나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자네는 어떤 변칙적인 공도 다 다룰 줄 알더군.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만약 누군가 이 늙은 호주인을 실력으로 압도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자네일 거라고 생각하네. 맵소사, 자네야말로 내게 딱 맞는 적임자야!”

계약은 카페 로열에서 성사되었다. 베넷 애든브룩은 그곳에서 호화로운 오찬을 대접하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다. 당시 그는 몹시 초조하면서도 자유분방한 태도로 샴페인을 들이켰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막대한 압박을 받는 사람 같았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 그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샴페인을 꽤 마셨으니, 분명 그가 체면을 차릴 수 있게 도와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늘 모범을 보이던 래플스는 평소보다도 훨씬 절제하는 모습이었고, 덕분에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엔 영 형편없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는 접시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변호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래플스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던 것도 기억난다. 나는 안심시키려는 눈빛을 보내며 그의 걱정을 덜어주려 애썼다. 식사가 끝날 무렵, 래플스는 잡념에 빠져

있었다며 사과하더니 A.B.C. 열차 시간표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3시 2분 에서행 열차를 타겠다고 말했다.

“애든브룩 씨,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 생각이 따로 있어서 말입니다. 당분간은 혼자만 알고 있고 싶군요. 별 소득 없이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으니, 아직은 두 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버나드 경에게는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명함에 그분께 전할 메시지를 한 줄만 적어주시겠습니까? 물론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내려가 제 이야기를 직접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군요.”

래플스는 언제나 그렇듯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베넷 애든브룩은 꽤나 화를 냈고, 나 역시 그 불쾌한 기분에 적잖이 동조했다. 나는 그저 래플스라는 사람이 워낙 자기 고집이 세고 비밀이 많은 성격일 뿐이라고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 중 그만큼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매번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도 말했다. 변호사가 품고 있을 차가운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해 그 이상의 말까지 꺼내고 싶었지만, 차마 더는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날은 래플스를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러다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전보 한 통이 도착했다.

"내일 정오부터 방에 들어가 있고, 남은 하루 일정은 전부 비워둘 것. -래플스"

그것은 6시 42분에 워털루 역에서 출발했다.

래플스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다. 우리 사이가 좀 더 서먹했던 시절이었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그를 찾아 나섰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보낸 전보의 의미는 명확했다. 그날 밤이나 다음 날 오전에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머지않아 자연히 연락이 올 터였다.

다음 날 한 시쯤 되었을 때, 나는 결국 그를 만났다. 마운트 스트리트에 있는 내 방 창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한 대의 한섬 마차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멈춰 섰다. 그는 마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곧바로 승강기 문 앞에서 그와 마주쳤고, 그는 나를 거의 밀치다시피 하며 내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5분이야, 버니!" 그가 외쳤다. "단 1초도 더는 안 돼."

그는 코트를 거칠게 벗어 던지더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자로 몸을 날리듯 주저앉았다.

"지금 정신없이 바쁘다니까요."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정말 이지 죽을 맛입니다! 제가 한 일을 다 말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어제 점심때 작전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우선 크래그스라는 자와 손을 잡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메트로폴 호텔 같은 곳은 외부에서 침입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그놈에게 접근하느냐였죠. 구실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놈의 그 빌어먹을 그림과 관련된 일이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가 그림을 어디에 두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림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노신사를 대신해 온 대리인 노릇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느라 점심시간 내내 그렇게 찢찢맸던 겁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기 전에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림 복제품을 하나 구할 수만 있다면, 원본과 대조해 보겠다는 핑계로 찾아갈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복제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에서로 내려갔고, 브룸 홀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엔 복제품이 없었지만,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서 버나드 경 본인이 그림을 소유하게 된 이후로 복제품을 두 점이나 만들도록 허락했으니까요. 서 버나드 경이 직접 ‘복제품’을 허락한 셈이죠! 그는 화가들의 주소를 수소문해 주었고, 저는 남은 저녁 시간 내내 화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화가들은 의뢰를 받아 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복제품 하나는 이미 해외로 나갔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추적 중입니다.”

"그럼 아직 크래그스를 못 만난 건가요?"

"그를 만나서 친구가 됐는데, 가능하다면 둘 중 더 재미있는 노인네는 그쪽이야. 하지만 둘 다 좀 살펴둬야 해. 오늘 아침엔 내가 정면 돌파를 좀 했지. 들어가서 아주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야. 그 악질 노인네가 내일 배를 타고 호주로 떠나거든.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 유명한 '인판타 마리아 테레사'의 복제품을 팔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 그림의 원래 주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가 방금 이 사람에게 그림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이야.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노인네 표정을 자네가 봐야 했는데! 그 사악한 노인네가 머리 전체를 실룩거리며 씨익 웃더라고. '그 데벤햄 영감이 판매 사실을 인정했나?'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한 5분 동안은 혼자 킬킬거리며 웃더군.

기분이 아주 좋아졌는지 내가 바라던 대로 행동해 줬어. 그 대단한 그림을 보여주더라고. 다행히 그림이 그리 크지는 않아. 그림을 담아둔 상자도 보여줬지. 브리즈번 땅의 설계도를 가져올 때 썼다는 철제지도 가방이야. 누가 그 가방 안에 거장의 명화가 들어있을 거라고 의심하겠어? 하지만 그가 새로 Chubb(처브) 자물쇠를 달아놓은 상태라, 그가 캔버스를 보며 우쭐거리는 사이 내가 슬쩍 열쇠를 살펴봤지. 손바닥에 왁스를 묻혀서 가져왔으니, 오늘 오후에 바로 복제본을 만들 생각이야."

래플스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벌떡 일어나 외쳤다. 나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이다.

"참, 그리고 말이야." 그가 덧붙였다.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메트로폴 호텔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해야 해!"

"저 말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겁먹은 표정 짓지 말아요. 우리 둘 다 초대받았으니까요. 당신이 나와 함께 저녁을 먹을 거라고 내가 장담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가겠다고 답해 두었지만, 정작 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맑은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함축된 의미와 장난기가 가득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제발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개인 응접실에서 식사를 하게 될 거야.” 래플스가 말했다. “침실이랑 바로 붙어 있거든. 버니, 자네는 그가 최대한 오래 앉아 있게만 들어야 하네. 끊임없이 말을 걸어서 말이야!”

찰나의 순간, 그의 계획이 머릿속을 스쳤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림을 훑치러 가겠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가 듣기라도 하면 어찌려고?"

"그는 못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그런다면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이지 몸이 떨릴 정도였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런다면,” 래플스가 말했다. “그때는 총돌이 일어난 날이야. 메트로폴 호텔에서 리볼버를 꺼내는 건 격에 맞지 않겠지만, 호신용 곤봉 정도는 분명히 챙겨갈 생각이야.”

“하지만 그건 정말 끔찍해요!” 내가 외쳤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로 옆방에서는 범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니요!”

"각자 2천 파운드씩이야." 래플스가 차분하게 말했다.

"내 영혼을 걸고 말하는데, 정말이지 다 들통나게 만들고 말 것 같군!"

"자네는 안 그럴 걸세, 버니. 난 자네 자신보다 자네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썼다.

"몇 시까지 가야 하죠?" 나는 신음 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8시 15분이야. 내가 못 간다는 내용의 전보를 보낼 테니, 그걸 보고 대처해. 그 친구는 말재주가 워낙 대단해서 네가 대화를 이어가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그가 그림 얘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해. 만약 그가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하면, 반드시 가 봐야 한다고 돌려대. 그가 오늘 오후에 아주 공들여서 케이스를 잠가 두었거든. 이쪽 세상에서 그 케이스를 다시 열어야 할 이유는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어디로 가면 자네를 만날 수 있겠나?"

"에셔에 내려갈 거야. 9시 55분 기차를 탈 수 있으면 좋겠군."

“하지만 오늘 오후에 다시 뵈 수 있는 거죠?”

그가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외쳤다.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대로 갔다간 분명히 일을 망치고 말 거예요!”

“자네가 아니라,” 그가 다시 말했다. “시간을 더 지체했다간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할 판이야. 아직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할 일이 산더미거든. 내 방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게. 차라리 마지막 기차를 타고 예서로 직접 내려오는 게 어떤가? 그래, 바로 그거야! 최신 소식을 들고 어서 내려오게나. 데벤함 영감에게 자네가 올 거라고 미리 말해두지. 그가 우리 둘 다 재워줄 걸세. 세상에! 만약 그 영감이 자기 그림이라도 손에 넣게 된다면, 우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 줄지도 모르지!”

"만약이라니!" 그가 작별 인사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신음하듯 내뿔었다. 그는 나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채 떠나버렸고, 나는 마치 무대 공포증에 걸린 배우처럼 한없이 가련하고 무력한 상태로 남겨졌다.

결국 내가 할 일은 정해진 배역을 연기하는 것뿐이었다. 래플스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듯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는 한, 그리고 깔끔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던 래플스가 이번만큼은 서툴고 둔하게 행동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악당 노릇을 하면" 그만이었다.

나는 오후 내내 그 미소를 연습했다. 가상의 대화 속에서 말을 법한 역할들을 미리 리허설해 보기도 했다.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다. 클럽에서는 퀸즐랜드에 관한 책을 뒤적이며 지식을 쌓았다. 마침내 7시 45분이 되었고, 나는 머리 윗부분이 벗겨지고 이마가 뒤로 물러난, 다소 나이 든 신사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그러니까 당신이 래플스 씨의 친구라는 거군요?"

그는 색이 옅고 작은 눈을 번뜩이며 무례하게 나를 훑어보더니 물었다.

"그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좀 일찍 와서 나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타나네요."

그의 전보 역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내 고난은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한 시 이후로 래플스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을 말하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 정중하고 간절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전보가 도착한 것이다. 퀸즐랜드인은 전보를 직접 읽어본 뒤 나에게 건네주었다.

"갑자기 타지로 떠나야 한다더군!" 그가 투덜거렸다. "가까운 친척이 갑자기 병이 났다는 거야! 대체 그에게 가까운 친척이 있기는 한 건가?"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순간 거짓말을 지어내야 한다는 두려움에 움찔했지만, 이내 그의 지인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대답했

다. 그리고 나니 정직하게 말했다는 사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다.

"둘이 아주 절친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그 교활하고 작은 눈에 의심의 빛이 스치고 있었다.

"런던 시내에서만 봤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의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에휴," 그가 툭툭거렸다. "어쩔 수 없지 뭐. 왜 저녁부터 먹고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 저녁을 거르고 임종을 지켜봐야 한다면, 난 도저히 못 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뭐, 어찌겠어. 그 친구 없이 그냥 먹어야지. 결국 제 발로 함정에 빠진 꼴이 되겠군. 저기 벨 좀 눌러줄래? 그 친구가 나한테 무슨 일로 왔는지 혹시 알아? 다시는 못 본다니 참 안타깝네.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난 래플스가 참 좋았거든. 아주 금방 친해졌지. 냉소적인 면이 있더라고. 난 그런 사람이 좋아. 나도 그런 편이니까. 그 친구 어머니나 고모가 정말 못된 사람인 모양인데,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군."

그가 했던 말들을 몇 가지 모아 보았다. 분명 당시에는 앞뒤 맥락이 끊겨 있었을 테고, 여기저기 내 대답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저녁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이어진 대화였지만, 그 말들을 통해 나는 그라는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강렬하게 받았다. 그리고 그 인상은 이후 그가 내뱉은 모든 말에 의해 매번 확인되었다. 그를 알게 된 순간, 그의 식탁에 배신자처럼 앉아 있었다는 죄책감마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는 소위 '어리석은 냉소주의자'라는 무시무시한 부류의 전형이었다. 세상 만사와 사람들을 향해 독설을 내뱉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가 이론 성취라곤 그저 저속한 불경함과 지성 없는 경멸뿐이었다. 교양도 없고 식견도 좁은 그는, 본인 입으로 말하기를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운 좋게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교활함은 물론 악의까지 지니고 있었다. 같은 투기 열풍 속에서 자신보다 눈치 빠르지 못한 투기꾼들이 파산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낄낄거리며 즐거워했다. 지금 생각해도, 의원 J. M. 크래그스 경에게 보여준 나의 비겁한 행동에 대해 딱히 가책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개인적인 고통만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한 귀로는 주인님의 말을 듣고, 다른 한 귀로는 래플스의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으니! 한 번은 정말로 그의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다. 방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구식 접이식 문도 아니었고, 그나마 있는 문조차 굳게 닫힌 데다 두꺼운 커튼까지 쳐져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할 수 있다. 나는 당황하여 와인을 쏟으면서도, 주인님이 던진 무례한 농담에 일부러 목청껏 웃어젖혔다.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웨이터가 마침내 물러가자, 공포가 엄습했다. 크래그스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자기 침실로 달려가 버린 것이다. 나는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부처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그가 말했다. “잘못 들었겠지요. 그냥 제 착각일 겁니다.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네요. 래플스가, 내가 거기서 손에 넣은 엄청난 보물 얘기를 해주던가요?”

마침내 그림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까지 나는 그를 퀸즐랜드에 머물게 하며 돈을 모으는 이야기로만 붙들어 두었다. 이제 그를 다시 그 시절로 돌려놓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손에 넣은 막대한 재산을 떠올리고 만 것이다. 내가 래플스가 방금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배불리 식사를 마친 사람 특유의 친근하고도 수다스러운 태도로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화제에 푹 빠져들었다. 나는 그를 지나쳐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겨우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리상 차마 바로 떠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앉아(우리는 아직 포트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주인장이 그토록 탐내던 물건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두고 "진짜배기이자 정통이며, 쌍축에 이중 연돌을 갖추고 바닥은 구리로 마감된 진정한 명작"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는 어떤 경쟁 정치인보다 한 수 앞서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독백을 요약해서 말하려 해도 그 자체가 고역일 터였다. 그저 그 이야기가 결국 내가 저녁 내내 두려워했던 그 제안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만 전하겠다.

"하지만 직접 보셔야 합니다. 옆방이에요. 이쪽으로 오시죠."

"다 챙겨둔 거 아니었나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자물쇠와 열쇠뿐이야. 그게 전부라고."

"제발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간곡히 말했다.

“문제 따위는 집어치워!” 그가 말했다. “어서 가자고.”

그 순간 깨달았다. 여기서 더 저항해 봤자 발각되기 직전인 이 시점에 나 자신에게 의심만 더 살 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더는 항의하지 않고 그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구석에 놓인 철제 지도 보관함을 먼저 보여주었다. 그는 이 보관함을 꽤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눈치였는데, 걸보기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외관과 처브 자물쇠에 대해 한참 동안이나 떠들어댔 기세였다. 자물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갈 때까지는 영겁의 시간이 흐르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자물쇠 내부의 빗장이 딸각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고, 내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다.

“세상에나!” 내가 곧바로 외쳤다.

캔버스는 지도들 사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자네를 깜짝 놀라게 해줄 물건이라 생각했네." 크래그스가 그림을 꺼내어 내가 잘 볼 수 있게 펼치며 말했다. "대단하지 않은가? 이게 230년 전에 그려졌다는 게 믿어지나? 내 장담컨대, 정말 그렇다네! 늙은 존슨이 이걸 보면 아주 기절초풍할 거야. 그 양반, 자기 그림 자랑하던 것도 이제 쏙 들어갈걸? 이 그림 한 점이 퀸즐랜드 식민지의 모든 그림을 합친 것보다 가치 있다네. 무려 5만 파운드짜리라네, 이 사람야. 그런데 난 이걸 단 5천 파운드에 가져왔지!"

그는 내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속내를 더 털어놓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 표정을 보고 그는 말을 멈추더니 손을 비볐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가 퉁퉁거리며 말했다. "늙은 존슨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차라리 나가서 자기가 그린 그림 틀에 목이라도 매달아 버리라고 하게!"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하늘만이 아실 것이다. 처음에는 안도감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나, 이내 전혀 다른 이유로 입을 떼지 못했다. 새로운 감정의 타래가 내 혀를 푹푹 묶어버린 것이다. 래플스가 실패했다. 래플스가 실패하고 말았다! 나라고 성공할 수 없단 말인가?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럼 이만," 그는 캔버스를 돌돌 말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보며 말했다. "브리즈번에 도착할 때까지는 안녕이라고."

그가 보관함을 닫는 순간, 내 심장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말해주겠는데," 그는 열쇠를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말을 이었다. "그건 배에 있는 금고로 곧장 들어갈 거라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놈의 그 잘난 지도 보관함에 정당한 내용물만 채워서 호주로 쫓아버릴 수만 있다면! 래플스가 실패한 일을 내가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으로 돌아왔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이야기를 늘어놓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위스키 소다를 계속 주문하는 것이 그날의 관례가 되었다. 나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셔댔다. 열한 시가 되기 전에 나는 횡설수설하는 그를 남겨둔 채 자

리를 떴다. 에서로 가는 마지막 기차는 워털루 역에서 열한 시 오십 분에 출발하는 열차였다.

한섬 택시를 타고 내 방으로 향했다. 13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다.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는 비어 있었다. 거실 문턱에 잠시 멈춰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코고는 소리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여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미리 챙겨온 신사의 전용 열쇠가 있었기 때문이다.

크래그스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소파에 길게 누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내 목적에는 충분히 깊은 잠이 아니었다. 나는 미리 가져온 클로로포름을 손수건에 듬뿍 적신 뒤, 그의 입 위에 살며시 덮었다. 두세 번 정도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남자는 이내 통나무처럼 축 늘어졌다.

나는 손수건을 치우고, 그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인버네스 망토 아래 내 몸에 그림을 감아 고정한 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떠나기 전, 위스키에 소다를 섞어 한 잔 마셨다.

기차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잡히는 바람에, 나는 일등석 흡연실에 앉아 십 분 동안이나 몸을 떨었다. 승강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공포로 다가왔고, 끝날 때까지 이유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마침내 진정이 되어 의자에 몸을 기대고 담배

에 불을 붙이자, 워털루 역의 불빛들이 뒤로 멀어지며 흐릿하게 흔들렸다.

극장에서 돌아오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들이 나누던 대화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들은 방금 본 공연이 꽤 실망스러웠던 모양이었다. 최근에 나온 사보이 오페라 중 하나였는데, 사람들은 옛날의 '피나포어'나 '페이션스' 시절을 그리워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중 한 명이 멜로디를 흥얼거리자, 그 곡이 '페이션스'인지 아니면 '미카도'인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서비턴 역에서 내렸고,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잠시 동안 혼자만의 황홀한 시간을 만끽했다. 래플스가 실패했던 일을 내가 해내다니!

우리가 함께 겪은 그 수많은 모험 중에서도 이번 일은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첫 번째 사건이었다. 게다가 수많은 사건을 통틀어 봐도, 이번만큼 체면이 깎이지 않은 일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전혀 아니었다. 그저 도둑놈의 물건을 훔쳤을 뿐이니까. 게다가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힘으로 해냈다. 바로 나, 이 몸이 직접 말이다! *ipse egomet!*

나는 래플스가 보여줄 놀라움과 기쁨을 상상했다. 이제 그는 나를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이전과는 분명 달라지리라. 우리에게 각각 이전 파운드라는 거금이 있었다. 정직한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 덕분이었다!

나는 정신없이 에서 역으로 뛰어 나가, 다리 밑에서 기다리던 마지막 마차를 잡아탔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브룸 홀을 바라보았다. 1층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계단을 올라가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자네인 줄 알았네.” 래플스가 쾌활하게 말했다. “괜찮아, 자네가 쓸 침대도 마련해 두었으니. 버나드 경도 자네와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네.”

그의 밝은 기색은 나를 실망시켰다. 하지만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가장 암담한 순간에 가장 환한 미소를 짓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미 그를 너무나 잘 알기에, 나는 더는 속지 않았다.

"찾았어!" 내가 그의 귀에 대고 외쳤다. "찾았다고!"

"뭘 얻었다고?" 그가 뒤로 물러나며 내게 물었다.

"그 그림 말이야!"

"뭐라고?"

"그 그림 말입니다. 그가 제게 보여줬어요. 당신은 그 그림을 가질 수 없는 처지였죠. 그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에 넣겠다고 결심했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고." 래플스가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망토를 벗어 던지고 몸을 감싸고 있던 캔버스 천을 풀어냈다. 그러는 사이, 행색이 추레한 노신사가 홀에 나타났다. 그는 눈썹을 치켜든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올드 마스터의 작품치고는 꽤나 생생해 보이지 않아?" 래플스가 말했다.

그의 말투가 묘했다. 내가 성공한 것이 못마땅해 질투라도 하는 모양이었다.

"크래그스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제대로 살펴보지는 않았습시다."

"자, 이제 좀 봐. 자세히 보라고. 세상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위조했잖아!"

"가짜예요!" 내가 외쳤다.

"그건 바로 그 복제품이라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제가 그걸 구하려고 전국을 살살이 뒤지고 다녔단 말입니다. 앞뒀면 모두 정교하게 위조한 바로 그 복제품 말이에요. 당신이 직접 보여줬듯이, 그 복제품은 크래그스를 완벽히 속였고 그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걸 훔쳐 가버리다니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해낸 건가?" 버나드 데벤햄 경이 물었다.

"그를 죽었나?" 래플스가 냉소적으로 물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버나드 데벤햄 경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목이 메고 흥분된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야 할 만큼 심정이 격앙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마음은 차츰 진정되었다. 결국 나는 씩씩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을 마쳤다. 래플스가 대체 무엇을 하려 했는지, 나중에라도 꼭 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다.

“다음에 하지!” 그가 즉시 외쳤다. “이보게 버니, 마치 우리가 생계를 위해 도둑질이라도 하러 갈 사람처럼 말하는군!”

“그러지 않을 거라 믿네.” 버나드 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들은 분명 아주 대담한 청년들이니까 말이야. 퀸즐랜드에서 온 그 친구가 말한 대로, 거기 돌아갈 때까지는 지도 케이스를 열지 않기를 바라야겠군. 그 친구는 돌아가면 내가 준비한 수표를 받게 될 테니, 다시는 우리를 번거롭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

래플스와 나는 나를 위해 마련된 방에 들어설 때까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사실 그때는 나 역시 딱히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내 손을 맞잡았다.

“버니,” 그가 말했다. “친구한테 너무 박하게 굴지 말게! 정말이지 정신없이 급했던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걸 제때 얻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건 정말 사실이야. 하지만 자네가 내가 해낸 최고의 일 중 하나를 망쳐버렸으니, 내가 자네한테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군. 그런데 이보게, 자네가 저지른 일 말이야. 솔직히 말해도 되지? 자네가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앞으로는——”

"미래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외쳤다. "앞날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어! 다 때려치울 거라고!"

"나도 마찬가지로야." 래플스가 말했다. "한밑천 제대로 챙기고 나면 말이지."

재대결

다음 해 11월의 어느 어두운 저녁이었다. 피카딜리로 접어들었을 때, 누군가 내 팔을 갑자기 짝 움켜쥐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늘 그렇듯,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닥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개 너머로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래플스였다.

"반갑네!" 그가 말했다. "클럽에서 자네를 한참 찾았네."

"마침 그쪽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하지만 소용없는 시도였다. 그의 미소가 더욱 짙어지는 것과, 나를 너그럽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가로짓는 몸짓을 보니 금세 들켰음을 알 수 있었다.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오게." 그가 말했다. "자네에게 들려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거든."

나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그의 말투만 들어도 어떤 식의 장난을 치려는지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필사적으로 거부해 온 종류의 유흥이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래플스가 마음을 먹으면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 나에게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거부하기 힘든 존재였다.

우리가 버나드 데벤햄 경을 위해 작은 일을 도운 이후로 범죄와는 거리를 두며 살아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 영리하고도 대담한 머리가 범죄를 향해 움직이지 않은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덕분에 우리가 알고 지낸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정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그런 자란을 무색하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나는 앞서 말했듯, 핑계를 대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며 여유롭게 내 팔을 자기 팔 안으로 끌어당겼다. 내가 아무리 반박해도, 우리는 이미 올버니의 그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의 화로 불길의 사그라들어 있었다. 그는 가스등에 불을 붙인 뒤, 화로를 뒤적이며 땀감을 더 넣었다. 나는 그가 내 어깨에서 코트를 벗겨줄 때까지, 코트를 입은 채로 뚱하니 서 있었다.

“정말 못 말리는 친구라니까!” 래플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사람들이 진짜로 내가 오늘 밤에 또 다른 집을 털자고 제안이라도 한 줄 알

겠어! 자, 그런 건 아니니까 버니, 어서 저 의자에 앉게. 그리고 이 설리번 담배나 한 대 피우면서 꼼짝 말고 앉아 있어.”

그는 내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위스키 소다를 가져다주었다. 그러고는 로비로 나갔다.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지려던 찰나,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다. 잠시 후, 그는 다른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팔짱을 낀 채 당혹스러워하는 나를 보며 흡족한 듯 미소 지었다.

"밀체스터 기억나나, 버니? 이보게."

내가 그렇다고 대답할 때 내 어조가 잔뜩 굳어 있었던 만큼, 그의 말투는 더없이 태연했다.

"거기서 예정에 없던 경기를 한 판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신사팀과 선수팀의 대결 말입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네는 말하자면 제대로 한 이닝도 못 치고 끝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기회가 있을까 싶었지. 글썄, 신사팀은 점수를 꽤 넉넉히 냈는데, 선수팀은 죄다 아웃되고 말았어.”

"불쌍한 녀석들 같으니!"

“너무 확신하지 마. 우리 그 여관에서 봤던 남자 기억나? 내가 런던에서 가장 영리한 도둑 중 하나라고 말했던, 얼굴이 붉고 옷을 지나치게 차려입은 그 친구 말이야.”

"그 사람 기억납니다. 이름이 크로세라고 했던 것 같군요."

“글쎄, 어쨌든 그 이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크로세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네. 자네, 그놈한테 동정심 쓸 필요 없네, 친구. 어제 오후에 다트머어 교도소를 탈옥했으니까 말이야.”

"잘했어!"

래플스는 미소 지었지만, 눈썹은 치켜 올라갔고 어깨 또한 따라 으쓱 올라갔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말이지 훌륭한 숨씨였죠. 신문에서 못 보셨다니 의외군요. 어제 황야에 짙은 안개가 깔린 틈을 타서, 우리 착한 크로세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도망쳤거든요.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도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갔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마땅하죠. 그 정도 배짱을 가진 친구라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크로세는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밤새도록 추격대가 뒤를 쫓았지만, 도무지 쥐뿔만큼도 흔적을 찾지 못했거든요. 당신이 아침 신문에 내놓은 건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는 가지고 들어온 《팰 맬》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 좀 들어봐. 탈출 경위를 적은 기록인데, 사건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줄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덧붙여져 있어. ‘도망자는 토트니스로 추적되었으며, 그곳에서 오늘 새벽 아주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해당 교구의 부목사인 A. H. 엘링워스 목사의 숙소에 침입했다. 목사는 평소처럼 일어났을 때 자신의 옷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이후 오전 중에 죄수의 옷이 서랍 바닥에 깔끔하게 접힌 채로 발견되었다. 한편, 크로세는 두 번째 탈출에 성공했으나, 워낙 눈에 띄는 변장을 한 탓에 오늘 중으로 다시 붙잡힐 것으로 보인다.’ 어때, 버니?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

"그는 확실히 스포츠맨이야." 내가 신문을 집어 들며 말했다.

“그는 보통내기가 아니야.” 래플스가 말했다. “그는 예술가야. 정말 부럽다니까. 세상에, 그 부목사가 말이야! 정말 아름다워, 완벽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방금 클럽 게시판에서 봤는데, 도울리시 근처 철도 노선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졌대. 어떤 목사가 선로 사이 통로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군. 또 우리 친구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 전보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 분명 다른 녀석을 때려눕히고는, 또 옷을 갈아입고는 아주 유쾌하게 런던으로 올라온 거라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 내 생각엔 이런 종류의 범죄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봐!”

"하지만 그가 왜 런던까지 온단 말입니까?"

순식간에 래플스의 얼굴에서 열기가 가라앉았다. 동료 범죄자의 범행을 보며 느꼈던 순수한 즐거움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던, 어떤 중대

한 걱정거리가 떠오른 게 분명했다. 그는 대답하기 전, 어깨너머로 로비를 향해 슬쩍 시선을 던졌다.

“내 생각엔 말이야,” 그가 말했다. “그 거지 녀석이 내 뒤를 밟고 있는 것 같아!”

그는 말을 이어가며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여유롭게 즐거워하고, 냉소적일 만큼 태연하며, 상황과 나의 놀라움을 특유의 방식으로 만끽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물었다. “크로세가 당신에 대해 뭘 안다는 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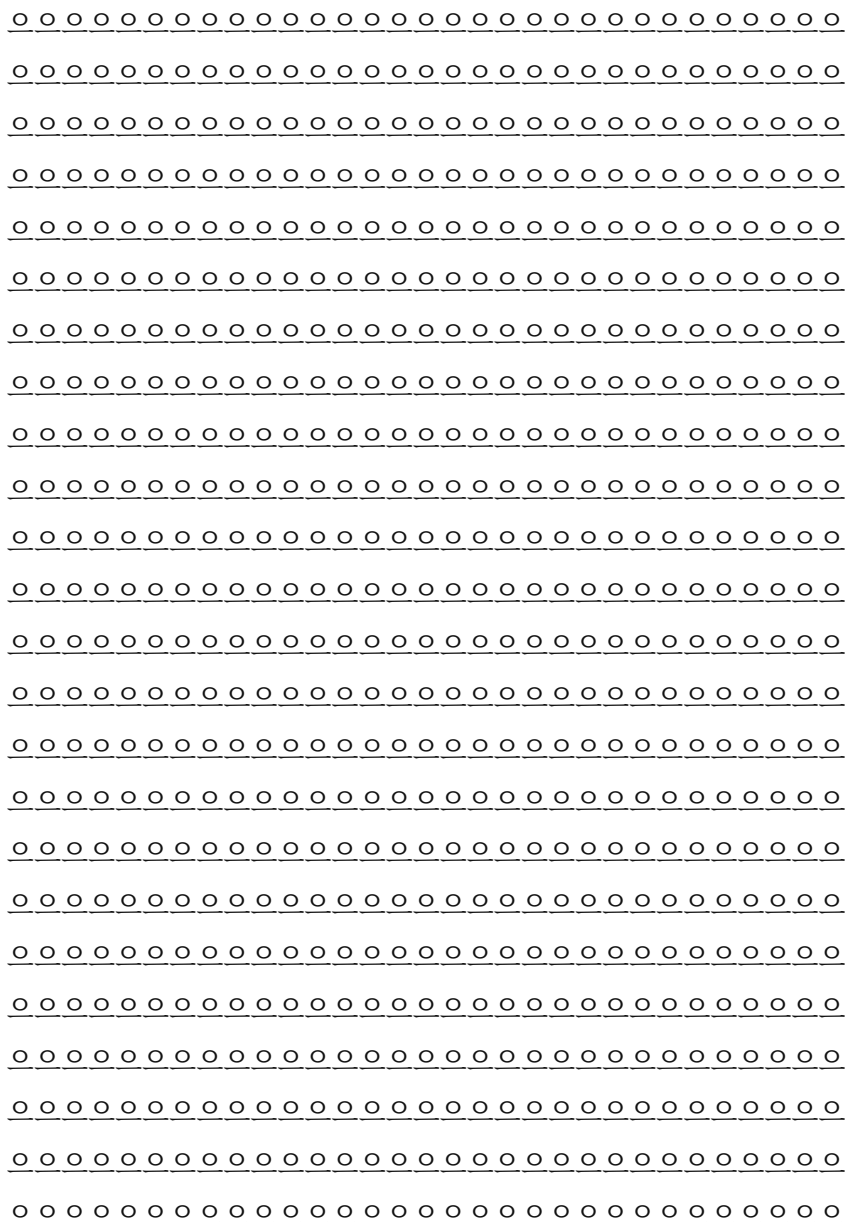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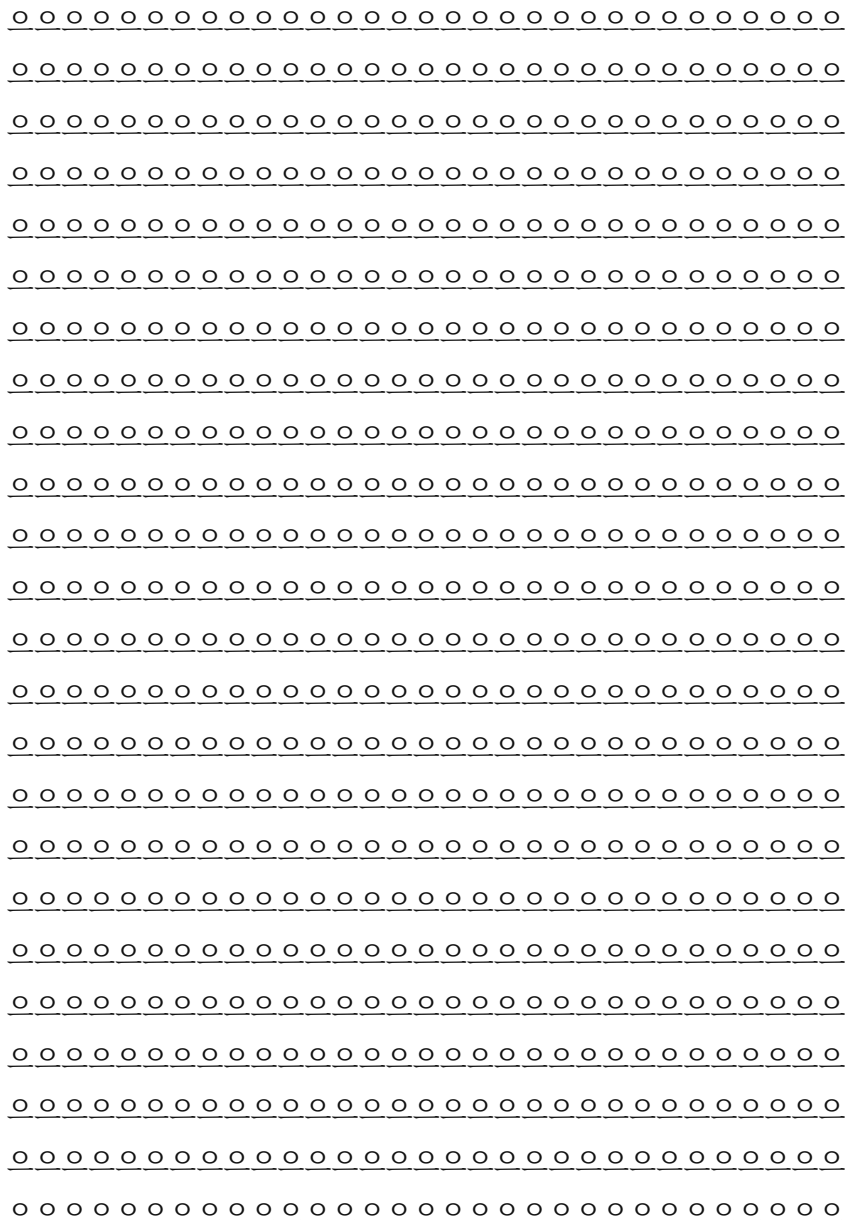
“그가 왜 그래야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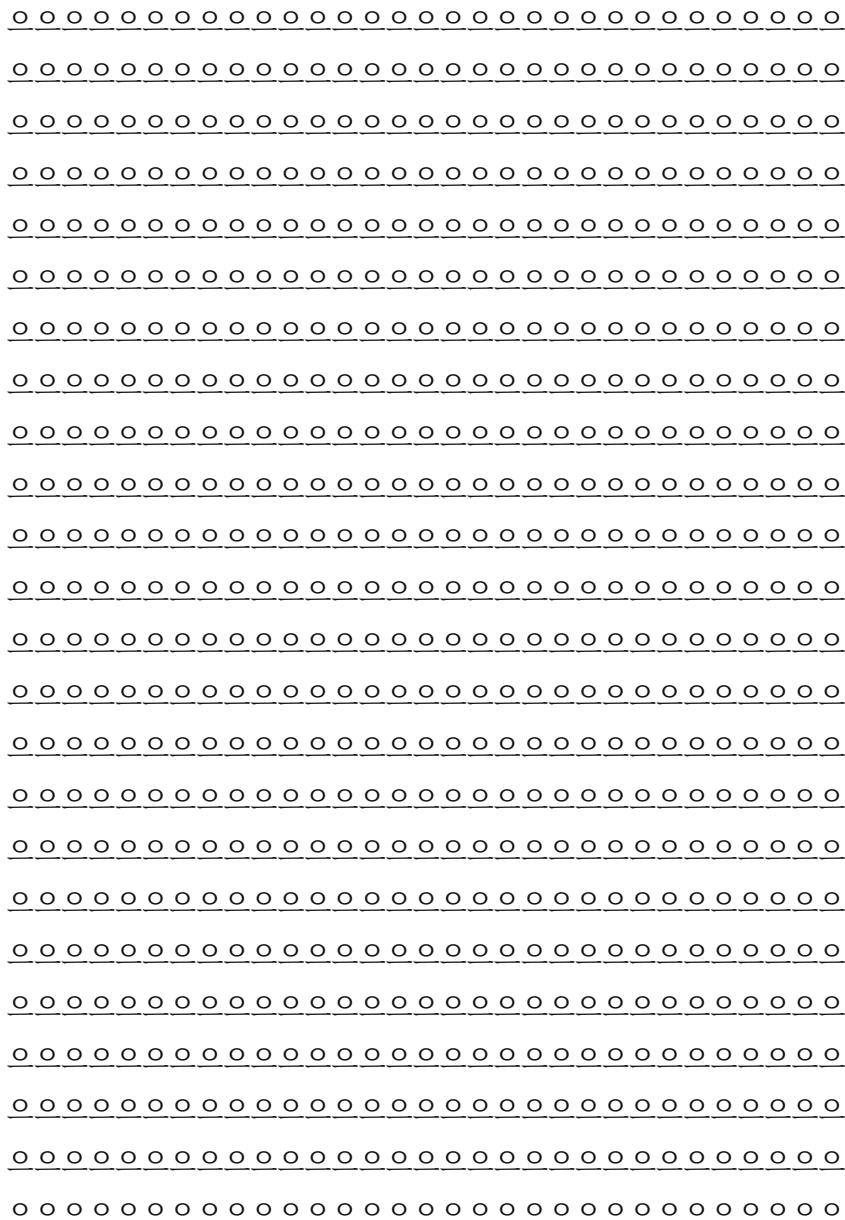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나만큼이나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버니, 그 사람은 눈치가 빠르고 머리도 영리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시내에서 노인 베어드와 함께 있는 나를 본 적이 있거든요. 밀체스터로 가는 길에 들른 술집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크리켓 경기장에서도 분명 나를 봤을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건 확실해요. 재판을 받기 전에 나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말해줬으니까요.”

“그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illegible]







[illegible]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다시 로비를 돌아보았다. 그는 바깥문만큼이나 안쪽 문도 조심스럽게 닫아걸고는, 로비를 어둠 속에 남겨둔 채였다. 나는 그에게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두드리라고 해. 그가 여기까지 올 수만 있다면 말이야. 문지기에게는 내가 도시를 떠났다고 말하라고 일러두었네. 한 시간쯤 지나면 그 말은 사실이 될 테니까."

"오늘 밤에 나가는 거야?"

"리버풀 스트리트 역에서 출발하는 7시 15분 기차를 탈 거야. 버니, 내가 내 식구들 자랑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내 누이들 중 가장 괜찮은 애가 동부 지방의 시골 목사님과 결혼했거든. 그 집 식구들은 항상 나를 반갑게 맞아줘. 내가 교회에 가기만 하면 성경 구절을 낭독하게 해주기도 하고 말이야. 일요일에 내가 내 낭독을 듣지 못한다니 정말 아쉽네, 버니. 그 교구에서 내 인생 최고의 계획들을 몇 가지 세웠거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보다 더 든든한 안식처는 없을 거야. 아무튼 이제 짐을 싸야겠어. 혹시라도 네가 내 뒤를 따라올 생각이 있다면, 내가 어디로 왜 가는지 미리 알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는 피우던 담배꽂초를 화로 속에 던져 넣고는, 몸을 일으키며 기지개를 켜다. 그는 한동안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세로 그대로 서 있었고, 나는 그의 몸에서부터 시선을 올려 얼굴로 향했다. 잠시 후 내 눈은 그의 시선을 따라 방 건너편을 훑었고, 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실과 거실을 나누는 접이식 문턱에는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몸에 맞지 않는 울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그 동작 때문에 그의 매끄러운 머리는 짧은 붉은 머리카락이 뺨뺨하게 들어찬 하나의 원반처럼 보였다.

이 경이로운 환영을 마주한 순간은 짧았지만, 래플스가 평정심을 되찾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내가 다시 그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이미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버니, 이쪽은 우리의 저명한 동료라네. 레지널드 크로세 씨라고 하지.” 그가 소개했다.

그 총알 같은 머리가 불쑥 들렸다. 거칠게 면도한 얼굴 위로 주름진 미간이 드러났다. 그 얼굴은 너무 작은 칼라에 목이 졸린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 무엇도 의식하지 못했다. 이미 나만의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에,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래플스를 몰아세웠다.

“속임수야!” 내가 외쳤다. “또 그놈의 지긋지긋한 속임수라고! 당신은 그를 이곳으로 끌어들인 다음, 이제 나까지 낚으려는 속셈이지? 나 더러 당신 일행에 합류하라는 건가? 꿈도 꾸지 마, 당신 꼴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줄 테니까!”

그 격렬한 외침에 돌아온 시선이 어찌나 차갑던지, 나는 내뱉은 말이 채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정말이지, 버니!” 래플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세상에나!” 크로세이가 소리쳤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나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요. 아주 괜찮은 친구예요. 게다가 당신은 정말이지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는 래플스를 향해 말을 이었다.

“당신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이지 제 취향에 딱 맞는 분이십니다!” 그러고는 덩수룩한 손을 덩석 내밀었다.

"그다음엔요?" 래플스가 그것을 받아 들며 말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미 들으셨겠지요. 당신을 알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들어오신 겁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크로세이가 깃을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그보다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나 이야기합시다. 세상에, 차라리 그게 훨씬 낫겠군!" 황소 같은 그의 목 주위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둘러져 있었는데, 그는 그 부위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다. "언제까지 신사 노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 그가 설명했다. "자네가 누구를 데려올지도 알 수 없었으니까."

"위스키 소다로 드릴까요?"

내가 펄쩍 뛰어 일어났던 바로 그 의자에 죄수가 자리를 잡자, 래플스가 물었다.

"아니, 술은 스트레이트로 마신다네." 크로세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비즈니스부터 얘기하는 게 순서지. 그렇게 쉽게 나를 넘볼 생각은 말라고, 친구!"

"자, 그럼,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 안 해도 다 알 거 아냐."

"이름을 붙여 주게."

“그러니 깨끗하게 내빼는 거, 그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고, 방법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비록 이번엔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우린 전우 아 닌가. 무기 따위는 필요 없어. 자네는 충분히 영리하니까. 하지만 우린 분명 전우야. 자네라면 끝까지 나를 도와줄 걸세. 일단은 그렇게 해두 자고. 자네 방식대로 나를 도와주게나. 모든 건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의 말투에는 달라고 양보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몸을 숙여 맨발에 신겨 있던 단추 부츠 한 켤레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고통스 러운 듯 발가락을 하나씩 펴며, 불길을 향해 발을 뻗었다.

“그것들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로 고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가 말했다. “시간만 좀 더 주셨어도 제가 직접 봐 드렸을 겁니다. 제가 들 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끝까지 말씀 안 해주시겠다는 겁니 까?"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당신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 다고요. 게다가 전 떠날 겁니다. 런던도, 영국도, 이놈의 유럽 전체에 서 벗어나고 싶단 말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전부예요. 당신이 일 을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출신인지는 당신도 알 테지요, 아까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제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 는지도 방금 말씀드렸으니 아실 테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전부 당신 알 아서 하십시오.”

"글쎄," 래플스가 말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겠군."

"그래야만 하네." 크로세 씨가 말했다. 그는 등받이에 편안히 몸을 기대더니, 뭉툭한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다.

래플스가 눈을 반짝이며 나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패어 있었고, 굳게 다문 입술에는 결연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방 안에 우리 둘뿐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상황 파악이 좀 돼, 버니? 우리 친구가 말하는 식대로 표현하자면, 지금 자기가 ‘덜미를 잡혔으니’ 너랑 나한테 다 불어버리겠다는 뜻이야. 대놓고 말하지 않을 만큼 사려 깊은 하지만, 속뜻은 아주 명백해. 뭐, 그 상황에선 당연한 일이지. 나라도 저 친구 처지라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전에는 우리가 유리했지만, 이제는 저 친구 차례니까. 아주 공평한 일이지.

우리는 이 일을 말아야만 해. 거절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만, 설령 거절할 수 있다 해도 난 이 일을 맡을 거야! 우리 친구는 아주 대단한 스포츠맨이거든. 다트무어에서 그 고생을 하고도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저 친구를 해외로 빼돌릴 방법만 찾아낸다면 말이지.”

"마음대로 하게." 크로세이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전부 자네에게 맡기겠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에게 전부 다 말해줘야 해.”

"알겠습니다, 선생. 하지만 전 잠이 부족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가 런던까지 추적당한 것 같나?"

"그랬음이 틀림없어."

"여기는요?"

"이런 안개 속에서는 안 돼. 운만 조금 따라준다면야 안 들켰을 테고."

래플스는 침실로 들어가 가스등을 켰다. 그러고는 곧바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말인가요?"

"뭐, 그런 셈이지."

"어느 것인지 알아맞히다니 정말 대단한 재주야. 안개가 끼었든 아니든, 대낮에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일단 제쳐두자고. 설마 누가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자, 네 말이 맞기를 바라야지. 내가 직접 가서 살펴보고 곧 알아내겠어. 버니, 너도 같이 가는 게 좋겠어. 가서 뭐 좀 먹으면서 이 일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누자고.”

래플스가 나를 바라보는 동안, 나 역시 크로세이를 살폈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크로세의 멍한 표정에는 살기가 서렸고, 놀란 눈동자는 번뜩였으며, 짝 쥐어지는 주먹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난 이제 어찌란 말인가!"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울부짖었다.

"여기서 기다려."

"아니, 절대 안 돼!" 그가 고함을 지르며 단숨에 문에 등을 대고 막아섰다. "너희 같은 뼈꾸기 놈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속일 순 없어!"

래플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저 교수들이란 사람들이란 말이야, 가장 골치 아픈 점이 있지." 그가 말했다. "도무지 머리를 쓰질 않아. 눈앞에 말뚝이 보이면 그저 그걸 때려눕힐 생각만 한다니까. 그게 그들이 보고 생각하는 전부지. 우리도 자기들처럼 그럴 거라고 믿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그들을 골탕 먹인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탄소리하며 돌려 말하지 마!" 죄수가 으르렁거렸다. "똑바로 말해, 이 빌어먹을 놈아!"

"좋습니다." 래플스가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죠. 당신은 내 손에 모든 걸 맡겼다고, 나만 믿고 따라오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나를 눈곱만큼도 믿지 못하고 있군요! 내가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잘 압니다. 그 위험은 내가 감수할 겁니다. 이 일도 내가 맡기로 했고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당신을 배신하고, 결국 당신이 나를 밀고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까? 크로세 씨, 당신이 닥트무어 감옥을 뚫고 나왔을지는 몰라도 참 어리석군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당신을 끝까지 책임 지거나, 아니면 아예 손을 떼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간섭 없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오갈 겁니다. 당신은 그저 여기 머물며 최대한 몸을 낮추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모든 걸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면, 아니, 나를 믿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면, 저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떠들어 보십시오. 빌어먹을!"

크로세이가 제 허벅지를 탁 쳤다.

“그렇지, 바로 그 말씀이야!” 그가 맞장구를 쳤다.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는구먼. 당신을 믿겠소.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투를 들어보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 수 있거든. 당신은 확실해. 저기 같이 있는 다른 양반은 좀 글썽하지만, 지난 번 지방에서 일할 때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걸 본 적은 있거든. 하지만 래플스 씨, 저분이 당신 친구라면 저 사람도 믿어도 되겠지. 그나저나 두 분이 너무 빈털터리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후회 섞인 얼굴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난 그놈들 옷가지나 털러 간 거야." 그가 말했다. "살다 살다 그렇게 지독하게 빈털터리인 놈들은 처음 봤다고!"

"괜찮아." 래플스가 말했다. "우리가 확실히 도와줄게.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기고 넌 가만히 있어."

"웁소!" 크로셰이가 외쳤다. "자네가 떠나고 나면 한숨 폭 자야겠어. 하지만 술은 안 되네. 아니, 고맙지만 아직은 사양하겠네! 한 번이라도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세상에나, 난 그대로 끝장나는 사람이거든!"

래플스는 외투를 챙겨 입었다. 내 기억으로는 길고 가벼운 드라이빙 코트였다. 그가 옷을 입는 동안에도, 우리의 도망자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우리는 가스등을 끈 채, 중얼중얼 헛소리를 내뱉으며 맨발을 난로에 녹이고 있는 그를 뒤로하고 떠났다.

“그 교수 말이야,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 계단을 내려가며 래플스가 말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진짜 천재이기도 하고. 뭐, 내 취향에는 수법이 좀 단순하긴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기술이 전부는 아니지. 다트무어를 빠져나와서 스물네 시간 안에 올버니까지 돌아오는 것, 그 전체적인 흐름이 수법의 미숙함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으니까. 세상에나!”

안개 자욱한 안뜰을 지나던 중 한 남자를 마주쳤고, 그때 래플스가 내 팔을 툭 쳤다.

"누구였지?"

"정말이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야! 제발, 내 목소리를 못 들었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자가 대체 누구야, 래플스?"

"스코틀랜드 야드의 우리 오랜 친구, 매켄지 경위 말이야!"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가 크로세이를 뒤쫓고 있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어. 알아내지."

내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나를 휩 돌려세웠다.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그저 웃으며 속삭였다. 대담하게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언제나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지만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게 아니야. 입 다물어! 매켄지 경위님, 당신인가요?"

형사는 몸을 돌려 우리를 날카롭게 살폈다. 가스등 불빛이 안개처럼 뿌옇게 번지는 사이로 그의 모습이 보였다. 관자놀이 부근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게 세어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수척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그 상처의 흔적 때문이었다.

“여러분께서 저보다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신사 여러분.” 그가 말했다.

"몸은 좀 괜찮아졌나 모르겠군." 동행이 말했다. "내 이름은 래플스라네. 작년에 밀체스터에서 만났었지."

"정말입니까?" 스코틀랜드인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아, 이제야 당신 얼굴이 기억나는군요. 선생님 얼굴도요. 그래요, 그때 참 안 좋은 일이었지만, 결국 아주 잘 해결됐잖습니까. 그거면 된 거죠."

그의 타고난 신중함이 다시 살아난 모양이었다. 래플스가 내 팔을 꼬집었다.

“그래, 자네만 빼면 아주 멋지게 끝난 일이지.” 그가 말했다. “그런데 그 일당의 우두머리, 크로세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된 걸까? 그놈이 그렇게 유유히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응?”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스코틀랜드인이 대답했다.

"잘됐군!" 래플스가 외쳤다. "자네가 다시 그놈의 뒤를 쫓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네!"

매켄지 경위는 메마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안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창문이 열리고, 어디선가 나지막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벼운 저녁 인사를 건넸다.

“끝까지 지켜봐야 해.” 래플스가 속삭였다. “우리가 조금 궁금해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자, 그를 따라 빨리!”

우리는 우리가 나왔던 쪽과 같은 방향, 즉 피카딜리로 향하는 길목의 왼편에 있는 또 다른 입구를 따라 그를 뒤쫓았다. 우리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를 따라갔고, 계단 아래에 다다랐을 때 그곳의 문지기 중 한 명과 마주쳤다. 래플스는 무슨 일이냐며 그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그자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헛소리 마!” 래플스가 말했다. “방금 매켄지 경위와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야. 그 형사가 여기 왜 온 거지? 이보게, 친구. 만약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우리가 굳이 자네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겠네. 그러니 어서 말해 보게.”

그 남자는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라는 듯, 기묘할 정도로 애뒤틀린 표정을 지었다. 위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이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런 식입니다.” 그가 속삭였다. “오늘 오후에 어떤 신사분이 방을 구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안내해 드렸죠. 그러자 직원 중 한 명이 그분을 모시고 다니며 빈 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분이 지금 경찰들이 올라가 있는 그 방에 아주 마음을 빼앗기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쭙볼 게 있다며 직원을 시켜 매니저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돌아와 보니, 세상에, 그 신사분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지 뭐니까! 죄송합니다, 손님. 하지

만 그분은 정말이지 이 건물 어디에서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지기는 눈을 반짝이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래플스가 물었다.

“그게 말입니다, 손님. 사람들이 이리저리 살펴보고 또 살펴봤는데, 결국엔 그 양반을 가망 없다고 포기해 버렸나 봐요. 마음을 바꿔서 점원한테 팁을 안 주려고 작정한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30분쯤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지배인님께 특별판 《스타》지(석간신문)를 가져다드린 게 전부였죠.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지배인님이 쪽지를 들고 급히 뛰어나오시더니, 저더러 그 쪽지를 들고 핸섬을 잡아 스코틀랜드 야드로 가라고 시키셨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정말 여기까지예요, 손님. 정말이라니까요. 지금은 경찰들이랑 형사, 그리고 지배인님까지 다 거기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신사가 아직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적어도 제 생각엔 다들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왜 찾는 건지는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걸!" 래플스가 말했다.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어. 가자, 버니. 분명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야."

"실례지만, 래플스 씨. 제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자네는 좋은 친구야. 만약 이 일이 재미있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절대 잊지 않겠네. 재미라니!” 계단참에 다다르자 그가 속삭였다. “버니, 이건 자네나 나나 전혀 재미없는 일이 될 것 같군!”

"이제 어쩔 셈인가?"

"모르겠어. 생각할 겨를도 없군. 우선 이것부터 봐."

그가 닫힌 문을 향해 호통을 치자, 경찰관 한 명이 문을 열었다. 래플스는 마치 경찰청장이라도 되는 양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그를 지나쳐 들어갔고, 나 역시 그가 경악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뒤따라 들어갔다. 맨바닥의 판자가 우리 발소리에 울려 퍼졌다. 침실로 들어가니 경관들이 순경의 랜턴을 든 채 창틀 쪽으로 몸을 굽히고 모여 있었다. 매켄지 경위가 가장 먼저 몸을 일으키더니,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를 맞이했다.

"실례지만, 두 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우리가 좀 거들고 싶어서 말입니다.” 래플스가 쾌활하게 말을 건넸다. “전에도 한 번 거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을 도와서, 나머지 일당을 전부 밀고한 그놈을 넘겨받아 단단히 붙잡아 둔 게 바로 여기 있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번에 벌어들일 재미있는 구경을 함께할 자격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 말입니다만, 사실 그때는 당신을 집까지 부축해 드린 게 전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친애하는 매켄지 경위님, 부디 저희가 이 흥미진진한 상황을 함께 즐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야 뭐, 어떤 경우라도 몇 분밖에 머물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별로 볼 것도 없겠군." 형사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놈은 여기 위에 없으니까. 순경, 자네는 계단 아래에 가서 서 있게.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네. 이 신사분들이 결국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친절하기도 하시군, 매켄지 경위!" 래플스가 반갑게 외쳤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인가? 내려오다 마주친 문지기에게 물어보긴 했는데, 누군가 이 방에 다녀간 뒤로 행방이 묘연하다는 말 말고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거든."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매켄지 경위가 말했다. "그놈은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몸을 숨겼을 겁니다. 제가 틀렸다면 정말 큰 실수겠지요. 래플스 씨, 올버니에 거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방이 이 근처인가요?"

"두 계단 건너편에 있습니다."

"방금 막 나오셨겠군요?"

"방금요."

"오후 내내 거기 있었던 모양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례를 무릅쓰고 방을 수색해야겠습니다, 손님. 올버니에 있는 모든 방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쫓는 자가 지붕으로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만, 그자가 밖에서 남긴 흔적이 안에서보다 더 많지 않거나 위층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건물 전체를 샅샅이 뒤져야 할 판입니다.”

"내 열쇠를 맡겨 두겠네." 래플스가 즉시 말했다. "지금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하니, 아래층에 있는 경관에게 맡겨 두지."

나는 말문이 막힌 채 숨을 죽였다. 이 미친 듯한 약속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고의적이고, 이유도 없으며,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나는 경악과 혐오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소매를 붙잡기까지 했다. 하지만 매켄지 경위는 가볍게 감사를 표하더니 다시 창틀로 돌아갔다. 우리는 감시를 피하며 접이식 문을 지나 옆방으로 느긋하게 걸어 들어갔다. 이 방의 창문은 안뜰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우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래플스가 나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버니.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하진 않았어.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특히 내 방을 수색할 때 말이야. 그들이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뒤지지 못하게 막아야 해. 자네가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건가요? 설마 나만 혼자 붙잡히게 내버려 두려는 건 아니겠지요?”

“만약 내가 그런다면,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일 거야. 게다가 창문이라는 것도 있잖아. 크로세는 자기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나를 믿어야 해, 버니. 나를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가시는 겁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네. 자네, 꼭 그들 곁에 붙어 있게.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자네를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되네." 그는 잠시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창가에 나를 남겨둔 채 방을 가로질러 갔다.

“이제 가봐야겠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 친구가 남아서 끝까지 지켜봐 줄 거야. 내 방의 가스는 켜두고, 열쇠는 아래층 순경에게 맡겨둘게. 행운을 빌어, 매켄지. 나도 같이 남고 싶지만 아쉽군.”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탄생각에 잠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켄지 경위는 여전히 창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내 창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래플스의 성격과 그의 무궁무진한 수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떤 비상사태가 닥치더라도 래플스가 대략 어떻게 행동할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적어도 그가 특유의 교활함과 대담함을 발휘해 어떤 길을 택할지는 추측할 수 있었다.

그는 아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크로세를 경계시키고, 그를 어디론가 숨겨두려나? 아니, 창문이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래플스는 왜 우리 모두를 버리고 떠나려는 것일까?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다 마지막에 마차를 생각했다. 침실 창문들은 좁은 골목길을 향하고 있었고 높이도 그리 높지 않았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지나가는 마차 지붕 위로 착지한다면, 경찰 코앞을 지나가면서도 유유히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안개 자욱한 밤,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래플스가 마차를 몰고 가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 상상은 래플스가 방으로 향하며 코트 깃을 세운 채 내 창문 아래를 지나갈 때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멈춰 서서 순경에게 열쇠를 건네줄 때까지도 그 잔상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놈의 뒤를 쫓고 있네."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히 지붕 위로 올라갔어. 저 창문에서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말이야. 일단 여기 문을 잠그고 다락방 쪽에서 상황을 살펴볼 작정이네. 그러니 마음이 있다면 자네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거야."

올버니의 꼭대기 층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하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곳은 작은 주방과 칸막이 방들이 어지럽게 모여 있는 구조인데, 래플스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 방들을 창고처럼 쓰고 있었다. 이번에 우리가 머물게 된 별관은 아래층 방들과 마찬가지로 비어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그곳을 짝 채우고 말았으니까. 새로

합류한 지배인과 그가 데려온 또 다른 세입자까지 합세했기 때문이다. 매켄지 경위는 그 광경을 보고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비쳤다.

“차라리 피카딜리 거리 사람들 전부를 한 명당 크라운 동전 하나씩만 받고 들여보내는 게 낫겠어.” 그가 말했다. “이봐, 자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여기 사람 하나라도 줄이게. 그리고 진압봉은 바로 쓸 수 있게 챙겨두고.”

우리는 매켄지 경위가 정성껏 가려놓은 작은 창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1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사이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그을음 묻은 지붕 기와 위를 짓누르며 미끄러지는 경찰들의 군화 소리뿐이었다. 그때,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제 어쩔 셈인가?" 매켄지 경위가 외쳤다.

"갈고리에 매달린 밧줄이 흠통 주둥이에 걸려 있었다는군!"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들,” 매켄지 경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놈이 아래층에서 올라온 방법이 바로 저겁니다! 저 망원경식 지팡이 중 하나를 이용한 모양인데, 전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보게, 밧줄 길이는 얼마나 됐나?”

"아주 짧아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창문 위에 드리워져 있었냐고? 그 점을 물어봐!" 지배인이 외쳤다.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면 충분히 볼 수 있을 테니까!"

매켄지 경위가 다시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답이 돌아왔다.

"네, 그랬습니다."

"창문 몇 칸째인지 물어봐!" 지배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여섯 칸째라고 하더군.”

잠시 후 매켄지 경위가 말했다. 그는 어깨와 머리를 움츠리며 몸을 뒤로 뺐다.

“여섯 칸째 창문에 있는 그 방을 꼭 직접 보고 싶군.”

"래플스 씨입니다." 지배인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마친 뒤 말했다.

"정말입니까?" 매켄지 경위가 외쳤다. "그렇다면 전혀 어렵지 않겠군요. 그가 아래층에 제 열쇠를 맡겨 두었거든요."

그의 말투에는 건조하면서도 무언가 짐작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조차 그 어조가 못마땅했다. 마치 그 우연한 일치 속에서 스코틀랜드인은 이미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읽어낸 듯 보였기 때문이다.

"래플스 씨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모두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배인이 물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네." 매켄지 경위가 말했다.

"정말 확실한가?"

“그가 가는 걸 봤어요.” 내가 말했다. 심장이 무섭게 요동쳤다. 다시 입을 뗀다는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아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행렬의 맨 앞줄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내 인생의 루비콘강이 될 그 문턱을 넘은 두 번째 사람이 되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매켄지 경위가 내 발가락을 세계 짓밟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명은 채 1초도 지나지 않아 더 크고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뀌었다. 방금 일어난 일의 이유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벽난로 앞 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었다. 그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였는데, 하얀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가 눈가로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래 플스였다!

"자살이군요." 매켄지 경위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 여기 부지깽이가 있는 걸 보니 살인 사건 같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아주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다. "심지어 살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겠군요." 그는 무심한 목소리에 약간의 혐오감을 담아 덧붙였다. "저 상처는 그저 살점이 좀 떨어진 수준이라, 저게 치명상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럽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선 클로로포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로 나를 뵈히 응시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가 밖으로 나가는 걸 봤다는 말입니까?" 그가 엄하게 물었다.

"그 긴 드라이빙 코트를 봤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그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지요."

"그게, 열쇠를 건네준 사람도 분명히 똑같은 양반이었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배경에서 들려오는 순경의 낙담한 목소리가 들렸다. 매켄지 경위는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들 같은 빌어먹을 경찰들은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군.” 그가 말했다. “이봐, 네 번호가 뭐야, 이 자식아? P 34? 똑똑히 들어라, P 34 씨! 만약 저 신사분이 내가 말하는 도중에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그대로 죽어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됐을 것 같나? 이 단추 달린 돼지 같은 놈아, 당신은 과실치사 혐의로 잡혀갔을 거야! 당신이 놓친 사람이 누구인지나 알고는 있어, 이 멍청한 놈아? 다름 아닌 크로셰라고! 어제 다트무어를 탈옥한 바로 그놈이란 말이다! 신께서 맹세코 말하는데, P 34, 만약 그를 놓치게 된다면 나는 기어코 당신을 경찰에서 쫓아내고 말 테니까!”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을 붉히며 씹씹거렸다. 마치 차분하던 사람이 불길에 휩싸인 듯한 모습이었다. 매켄지 경위의 그런 면모는 처

음 보았기에, 나는 그 광경을 눈여겨보며 곱씹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더니 그는 다음 순간, 우리 곁을 휙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제 머리를 직접 깨뜨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나중에 래플스가 말했다. "차라리 제 목을 직접 긋는 게 훨씬 쉬워. 클로로포름은 또 다른 문제야. 남들에게 써본 경험이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적정량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은 줄 알았어? 가엾은 버니! 그나저나 매켄지 경위가 네 얼굴을 제대로 봤기를 바랄 뿐이야."

"그랬지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매켄지 경위가 분명히 목격했을 법한 사실들을 전부 그에게 말해주고 싶지는 않았다.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놓치게 두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내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친구. 난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거든. 알다시피, 우린 운명을 같이하는 사이니까."

"이제 크로세와도 운명을 같이하게 됐군." 내가 울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안 해!" 래플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늬은 크로세이는 진정한 스포츠맨이야. 우리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그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줄 거라고. 게다가 이 일로 우린 비긴 셈이잖아. 버니, 내 생각에 우리가 그 교수들을 다시 상대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아."

황제의 선물

식인종의 섬 왕이 빅토리아 여왕을 향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유럽의 한 군주가 그 기행을 찬양하는 전보를 보내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을 때, 영국 사회는 놀라움만큼이나 큰 분노에 휩싸였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지금처럼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하 인사에 이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선물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백인 통치자와 흑인 왕이 동시에 제정신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 선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진주였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 해군이 폴리네시아에서 칼을 휘둘러 탈취했던 그 진주를, 영국 왕실이 이번 기회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며 그 군주에게 증정하기로 한 것이다.

몇 주 뒤라면 이 사건이 언론계에 가뭇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되었을 것이다. 6월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에는 사설과 독자 투고, 커다란 헤드라인과 굵은 활자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데일리 크로니클>지는 문학면의 절반을 섬의 수도를 그린 매력적인 삽화에 할애했다. 하지만 언어유희를 제목으로 내건 <뉴 펄 몰>지의 사설은 정부를 향해 그 섬을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형편은 어렵지만 양심만은 깨끗한 필객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떠오르는 화제에 자극을 받아 풍자시 한 편을 써 내려갔는데, 그 시가 내가 지금까지 쓴 그 어떤 글보다도 좋은 지면에 실리는 행운을 누렸다. 나는 강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며 런던의 아파트를 내놓고, 템스 디튼의 저렴한 숙소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정말 최고야, 친구!” 래플스가 말했다. (그는 꼭 그곳까지 나를 보러 와야만 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노를 저으며 방향을 잡는 동안, 그는 보트에 몸을 뒤로 기대 채 덧붙였다. “이런 일이면 보수도 꽤 짭짤하게 받겠지, 응?”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버니! 보수는 꽤 넉넉히 준다고 하지 않았나? 조금만 기다려 봐. 곧 수표를 받게 될 테니까."

“아뇨, 그럴 순 없죠.” 내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저 합격했다는 영광에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자가 보낸 편지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덧붙였다. 하지만 그 신사에게는 그의 저명한 이름을 정중히 불러 드렸다.

“설마 벌써 돈을 받고 글을 써 본 적이 있다는 건 아니겠지?”

아니었다.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 버린 일이었다. 살인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고, 더 이상 숨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가 돈을 구걸하듯 글을 쓴 건 정말로 돈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꼭 알아야 한다면 말해주겠다. 나는 지독하게 돈이 궁했다. 래플스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나는 참아왔던 비애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갓 데뷔한 프리랜서 작가로서 체면을 유지하며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는,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 쓰는 것도 아니어서 성공하기엔 애매한 수준이었다. 문체에 대해서

도 늘 갈피를 잡지 못해 헛된 고민만 거듭하곤 했다. 시라면 어떻게든 써낼 수 있었지만, 시로는 돈을 벌 수 없었다. 그렇다고 가십거리나 저속한 기사 따위에 고개를 숙이며 글을 쓸 수도, 그럴 마음도 없었다.

래플스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몸을 뒤로 기대며 나를 지켜보았다. 그 미소는 눈가에 잔잔히 남아 있었다. 그는 내가 비굴하게 몸을 굽혔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나도 알 것 같았다. 전에도 워낙 자주 했던 말이라, 이번에도 틀림없이 똑같은 소리를 할 터였다. 나는 이미 대답을 준비해 두었지만, 그는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것에 이미 지친 기색이었다. 래플스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떨어뜨렸던 신문을 집어 들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기 전까지, 나는 햄프턴 코트의 오래된 붉은 벽을 따라 노를 저어 나아갔다.

“이런 걸 써 주고도 한 푼도 안 줬다고? 이보게, 버니. 이건 정말 대단해. 단순히 시로서도 훌륭하지만, 자네가 다루는 주제를 아주 명료하게 응축해서 핵심만 딱 짚어냈잖아. 확실히 나조차도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자네 덕분에 새로 알게 되었어. 그런데 정말 이게 5만 파운드나 할 가치가 있는 건가? 고작 진주 한 알 때문에 말이야.”

"십만 파운드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면 운율이 맞지 않아서요."

"십만 파운드라니!" 래플스는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다. 나는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질지 확신했지만, 이번에도 내 짐작은 틀렸다. "만약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그가 마침내 외쳤다. "도저히 처분할

방법이 없을 거야. 다이아몬드처럼 작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 미안하네, 버니. 내가 깜빡했군!"

황제의 선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란 빈 주머니를 가질 때 더욱 기세등등해지는 법이라, 그 어떤 궁핍함도 내가 래플스에게 기대했던 제안을 끌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기대라기보다 막연한 희망에 가까웠으나,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래플스가 잊어버렸다고 주장하는 화제, 즉 그가 기분 좋게도 '배교'니 '미덕으로의 타락'이니 하며 일컬었던 나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조금은 침묵했고, 조금은 서먹했다. 각자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다. 그 일요일 밤 11시쯤 그를 배웅하며, 나는 이 작별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어질 이별이 될 것만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역의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를 뺨히 응시하는 그 맑은 눈동자들이 보였다. 그 눈과 시선이 마주치자 래플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네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여, 버니.” 래플스가 말했다. “난 이 템스 계곡 쪽은 딱 질색이라니까. 자네는 바람이라도 좀 쐬어야겠어.”

그걸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자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다 여행이야."

“세인트 모리츠에서 겨울을 보낼까요? 아니면 칸이나 카이로를 추천하시나요? 다 좋긴 한데, A. J., 당신은 내가 자금 사정에 대해 말했던 걸 잊으신 모양이군요.”

“아무것도 잊지 않았네. 그저 자네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이보게, 자네도 항해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나 역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니, 자네를 내 손님으로 초대하겠네. 7월 한 달은 지중해에서 함께 보내자고.”

“하지만 당신은 지금 크리켓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크리켓 따위, 집어치워!"

"글쎄요, 당신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면야——"

"당연히 진심이지. 같이 갈 건가?"

"당장이라도 따라가죠—당신이 가기만 한다면요."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누고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들을 일이 없을 거라는, 아주 확신에 찬 기분 좋은 믿음마저 들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고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 주가 지나갈 무렵, 나는 아예 영국을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수입은 전혀 없었다. 내가 살던 아파트를 가구와 함께 이번 시즌 동안 전대해주고 받은 월세와, 내가 원래 내던 월세의 차액으로 겨우 입

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다. 게다가 시즌은 끝나가고 있었고, 런던 시내에는 나를 기다리는 채권자들이 있었다.

사람이 온전히 정직하게만 살 수 있을까?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외상조차 하지 않았건만, 이제 와 보니 차라리 내놓고 부정직한 편이 덜 비굴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물론 래플스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반 주가 흘렀다. 런던 시내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소용없었고, 내가 여전히 다니던 유일한 클럽에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다. 두 번째 수요일 밤이 깊었을 무렵, 나는 내 숙소에서 그가 보낸 전보 한 통을 발견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25분, 노르트도이처 로이드 특급 열차를 타고 워털루 역을 떠나도록 준비하게. 사우샘프턴에서 올란 호 선상에서 티켓을 가지고 자네를 만나겠네. 편지는 곧 하겠네." 그는 전보를 보냈다.

그는 편지를 써 보냈다. 경쾌한 어조였지만, 나의 건강과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성이 가득 담긴 글이었다. 과거의 관계를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질 만큼, 그리고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지금의 황혼기를 생각하면 더욱더 애뜻할 만큼 그런 편지였다. 그는 나폴리행 선실 두 자리를 예약했다고 했다. 목적지는 카프리 섬이었다. 그곳은 분명 '로토파고스(Lotos-eaters)'의 전설이 깃든 섬일 테니,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햇별을 쬔며 "잠시 모든 것을 잊어보자"고 제안했다. 참으로 매력적인 편지였다. 나는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 없으니, 나를 그곳

에 처음 안내하는 영광은 그가 누려야 마땅했다. 여름철에 이탈리아를 가기 불가능한 곳이라 여기는 것만큼 큰 착각도 없을 것이다. 나폴리만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울 것이며, 그는 마치 시적 영감이 절로 샘솟기라도 하는 듯 "쓸쓸하고도 요정들이 사는 땅"에 대해 적어 내려갔다. 다시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독일 선박을 선택한 것이 조금 애국심이 부족한 결정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만큼 저렴한 돈에 걸맞은 세심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선사는 다른 곳에 없었다. 거기에는 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래플스는 전보로 알렸던 대로 브레멘에서 편지를 썼다. 내가 짐작하기로, 그는 그곳 당국에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의 여비를 상당히 깎아낸 모양이었다.

내가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했는지 상상해 보라! 나는 템스 디튼에서 빗을 다 값싸고, 쥐꼬리만 한 수표를 내놓으려 끄공대던 작은 편집자에게 돈을 받아냈으며, 양복점에 밀린 플란넬 슈트 값도 치렀다. 래플스가 항해 중에 피울 설리반 담배 한 상자를 사려고 마지막 남은 소버린 금화를 털었던 기억도 난다. 하지만 그 월요일 아침, 불공평한 여름날 중에서도 가장 화창했던 그 아침, 급행열차가 햇살을 가르며 나를 바다로 실어 나를 때 내 마음은 가벼워진 지갑만큼이나 경쾌했다.

사우샘프턴에 도착하자 텐더 보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래플스는 배에 타고 있지 않았다. 사실 나는 대형 여객선 옆에 다다를 때까지 그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막상 배에 올라타서 그를 찾으려니 허사였다. 난간을 따라 늘어선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손을 흔드는 몇 안 되는 손길 중 그의 손도 없었다.

갑작스러운 중압감이 엄습하며 나는 배에 올랐다. 나에게는 승선권도, 그것을 살 돈도 없었다. 내 객실 번호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 속에서 승무원 한 명을 붙잡고 래플스 씨가 배에 타고 있는지 물었다. 다행히도 그는 타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승무원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느라 바빠서 위치를 알지 못했다. 결국 내가 직접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산책 갑판에도 그는 없었고, 아래층 살롱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흡연실에는 붉은 콧수염을 눈가까지 말아 올린 작은 체구의 독일인 한 명뿐이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래플스의 개인 객실까지 찾아가 확인해 보았다. 다행히 수하물에 적힌 그의 이름을 보고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직 불길한 이유들만이 그 이유로 떠오를 뿐이었다.

"거기 있었군! 배 안을 온통 뒤지고 다녔잖아!"

엄격한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함교(브리지)에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A. J. 래플스를 발견했다. 그는 천창 위에 걸터앉아 장교용 긴 의자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의자에는 흰색 드릴 코트와 스커트를 입은 한 소녀가 기대어 앉아 있었다. 창백한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꽤나 눈에 띄는 눈동자를 가진 가냘픈 소녀였다.

내가 이 광경을 눈여겨보던 찰나, 래플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빨리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그가 보인 표정만이 맴돌았다. 깜

짜 놀란 척 연기하기 직전, 그가 지었던 그 날카롭고도 짓궂은 표정 말이다.

“아니, 버니!” 래플스가 외쳤다. “자네 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건가?”

그가 내 손을 꼬집자, 나는 더듬거리며 무언가 말을 내뱉었다.

“그럼 이 배를 타고 오시는 겁니까? 그것도 나폴리까지요? 세상에, 정말 놀랍군요! 베르너 양, 이분을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그는 전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나를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옛 학교 친구라고 소개하더니, 심지어는 아주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정황과 불필요한 세부 사항까지 덧붙였다. 그 모습에 나는 당혹감과 의심, 그리고 울컥 치미는 반발심을 느꼈다. 나는 우리 둘 모두를 대신해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이었고, 그런 기분이 들든 말든 상관없었다. 말문은 완전히 막혀버렸고, 상황을 수습하거나 태연한 척해 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래플스가 내 입에 억지로 밀어 넣는 말들을 더듬거리며 내뱉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 아주 마지못한 태도로 그 말들을 내뱉었을 것이다.

“승객 명단에서 내 이름을 보고 날 찾아온 건가? 역시 우리 버니야. 그런데 말이지, 내 선실을 같이 썼으면 좋았을 텐데. 산책 갑판 쪽에 아주 근사한 방을 하나 잡아두긴 했거든. 하지만 선사 측에서 방을 혼자 쓰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안 하더라고. 낯선 놈이 밀고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겠어. 어쨌든 우린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

조타수 한 명이 조타실로 들어섰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선사마저 이미 브릿지를 점령한 상태였다.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보조선은 손수건을 휘두르고 날카로운 작별 인사를 내뱉으며 우리 곁을 떠나갔다. 산책 갑판에 있는 베르너 양에게 목례를 건네는 순간, 발밑에서 낮고 느릿한 진동이 느껴지며 우리의 항해가 시작되었다.

래플스와 나의 관계가 처음부터 유쾌하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갑판 위에서 그는 억지로 짜낸 듯하면서도 힘 있는 쾌활함으로 나의 완고한 당혹감을 눌러버렸지만, 그의 선실 안에서 우리는 가차 없이 본색을 드러냈다.

"이 바보 같은 놈!"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놈 때문에 또 들통나게 생겼잖아!"

"내가 어떻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그가 마지막 단어에 섞어 보낸 모욕은 못 들은 척 넘겼다.

"어떻게 말이야? 아무 멍청이라도 내가 우리를 우연히 만나기로 의도했다는 것쯤은 알아챌 수 있을 텐데!"

"표 두 장을 전부 혼자 다 챙기셨으면서요?"

"배에선 그 일에 대해 아무도 몰랐어. 게다가 표를 살 때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결정했으면 진작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계획은 혼자 다 세워놓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 내가 무슨 수로 알아채겠어? 마치 내가 자연스레 눈치채기라도 바란 것처럼 말이야. 네가 무슨 일정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나는 상황을 뒤집어 꽤 효과를 보았다. 래플스는 거의 고개를 떨구다시피 했다.

“사실 말이야, 버니. 자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어. 자네도 참— 나이가 들더니 아주 경건한 토끼가 다 됐군!”

그가 내 별명을 불러준 것과 다정한 말투는 나를 달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외의 다른 일들도 나를 달래는 데 한몫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용서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다.

“글 쓰는 게 겁나서 그랬다면,”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바로 귀땀을 해줬어야지. 그랬다면 난 군말 없이 받아먹었을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고결한 사람은 아니거든.”

내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래플스의 얼굴에 정말로 약간의 수치심이 서려 있었던 걸까? 만약 그랬다면, 그가 내가 아는 수년의 세월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조차 나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던 참이었어.” 그가 말했다. “방에 숨어 있다가 네가 지나갈 때 덮치려고 했지. 하지만—”

"더 즐거운 일에 몰두하고 있었나 보군?"

"그렇지 않다고 말해 봐요."

"그 매력적인 베르너 양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참 매력적이야."

"대부분의 호주 여자애들은 그래요." 내가 말했다.

"그 여자가 호주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어?" 그가 외쳤다.

"그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멍청아!” 래플스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 여자는 너만큼이나 사투리 억양이 없어. 집안도 독일계고 드레스덴에서 학교를 다녔으니, 혼자서 외지로 나가는 길이고.”

"돈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이런, 정말 못 말리겠군!”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바로 화제를 돌려야 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쎄요,” 내가 말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인 척 연기하길 바란 게 고작 베르너 양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분명 그보다 더 깊은 속셈이 있으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군요."

"그렇다면 그게 뭔지 차라리 나한테 말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

래플스는 나를 특유의 신중하고도 예리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그 시선에, 나는 몇 달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마 그 미소는 그를 안심시켰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가 꾸미고 있는 일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도선사의 배에 태워 보내지는 않는 거지, 버니?"

"그건 좀 아니지."

"그럼—자네가 편지에 썼던 그 진주 기억하지—"

그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찾았다!" 나는 외쳤다. 그 순간 선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래플스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폴리에 도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에 넣을 생각이야."

"배 안에 있습니까?"

"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 대체 누가 가져간 거지?"

"콧수염을 수직으로 세운, 아주 건방진 독일군 장교 한 명이었지."

"그를 흡연실에서 봤어."

"바로 그 친구야. 늘 거기 있더라고. 명단을 보면 빌헬름 폰 호이만 대위라고 적혀 있을 거야. 황제의 특사인데, 그 진주를 가지고 출국할 예정이라더군."

"이걸 브레멘에서 알아냈다고?"

"아니, 베를린이야. 거기 아는 신문기자가 한 명 있거든. 버니, 사실은 내가 일부러 베를린까지 갔었다고 말하려니 정말 부끄럽네!"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부끄러워할 것 없네.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일은, 사실 지난번 강가에서 자네가 내게 제안해 주길 내심 바랐던 바로 그 일이니까."

"기대하고 있었다고?" 래플스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실제로 놀란 쪽은 그였고, 실제로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부끄러워해야 할 쪽은 나였다.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 생각에 아주 찬성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먼저 제안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내 말을 들어주었을 거란 말인가?"

물론 그랬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했다. 그렇다고 뻔뻔스럽게 굴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모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처럼 흥분해서 말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다 결국 실패해 버린 사람처럼, 이를 악물고 끈질기게, 그리고 반항적인 태도로 내뱉었을 뿐이다.

그 기회에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절망적인 투쟁과 피할 수 없었던 패배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어쩌면 꽤나 설득력 있게 늘어놓았을지도 모른다. 내 과거가 비록 남이 아닌 내 영혼에만 새겨진 기록일지라도, 나 같은 놈에게 그 투쟁은 절망적이었고 패배는 필연적이었다. 도둑이 정직한 사람이 되려 한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다. 그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결국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래플스는 내 의견에 완전히 반대했다. 그는 나의 상투적인 관점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본성이란 체스판 위의 말과 같았다. 검은색과 흰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한 쪽 색깔로만 통일되기를 바란단 말인가? 무대 위 배우들이나 구식 소설 속 인물들처럼, 왜 한 가지 성격으로만 채워지기를 갈망하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래플스 본인은 판 위의 어떤 칸에 놓이든 즐거워했으며, 오히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결론을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버니, 자네는 엉뚱한 사람들을 붙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똑같은 헛소리를 늘어놓는 저 값싼 도덕주의자들 말이야. 그

중에서도 고대 로마의 버질이야말로 자네들 중에서도 첫 번째이자 최악의 위반자라고 할 수 있지. 나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아베르누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올 자신이 있어. 그리고 조만간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게 되겠지. 내가 스스로를 유한책임회사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은퇴해서 정착한 뒤, 남은 생을 아무런 허물 없이 살 수는 있을 거야. 이 진주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하네!”

"그럼 아직도 팔기에는 너무 눈에 띄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차라리 어장 하나를 통째로 잡아서 잔챙이들과 함께 끌어올리는 건 어떨까? 스쿠너호를 막 팔아치우려던 참에, 몇 달간의 불운을 뒤로하고 말이야. 세상에, 그랬다간 태평양 전체가 떠들썩해질걸!"

"자, 일단 그것부터 손에 넣어야 해. 그런데 그 '폰 뭐시기'라는 친구, 보통내기가 아니야?"

"겉보기보다 훨씬 더 그래요. 게다가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요!"

그가 말을 마칠 무렵, 열린 선실 문 사이로 흰색 드릴 면 스커트가 펄럭이며 지나갔다. 그 너머로 말려 올라간 콧수염이 슬쩍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요? 진주는 분명 사무장이 보관하고 있을 텐데요?”

래플스는 문가에 서서 솔런트 해협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러다 아주 잠깐, 코웃음을 치며 나를 돌아보았다.

"이보게 친구, 배에 탄 선원들이 그만한 보석이 실려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나? 자네 말로는 십만 파운드 가치라더니, 베를린에서는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보물이라더군. 선장 본인조차 폰 호이만에게 그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야."

"그가 정말 지니고 있고요?"

"틀림없이 지니고 있겠지."

"그럼 이제 상대해야 할 사람은 그놈뿐인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답했다. 하얀 무언가가 다시 한번 펄럭이며 지나갔다. 래플스가 앞으로 걸어 나오자, 산책하던 사람들은 이제 세 명이 되었다.

II

노르트도이처 로이드 선사의 울란호보다 더 훌륭한 증기선을 타게 해달라거나, 그 선장보다 더 친절한 신사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혹은 그 장교들보다 더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 점만큼은 인정할 용의가 있다. 나는 이번 항해가 정말 싫었다. 배에 탄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었고, 단조로울 만큼 완벽했던 날씨 탓도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양심과 나는 마침내 결별했고, 그 판결은 번복할 수 없을 만큼 확고했다. 양심이 떠나버리자 두려움마저 사라졌다. 나는 맑은 하늘과 반짝이는 바다 사이에서, 마치 래플스 본인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거움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를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래플스였지만, 비

단 그뿐만이 아니었다. 래플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식민지 출신의 말괄량이 소녀가 함께였다.

그가 그녀의 어떤 면에 매료되었는지는 묻지 않는 편이 좋겠다.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을 품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그가 본 것은 내가 본 것 이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를 괴롭히려고, 혹은 오랫동안 곁을 지키지 않은 나를 벌주려는 듯,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사우샘프턴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내내 이 철부지 아가씨에게만 온 정신을 쏟아부었다.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녔다. 그 모습은 지나치게 황당할 정도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면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되어 밤 열한 시나 열두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그 사이 시간 중 그녀의 코맹맹이 웃음소리나, 그녀의 귓가에 대고 다정하게 실없는 소리를 속삭이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 물론 그 소리들은 전부 실없는 소리였다!

세상 물정에 밝고 여성을 다루는 데 능숙한 래플스 같은 남자가—그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을 써야 할 정도라 일부러 언급하지 않겠지만—그저 정신 못 차리는 어린 여학생과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 가 실없는 소리 말고 무엇이겠는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향해 불공평한 태도를 취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아가씨에게도 장점은 있었다고 이미 인정했을 것이다. 아마 눈매가 정말 예뻐서였고, 갈색빛이 도는 작은 얼굴의 윤곽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을 테니 말이다. 또한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담했

고, 부러울 정도로 건강하며 기백과 활력이 넘쳤다. 이 아가씨가 했던 말들을 일일이 옮길 수는 없다. 옮긴다 해도 도저히 들어줄 만한 내용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녀를 최대한 공정하게 묘사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그녀에게 약간의 편견을 품고 있다. 래플스와 너무 잘 지내는 그녀가 못마땅했다. 그 때문에 나는 하루가 다르게 래플스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참으로 치사한 고백이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질투와도 비슷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른 쪽에서도 질투가 일고 있었다. 그것은 거칠고도 노골적이며,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질투였다. 폰 호이만 대위는 콧수염을 두 개의 침탐처럼 말아 올리고, 반지 위로 하얀 커프스를 쓱 걷어 올린 채, 테 없는 안경 너머로 나를 무례하게 쏘아보곤 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마땅한 처지였으나, 단 한 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다. 대위의 뺨 한쪽에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얻은 흥측한 흉터가 나 있었는데, 나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래플스가 그곳에 있었다면 똑같이 해치워 주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곤 했다.

그렇다고 폰 호이만 대위에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래플스는 그가 한창 기세를 올리려 할 때마다, 일부러 그를 탈락시켜 악의적인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듯 하루에도 몇 번씩 그를 내보내곤 했다. 독일 배에서 독일인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며 내가 짐짓 따져 물을 때면, 래플스는 늘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

"그러다간 배 안에서 미움만 살 거예요!"

"고작 폰 호이만한테나 그러겠지."

"하지만 우리가 골탕 먹여야 할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인데, 과연 그게 현명한 일일까요?"

"내가 한 일 중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지. 그와 어울렸더라면 치명적이었을 거야. 그건 너무 흔해 빠진 수법이니까."

마음이 놓였다. 위안을 얻었고, 용기가 솟았으며, 거의 만족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래플스가 일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되어, 참지 못하고 한바탕 쏘아붙였던 참이었다. 우리는 지금 지브롤터 근처에 와 있는데, 솔런트 해협을 지날 때 이후로 그에게서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아주 많아, 버니. 아주 많다고. 제노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건 일요일 밤이나 되어야 가능한 일이지.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됐고, 우리도 아직 젊잖아.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고."

산책 갑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다. 래플스는 말을 하면서도 앞뒤를 날카롭게 살폈다. 그러더니 이내 목적이 분명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나는 흡연실로 가서 구석진 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폰 호이만도 지켜보았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맥주를 마시러 나타났으나, 이내 다른 곳으로 가서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여름의 흥해로 여행을 떠나는 이는 드물었다. 그래서 울란호의 객실은 무척이나 한산했다. 하지만 산책 갑판에 있는 객실 수는 한정되어 있었고, 덕분에 나는 래플스의 방을 함께 쓰는 핑계를 얻을 수 있었다. 아래층에 혼자 쓸 방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반드시 위층에 머물러야만 했다. 래플스가 내게 이 점을 강력히 밀어붙이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 방을 쓰게 되었다. 딱히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었기에, 다행히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은 채 말이다.

일요일 오후, 나는 아래쪽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소파에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던 래플스가 커튼을 흔들어 나를 깨웠다.

"침대에 처박혀서 아킬레우스처럼 빠져 있다니!"

"그거 말고 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섞어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유쾌한 기운을 알아차린 나는, 나 역시 최대한 그 기분에 맞춰보려 애썼다.

"버니, 다른 걸 하나 더 찾아냈어."

"그렇고말고요!"

"오해하지 말게. 그 애송이가 오늘 오후에 센추리를 만들고 있거든. 난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말이야."

나는 침대 옆으로 다리를 내려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가 앉아 있는 모습처럼, 나 역시 온 신경을 집중한 채 그를 마주 보았다. 안쪽 문은

창살로 된 격자문이었는데, 굳게 닫힌 채 빗장까지 걸려 있었다. 열려 있는 현창(舷窓)처럼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해 지기 전에는 제노아에 도착할 거야.”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일을 저질러야 할 곳은 바로 거기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을 저지르겠다는 건가요?"

"내가 안 그랬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어느 쪽이든, 당신은 별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네, 버니. 즐거운 여행 중에 굳이 일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네. 제노아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거야.”

"육지에서 말인가요?"

"아니, 내일 밤 배 안에서 하자고. 오늘 밤도 괜찮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내일이 더 나아. 만약 폭력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가장 빠른 열차를 타고 도망칠 수 있으니까. 배가 출항하고 나서야 폰 호이만이 죽었거나 약에 취해 있는 게 발견된다면, 그때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죽이면 안 돼요!" 내가 외쳤다.

“물론 아니지.” 래플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도망칠 필요도 없으니까. 하지만 만약 정말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화요일 아침이 적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배는 출항해야 하거든. 물론 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 폭력을 쓴다는 건 스스로 무능함을 자백하는 꼴이니까.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걸 본 적이 있나? 아마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언제든 상대를 죽일 각오 정도는 되어 있었지.”

나는 그에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폰 호이만의 객실로 들어갈 생각인지 물었다. 커튼이 드리워진 어두운 우리 방 안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돌았다.

"내 침대로 올라와 봐, 버니. 그럼 직접 보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래플스는 내 너머로 손을 뻗더니 침대 위 벽면에 달린 환기구를 톡톡 두드렸다. 환기구는 가로 길이가 18인치 정도 되고 높이는 그 절반쯤 되는 일종의 작은 덧문 모양이었다. 그것은 바깥쪽 환기 통로를 향해 열리는 구조였다.

“저게 바로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문이야.” 그가 말했다. “원한다면 열어봐도 좋아. 문이 크게 열리지 않아서 별로 볼 건 없겠지만, 나사 두어 개만 풀면 해결될 문제니까. 보다시피 이 통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어. 목욕하러 갈 때마다 이 밑을 지나가게 되지. 통로 맨 위는 함교에 있는 천창으로 이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제노아에 머무는 동안 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거야.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함교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거든. 우리 방 맞은편 환기구는 폰 호이만 씨의 방과 연결되어 있어. 거기다 나사 두어 개만 풀면 돼. 작업할 때 닫고 설 수 있는 들보도 하나 있고 말이야.”

“하지만 만약 밑에서 누군가 올려다보기라도 하면 어찌죠?”

“아래층에 깨어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하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무모하게 도박을 할 수는 없지. 아니, 네가 거기서 상황을 살피게 둘 순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갑판에는 선원 소년 몇 명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줄 거야. 세상에, 이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가 될 거라고!”

“폰 호이만 씨가 저항하지만 앓는다면 말이지요.”

“저항이라니! 그에게는 그럴 기회조차 없을 거야. 저 친구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잠귀가 아주 어두워. 깊이 잠든 사람에게 클로로포름을 쓰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지. 자네도 예전에 직접 해본 적이 있지 않나? 굳이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건 좀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내가 환기구로 손을 집어넣기만 하면, 폰 호이만은 금세 정신을 잃고 말 거야. 버니, 내 친구! 내가 저 사람 몸 위로 기어 들어갈 테니까!”

“그럼 나는요?”

“자네는 내가 필요한 걸 건네주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상황을 잘 지켜봐 주게나. 그리고 평소처럼 나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면

되고 말이야. 버니, 이건 사치일지도 모르지만, 자네가 손 씻고 점잖아진 뒤로는 이런 도움 없이는 도저히 못 해 먹겠더군!”

그는 폰 호이만 씨가 분명 문을 걸어 잠그고 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래플스는 당연히 그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둘 생각이었다. 그러고는 선실을 뒤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수사관들에게 엉뚱한 단서를 흘려 혼란을 줄 수 있을지,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래플스가 지루한 수색 과정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진주는 분명 폰 호이만 씨의 몸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사실 래플스는 그가 진주를 정확히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도 이미 꿰뚫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그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 대답은 잠시 불쾌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버니. 어느 성경 구절에 나오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네. 성경에 나온다는 것만 확실할 뿐이지. 삼손은 불운한 영웅이었고, 델릴라는 그 이야기의 여주인공이었어.”

그는 아주 다 안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호주 여인이 델릴라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군?” 내가 말했다.

"아주 무해하고 순진한 방식으로 말이지요."

"그 여자가 그의 임무를 알아냈단 말인가요?"

“그래요, 내가 그가 점수를 최대한 따낼 수 있도록 몰아붙였죠. 내 바람대로 그게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고요. 심지어 에이미에게 그 진주를 보여주기까지 했다니깐요.”

"에이미 말인가! 그런데 그 친구가 곧장 자네에게 다 말해버렸단 말이지?"

"전혀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녀에게서 그 말을 끌어내느라 애를 좀 먹었거든."

그의 말투만 들었어도 충분히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 신호를 알아챌 재간이 없었다. 나중이야 나는 그가 왜 그토록 격렬하게 나를 유혹하듯 놀려댔는지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때 나는 스스로 깨달았다는 자만심에 눈이 멀어, 그가 미간을 찌푸리는 것조차 보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질을 해댔을 뿐이다.

“이 영악한 녀석!” 내가 외쳤다. “이제야 모든 게 다 보이네.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말이야!”

"정말이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이제야 알겠군. 일주일 내내 왜 그렇게 답답했는지 말이야. 자네가 그 어린 소녀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 그게 이 게임의 일부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러니까, 겨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노련한 친구 같으니라고, 당연히 알고 말고!"

"그녀가 부유한 자영농의 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인가?"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부유한 여인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내가 아예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서, 저 멀리 오지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 목소리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버니!" 그가 소리쳤다. 그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나는 나도 모르
게 매라도 맞을 듯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그뿐, 더 이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
다.

"하느님만이 아시겠지!" 그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나를 남겨둔 채 자
리를 떴다. 나는 그의 표정과 말투에 놀라면서도, 그가 보여준 반응에
비해 사건의 원인이 지나치게 시시하다는 사실에 더욱 의아해할 뿐이
었다.

III

내가 지켜본 래플스의 수많은 도둑질 중 가장 정교하면서도 난도가 높았던 일은, 화요일 새벽 한 시와 두 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장소는 제노바 항구에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이던 북독일 선사의 증기선 올란호였다.

어떠한 차질도 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모든 상황은 반드시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확신대로 흘러갔다. 아래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갑판 위에는 선상 소년들뿐이었고, 선교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 시 25분, 래플스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자신의 침대 위에 있는 환기구를 통해 발부터 밀어 넣으며 몸을 비틀어 통과했다. 그의 입에는 솜으로 입구를 막은 작은 유리병이 물려 있었고, 귀 뒤에는 작은 드라이버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한 시 41분, 그는 다시 머리부터 환기구를 타고 내려오며 돌아왔다. 입에는 여전히 유리병이 물려 있었는데, 병 안에서 커다란 회색 콩처럼 굴러다니는 내용물이 달그락거리지 않도록 솜을 짝 채워 넣은 상태였다.

그는 나사를 풀었다가 다시 조여 놓았고, 폰 호이만 씨의 환기구를 열었다가 처음 상태 그대로 단단히 닫아 놓았다. 그러고는 곧바로 자신의 환기구를 똑같은 방식으로 조치했다. 폰 호이만 씨의 경우에는, 흠뻑 젖은 솜뭉치를 그의 콧수염 위에 먼저 올려두고 그다음 벌어진 입술 사이에 끼워 넣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 뒤로 침입자가 그의 정강이 위를 이리저리 기어 다녔지만, 그는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드디어 전리품이 눈앞에 나타났다. 헤이즐넛만큼이나 커다란 진주였다. 여인의 손톱처럼 은은한 분홍빛이 감도는 이 보석은, 과거 용병들이 활약하던 시대의 전리품이자 유럽의 황제가 남태평양의 추장에 게 하사한 선물이었다. 모든 상황이 안전하게 정리되자 우리는 냇을 잃고 진주를 바라보았다. 결전의 순간을 앞두고, 우리는 위스키 소다를 곁들여 이 보석을 위해 축배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맞이한 순간은 우리의 가장 낙관적인 꿈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승리감이 넘쳤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진주를 아무도 모르게 숨기는 것이었다. 래플스는 보석을 원래의 세팅에서 조심스럽게 빼낸 뒤, 빈 세팅만 다시 끼워 넣었다. 아무리 철저한 수색을 당하더라도 나폴리에 도착할 때까지 보석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내가 잠자리에 들 무렵, 래플스는 바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그날 밤 곧장 제노바에 내려서 전리품을 챙겨 달아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던 데에는, 나중에 보면 아주 명백해질 수십 가지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땀을 흘리기 전까지는 무언가 발견되거나 의심받은 일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잠든 사이에 클로로포름에 취했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에 남은 흔적을 느끼지 못하거나 수상한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 호이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독일식

모자를 눈까지 눌러쓰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콧수염이 모자 챙에 닿을 정도였다.

열 시가 되자 우리는 제노바를 벗어났다. 푸르스름한 턱을 가진 마지막 관리도 갑판에서 내려갔고, 물을 양동이째 퍼부어 쫓아낸 마지막 과일 장수는 배 위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떠나갔다. 마지막 승객은 아주 마지막 순간에야 배에 올랐는데, 그는 반 리라를 두고 뱃사공과 한참을 흥정하느라 커다란 배를 마냥 기다리게 만든 까다로운 노인이었다.

마침내 배가 출발했다. 예인선도 떨어져 나갔고 등대도 지나쳤다. 래플스와 나는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섰다. 배의 옆면을 다시 적시는, 연한 초록빛의 액체 같은 대리석 무늬 위로 비치는 우리의 그림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폰 호이만은 다시금 기회를 잡은 듯했다. 그가 하루 종일 머물며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시간을 늦추는 것 또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 여인은 지루한 기색이 역력했고 끊임없이 우리 쪽을 힐끗거렸지만, 그는 그 눈길을 놓치지 않고 기꺼이 이용하려 들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고 안절부절못했다. 성공한 사람 특유의 여유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내 생각에는 나폴리에서 곧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그는 내게 말도 걸지 않았고, 그렇다고 나를 보내주지도 않았다.

"거기 서 봐, 버니. 할 말이 있어. 너 수영할 줄 아니?"

"조금요."

"10마일이라고요?"

"십 마일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단 한 마일도 못 가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걸 물어십니까?"

"하루 중 대부분은 해안에서 수영으로 십 마일 이내인 거리에서 머
물게 될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래플스?"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최악의 상황이 오면 헤엄쳐서라도 빠져나갈
생각이지. 그런데 자네, 물속에서 잠수하는 건 전혀 못 하는 모양이
지?"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질문을 듣지도 못했다. 차
가운 식은땀이 피부를 타고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설마 최악의 상황까지 가겠어?" 내가 속삭였다. "우리 들킨 거 아니
지, 그치?"

"아니요."

"그렇다면 왜 마치 우리가 들킨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렇지도 모르지. 우리와 오래된 악연이 있는 놈이 배에 타고 있거
든."

"옛 적부터 알고 지낸 원수 말인가요?"

"매켄지 경위."

"설마!"

"방금 배에 올라탄 수염 난 남자 말이야."

"정말 확실한가요?"

“물론이죠! 저도 당신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들어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보니 그 노인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낯익은 구석이 있었다. 계다가 걸보기 나이치고는 꽤 젊은 기운도 느껴졌다. 이 끔찍한 사실을 깨닫고 다시 떠올려 보니, 그가 기른 수염조차 가짜처럼 보였다. 나는 갑판 위를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게 제일 문제야." 래플스가 말했다. "20분 전쯤에 그가 선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

"하지만 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온 걸까요?"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외쳤다.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가 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래플스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아마 아닐 걸세."

"그럼 그자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몇 주 전부터 그게 걱정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지금 거기 서 있잖아요!"

“이제 어쩌면 좋지? 굳이 해야 할 때가 아닌데 벌써부터 헤엄쳐서 탈출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버니, 차라리 네 조언대로 제노아에서 배를 내렸어야 했나 하는 후회까지 드는군. 하지만 매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배와 역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 추호의 의심도 없어. 그놈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막판에야 올라탄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 거야.”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더니 내게 담배 케이스를 건넸다. 하지만 나는 초조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말했다. “그가 왜 당신을 쫓는 거지? 그 사람이 알기로는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던 보석 하나 때문에 어떤 길까지 찾아왔을 리가 없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단순히 그가 한동안 내 뒤를 쫓아왔다는 뜻이야. 아마 작년 11월에 친구 크로세이가 그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부터였겠지. 다른 징후들도 있었어. 사실 이런 상황에 대비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막연한 의심일 뿐이지. 그가 증거를 가져온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진주를 찾아낸다면 그것도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이게 다 이론일 뿐이라고, 버니? 난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마치 내가 그 스코틀랜드인의 피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잘 알고 있어.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도 알고 말이야. 그는 내가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동기를 찾으려 했겠지. 그러다 폰 호이만과 그의 임무에 대해 알아냈을 테고, 그럼 동기는 아주 명확해지는 거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을 때 나를 붙잡을 아주 좋은 기회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할 거야, 버니. 내 말을 잘 들어둬. 도난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배를 살살이 뒤지고 우리 모두를 수색하겠지만, 결국 헛수고만 하게 될 테니까. 아, 선장이 저 애송이를 자기 선실로 부르고 있네. 5분 안에 큰 소동이 벌어질 거야!”

하지만 화재도, 소란도 없었다. 승객들을 뒤지는 일도,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동이 일어나는 대신 불길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래플스가 자신의 예측이 모두 빗나간 것에 적잖이 당황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토록 큰 사고가 터졌는데도 침묵이 흐르는 것은 무언가 불길한 징조였다. 매켄지 경위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동안 그 정적은 몇 시간이나 이어졌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그는 외출 중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 객실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래플스의 침대에 책을 두고 왔는데, 점심을 먹고 책을 가지러 가다 이불을 만지고 말았다. 이불은 방금 전까지 사람이 누워 있었던 듯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환기창으로 달려

갔다. 내가 환기창을 열자마자, 맞은편에 있는 환기창이 덜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나는 래플스를 불러 세웠다. "좋아! 진주를 찾는 건 그놈에게 맡기자고."

"그걸 바다에 던져버렸나?"

"그 질문에는 대답해 줄 마음이 없소."

그는 발길을 돌려 떠났다. 그 후로도 그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존재, 버너 양과 함께 마지막 오후를 만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날 그녀는 갈색 홀랜드 직물로 만든 아주 단순한 차림이었는데, 피부색과도 잘 어우러졌고 곳곳에 붉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깔끔해 보였다. 그날 오후 나는 그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 눈매도 참 좋았고 치아도 고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녀를 이토록 깊이 눈여겨본 적은 이전에는 없었다. 래플스에게 말을 걸기 위해 그녀의 곁을 몇 번 이고 지나쳐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곧 위험이 닥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래플스는 내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에 그를 본 곳은 선장의 선실이였다.

그들이 먼저 그를 불렀다. 그는 웃는 얼굴로 방에 들어갔고, 나를 부를 때도 그는 웃고 있었다. 지휘관의 방답게 선실은 넓고 쾌적했다. 매켄지 경위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윤이 나는 탁자 위에는 그의 수염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선장 앞에는 리볼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나를 부른 일등 항해사가 문을 닫더니, 문을 등지고 섰다. 폰 호이만은 손가락으로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래플스가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거 정말 대단한 농담이군!” 그가 외쳤다. “버니, 자네가 그렇게 탐내던 그 진주 기억나나? 황제의 진주 말이야.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그 진주! 알고 보니 그 진주를 여기 있는 우리 작은 친구에게 맡겼다더군. 캐누들 덤으로 가져가라고 말이야. 그런데 불쌍한 이 친구가 그만 진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 우리 같은 영국인들이 진주를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난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소.” 매켄지 경위가 자기 턱수염을 톡톡 치며 거들었다.

“저 충성스럽고 애국심 넘치는 목소리가 들리면 바로 알아챌 거야.” 래플스가 말했다. “이봐, 버니. 저건 우리 옛 친구 매켄지라고. 스코틀랜드 야드와 스코틀랜드 그 자체를 대표하는 양반이지!”

“그거면 됐다!” 선장이 외쳤다. “순순히 수색에 응하겠나, 아니면 내가 강제로 수색해야겠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오늘 새벽, 폰 호이만 대위의 개인실에 침입해 그 빌어먹을 진주를 훔쳐 갔다고 몰아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밤새 제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요.”

"당연히 할 수 있고말고요." 내가 분개하며 말했다. "배의 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증언해 줄 겁니다."

매켄지 경위는 웃음을 터뜨리며, 매끄럽게 닦인 마호가니 가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참으로 영리한 수법이었소." 그가 말했다. "내가 배에 올라타지만 앉았어도 아주 잘 먹혀들었을 텐데 말이오. 하지만 방금 환기창들을 좀 살펴봤더니, 당신이 어떻게 일을 꾸렸는지 알 것 같구려. 뭐, 어쨌든 선장, 그건 이제 상관없소. 이 젊은 친구들에게 일단 수갑이나 채워주고 나서 그다음엔——"

"무슨 권리로 이릅니까!" 래플스가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포효했다. 그의 얼굴이 그토록 격앙된 모습은 나도 본 적이 없었다. "원하신다면 마음껏 뒤져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옷가지 하나, 실밥 한 올까지 살살이 뒤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장도 없이 감히 우리 몸에 손을 대다니요!"

"감히 그러지는 못할 걸세." 매켄지가 가슴 주머니를 더듬으며 말했다. 그 순간 래플스도 자신의 주머니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손목을 잡아!" 스코틀랜드 출신인 매켄지가 소리쳤다. 그동안 수많은 밤을 우리와 함께했으나 내 귀에는 단 한 번도 발사된 적 없던 거대한 콜트 권총이 탁자 위로 요란하게 떨어졌고, 캡틴이 재빨리 그 권총을 낚아챘다.

“좋아, 됐어.” 래플스가 일등 항해사에게 사납게 내뱉었다. “이제 그만 놓아줘.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 테니까. 자, 매켄지 경위, 영장 좀 봅시다!”

"그거 함부로 다루지 않을 거지?"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디 좀 보자.” 래플스가 단호하게 말하자, 형사는 그 말에 따라 서류를 내밀었다. 래플스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입매가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갑자기 풀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서류를 돌려주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매켄지 경위가 물었다.

“그렇지도 모르지. 축하하네, 매켄지 경위. 어쨌든 아주 강력한 증거야. 절도 사건 두 건에 멜로즈 목걸이까지, 버니!” 그는 나를 향해 유감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증명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지." 스코틀랜드인이 영장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까닥이며 덧붙였다. "자네한테도 이런 게 하나 있네. 다만 이것만큼 길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내 배가 도둑놈들의 소굴로 전락하다니!" 선장이 책망하듯 말했다.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건딜 수가 없군. 나블스에 도착할 때까지 자네들 둘 다 수갑을 채워둘 수밖에 없겠어."

“설마 그럴 리가요!” 래플스가 외쳤다. “매켄지 경위, 그를 좀 말려 보게. 동포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팔아넘기지 말란 말일세! 선장님, 우리 도망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오늘 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보게, 여기 내 주머니에 있는 건 전부 다 내놓겠네. 버니, 자네 주머니도 다 비워버려. 만약 우리가 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받는 날엔, 저들이 우리 몸을 날날이 뒤질 테니까. 내 부탁은 딱 하나뿐이네. 손목에 수갑을 차지 않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만 해달라는 거라네!”

"웹본스라는 건 없을지도 모르지." 선장이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훔치려던 그 진주는 어쩔 텐가?"

“당장 드리죠!” 래플스가 외쳤다. “배 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망신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자네들이 암전히만 행동한다면,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네.” 매켄지 경위가 말했다. “자, 이제 그게 어디 있지?”

"당신 코앞에 있는 탁자 위에 있잖소."

내 눈도 다른 물건들을 따라 훑었지만, 진주만큼은 보이지 않았다. 반짝이는 탁자 위에는 이미 언급했던 리볼버들과 함께 우리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들만이 놓여 있었다. 회중시계와 수첩, 연필, 휴대용 칼, 그리고 담배 케이스 같은 것들 말이다.

"지금 우리를 속이려는 거요." 매켄지 경위가 말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래플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저 당신을 시험해 본 것뿐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요?"

"농담 말고, 정말 여기 있는 건가?"

"세상에, 저 탁자 위에 있잖아!"

매켄지 경위는 담배 케이스를 열더니 담배를 한 개씩 꺼내 흔들어 보았다. 그러자 래플스는 담배 한 대만 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래플스는 진주가 담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넌지시 언급했다. 매켄지 경위는 즉시 콜트 권총을 낚아채더니 손잡이 부분의 약실을 열었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거의 다 왔어. 탄약을 한번 살펴봐."

매켄지 경위는 그것들을 손바닥에 쏟아붓고는, 하나씩 귀에 대고 흔들어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아, 어서 내게 줘!"

순식간에 래플스는 맞는 탄피를 찾아냈다. 그는 이로 총알을 빼낸 뒤, 황제의 진주를 테이블 중앙에 화려하게 내려놓았다.

"그다음에는 부디 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선장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악당 노릇을 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 선박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밤새도록 수갑을 찬 채로 있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제 부탁을 딱 하나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그 부탁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겠지."

“선장님, 저는 당신의 배에서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잘못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경악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악을 입 밖으로 낸 사람은 폰 호이만뿐이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독일식 욕설을 내뱉었는데, 사실상 그게 이번 사건에서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곧바로 작별 인사를 나누자는 제안에 거세게 항의하며 나섰다. 하지만 그의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세등등한 죄수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갔다.

죄수는 그 소녀와 단 5분간 단둘이 있을 시간을 얻었다. 그동안 선장과 매켄지 경위는 권총을 등 뒤에 숨긴 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시야에는 들어오는 거리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우리가 선실을 나서려던 찰나, 죄수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내 손을 짝 움켜쥐었다.

“결국 너를 이 일에 끌어들이고 말았구나, 버니. 정말이지, 결국 이렇게 되고야 말았어!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네가 안다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야. 아니, 애초에 네가 뭘 가져가야 할 이유도 없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

겠어? 이 일이 몇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도 너는 위기의 순간마다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준 진정한 친구였어. 언젠가 네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좋은 친구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리 슬퍼하지 않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지!”

그의 눈빛에는 내가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어금니를 꼭 깨물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그 강인하고도 교활한 손을, 마지막으로 힘껏 맞잡았다.

그 마지막 장면은 내 기억 속에 사무치게 남아, 죽는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햇살이 내리쬐는 갑판 위, 모든 세세한 풍경과 그림자 하나하나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우리는 제노바에서 나폴리로 향하는 항로에 점점이 흩어진 섬들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우현 후방으로는 엘바 섬이 멀어지고 있었고, 뜨거운 태양이 저무는 그 위로 보랏빛 노을이 내려앉아 있었다. 선장실은 우현 쪽으로 나 있었고, 햇빛이 쏟아지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우현 산책 갑판에는 우리 일행과, 래플스와 함께 더 고물 쪽에 서 있는 창백하고 날씬한 갈색 체구의 인물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냐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도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함께 서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단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엘바 섬에서 울란 호의 선체 강판까지 눈부시게 반짝이며 뻗어 나가는, 햇빛 가득한 바다의 긴 길을 배경으로 노을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는 거의 우리 발치까지 닿아 있었다.

순식간이었다. 찰나의 순간에 일이 벌어졌다. 그 광경을 보고 경탄해야 할지, 아니면 경멸해야 할지 나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더니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고, 그녀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고한 것은 바로 그 행동이었다. 일등 항해사가 그를 뒤쫓아 뛰어갔고, 나 역시 일등 항해사를 뒤쫓아 달려 나갔다.

래플스는 난간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버니, 붙잡아!” 그가 외쳤다. “꼭 붙잡아야 해!”

그의 마지막 명령에 온 힘을 다해 따랐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두 손이 번쩍 치솟더니 고개가 툭 숙여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유연하고 날렵한 몸은 마치 다이빙대 위에서 여유롭게 뛰어 내린 사람처럼, 노을을 가르며 아주 깔끔하고 정확하게 낙하였다.

* * * * *

갑판 위에서 뒤이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저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형벌, 즉 긴 수감 생활과 영원한 치욕 또한 여러분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며,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아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으시든 말든,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적고 이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수갑이 채워진 채 우현 쪽 2등실 객실로 밀어 넣어졌다. 문은 마치 내가 또 다른 래플스라도 되는 양 내 뒤에서 덜컥 잠겨 버렸다. 그사이 구멍정이 내려갔고, 다른 기록에도 분명히 남아 있겠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바다를 살살이 뒤졌다. 하지만 파도 위로 부서지는 석양 빛에 모두의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기묘한 환영이 보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배는 돌아왔다. 프로펠러는 맥동하듯 돌아갔고, 죄수는 현창 너머를 응시했다. 햇살이 부서지는 수면 너머로, 동료의 머리 위를 영원히 덮어버렸으리라 믿는 그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해가 엘바섬 뒤로 저물었다. 춤추듯 일렁이던 햇살의 길은 순식간에 꺼져버렸고, 끝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 속으로 삼켜졌다. 이미 수 마일 뒤로 떨어진 중간 거리의 회색빛 바다 위로, 내 눈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검은 점 하나가 일렁이며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저 멀리 무언가가 보였다. 마침 저녁 식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이미 눈을 떴고 식사를 준비하러 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방금 발견한 형체가 다시 떠올랐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나는 결국 시선을 거두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저물어가는 서쪽 하늘 아래, 죽어가는 금빛과 진홍빛 줄기가 드리운 보랏빛 섬을 향해 떠다니는, 희미한 회색빛 거리 속의 작은 먼지 같은 형체였다. 그것이 사람의 머리였는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전에 밤이 찾아왔다.